3대째 오로지 전통 수제 작설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스피어 직거래) •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 어려서 오르면 오존금리로 내립니다 마법같이로!
• 교육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형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8월 2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욕심을 적게 갖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귀이다.
〈천청문경〉

법회 안내

정중선원 (02)673-8506
초하15법회 매월 1일(음)
금강법회 매주 월 오전10시 00분
교리법회 매주 수 오후1시
한운스님 초청법회 8월 28일 오전10시 00분
혜정스님 초청법회 9월 4일 오전10시 00분

보문사 (02)928-3797
보리화법회 매월 3일
합창단법회 매주 목 오후2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후6시
중 · 고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연화어린이회 매주 일 오전10시

부산 영주암 (051)754-2210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 · 고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청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이리 관음사 (0653)54-1578
일반신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합창부법회 매주 수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주 수 오후7시
학생회법회 매주 토 오후2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대전 영선사 (042)523-0813
거사림법회 매월 첫째 일 오후6시
대불련법회 매주 수 오후6시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2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세계여성불교도 대회 참가기 14면
몽골불교 현장을 가다 15면

검인정교과서 종교교육 질 높인다

고교 종교 교과목 내년 개편 … 타종교란도 신설

고등학교 종교교과서에 종교 일반 및 타종교에 대한 항목이 대폭 포함됨에 따라 타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범어사 주지스님의 '침묵' 범어사 입구 경동아파트 건립 반대 시위에 나선 1백20여 본 말사 스님들은 16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법회에 들어갔다. 사진은 1일부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는 범어사 주지 정관스님. 〈관련기사 19면〉

불교교과서는 전체 13개 대항목중 5개 대항목을 '인간과 종교' '세계의 종교' '한국문화와 종교' '종교경험의 이해' '현대사회와 종교'등으로 구성해 집필을 마치고 지난 19일 서울시 교육위에 검인정을 신청했다.

천주고는 지난해 교과서를 제작, 올해 1학기부터 사용하고 있다. 천주교 교과서는 239쪽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0쪽을 할애해 인간과 종교와의 관계 및 불교 유교등 각 종교의 성립과 한국에서의 전개과정을 소개했다. 불교의 경우, 사상 · 교리 경전 종단으로 분류해 16쪽에 걸쳐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했다.

상 · 중 · 하권으로 나눈 기독교교과서는 각권마다 '인간과 종교' '한국의 종교' '현대사회와 종교'를 대항목으로 설었다. 불교는 '불교의 전통과 사상'(상권) '불교의 수용'(중권)을 소항목으로 설정해 사상과 교리, 한국불교의 시대적 전개과정을 사실적으로 서술했다.

그러나 종교의 정의를 신(神) 또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과 귀의로 단순화시킨 것은 폭넓은 종교이해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천주교와 기독교는 종교를 "신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수행하는 인간의 태도" "창조주와 인간이 연합하는 과정, 절차와 그 의식"이라며 신중심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와는 달리 불교는 여러 종교의 현상을 종합하는 총체적인 이해를 감조, 종교정의의 단순성을 경계했다.

자칫 종교간의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우리사회에서 고등학교 교과서가 타종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집필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대 윤원철교수(종교학)는 "청소년기에 종교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의미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교과서 개편취지가 충분히 반영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정성운 기자〉



◇ 동국대는 '우리는 불자가정' 스티커 5천매를 제작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송석구 총장은 지난 17일 차량에 스티커를 직접 부착했다.

'불자 가정' 스티커 20만매 돌파

동국대 5천매 등 단체보급 확산 … 차량용도 제작

'우리는 불자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스티커 붙이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만매를 돌파 했다.

본사에는 적게는 한장에서 수백장을 신청하는 전화가 매일 걸려 오고 있으며 월간 '불광' '대중불교'등 교계 언론에서도 홍보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동국대와 양산 천불사, 본원정사도 각각 5천매를 제작 보급 직원과 신도들의 가정에 스티커를 부착케 했다. 이밖에도 개인 신청과 단체 신청이 쇄도 하고 있다.

본사에서는 가정용 20만매 돌파를 계기로 차량용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사찰 부동산 처분 통제장치 보완

조계종, 전사법 개정 위한 각 분과위 여론수렴

조계종 종단현안문제 해결대책위(위원장 정휴스님)는 전통사찰보존법상 '재산처분승인' 조항 개정에 관해 중앙종회 각 상임분과위원회의를 열고 경내지 범위확대등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 개정안에 대해 일체를 위임받고 본격적인 개정 추진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종단재산의 불법적 처분을 막기위해 △전통사찰 경내지안에 있는 동산 · 부동산의 처분시 종단의 승인과 문체부 장관의 허가, 경내지 밖에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시 종단의 승인, 또는 △문체부 장관의 허가 범위를 경내지에서 전통사찰 소유의 부동산으로 확대 하자는 안 등으로 압축 사찰 부동산 처분에 대한 법적 통제장치를 보완할 예정이다.

신행단체 실태조사

교계최초, 포교정책 자료

직능(직장)신행단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교계 최초로 실시된다.

조계종 포교원은 포교정책 수립의 자료활용과 신행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에 산재한 각종 직장, 직능별 신행단체의 연락처, 임원명단, 신행활동 상황, 지도법사 등을 11월말까지 조사할 예정.

금주 20면 발행

社告
현대불교와 함께 일할 신문 판촉사원을 찾습니다

현대불교는 불자들이 복잡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하실 수 있도록 전 지면을 신행위주로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불자님들 가정에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를 보급하는 일에 지희와 함께 동참할 '일선 전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시 기	자 격	구비 서류	대 우
신문 판촉 요원	00 명	상 시	제한없음 (고객활동 경력자, 가정주부 환영)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소정의 활동비 및 능력급 지급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화(02)737-8881 판매담당자에 문의 바람.

현대불교신문사

목어

'광복 50주년'이 63빌딩에 선명히 드러나면서 여의도 고수부지에서는 최첨단 멀티미디어 영상쇼가 한강을 무대로 펼쳐졌다. 세계적인 비디오 예술가 백남준의 작품이 더욱 돋보인 이날 행사가 끝난뒤 한강변 고수부지에는 쓰레기가 곳곳에 널려있었다. TV화면에 비친 쓰레기를 보는 순간 광복 50년 기념행사가 무색하게 느껴졌다. 그게 어디 목어지만의 심정이었을까.

정부와 사회각계에서 광복 50주년을 기리는 성대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고, 매체들이 총동원 돼 50주년 특집에 힘을 쏟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반세기 역사를 거울삼아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는 취지에서다.

일제의 잔재인 옛 총독부 첨탑이 제거되고, 숭차게 달려온 50년을 돌아보며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점옴과 지성의 거리에서 일본 노래가 흐르고 있는 정경을 상상해보자. 또 일본에서 유행하는 옷차림을 그대로 흉내내고, 일본 우동집이 붐비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행사는 겉치레용이 아니다.

'나부터 달라지자'

일제의 잔재인 옛 총독부 첨탑이 제거되고, 숭차게 달려온 50년을 돌아보며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점옴과 지성의 거리에서 일본 노래가 흐르고 '통일로 미래로'의 구호에 걸맞는 내일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들뜬 축제보다는 차분한 반성과 자기성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새로운 출발은 국민 모두의 몫이다. 누구를 탓하거나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아니다. 나부터 달라져야 한다.

근세의 고승 효봉스님은 도반의 허물을 말하는 제자에게 "너나 잘해라"고 가르쳤다.

그렇다. 우리모두 부끄럽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때 비로소 새 출발은 시작될 것이다. 그래야만 무질서 · 부실공사 · 사고 · 폭력 · 검은 돈 등 이땅에서 부조리가 사라지고 진정한 광복이 이뤄지리라.

여기서 빛과 소금 그리고 목탁을 자처하는 종교가 할 일은 무엇일까.

신명나는 지방자치, 힘차게 다시 뛰십시다!

韓國

韓國人 —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다시합쳐 힘을 모읍시다.

지방자치는 세계화의 출발 -
깨끗한 선거, 바른선택으로
21세기 우리 조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세계로 가는 한국,
미래로 가는 한국인-
우리의 힘과 저력뒤엔
언제나 인삼이 든 원비-엘가
함께합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일양약품

원비-에프 WONBI-F 医藥品
용법·용량 : 1일1회1병
효능·효과 : 육체피로·저항감장·허약체질
표준소매가격 550원

洋·韓方의 과학화를 선도하는…

사 설

'건강한 종교' 교실서 뿌리내리자

한국불교종립학교연합회가 종립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종교학 교과서 중에서 불교용 교과서를 편찬하여 서울시 교육위에 검인정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동안 종교교육을 위한 교과서가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각 종교마다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내용의 교재가 있었다.

근대적인 학교교육이 시작된 것은 기독교의 유입과 함께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 기독교계통에서 설립한 중·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수백여 곳에 이른다. 이것은 학교교육을 통해 기독교를 전파하겠다는 선교전략과 서양의 선진문물을 수입하기 위해 근대적 교육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불교의 입장도 당시의 대다수 단체와 비슷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교육과정를 수용하여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모색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근대교육제도는 서구의 역사적 산물이며, 사상적으로도 기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불교계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은 그 역사성이나 방법론 상에서 기독교계에 현격하게 뒤질 수밖에 없었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불교를 가르칠 종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한 손에 꼽을 정도라 하니 한심스러움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보다 엄밀하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각 교단의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원 종교사회인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매우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특히 종교가 무엇이며, 종교의 사회적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전문 종교학자들에 의해 집필되었다는 점도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서구 일변도의 종교학 연구 경향은 유일신교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암암리에 강조하는 호교론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일방적인 종교의 우월성 강조나 관념적 우상에 사로잡힐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상대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돌이켜 보면 근대화 이후의 한국불교는 오욕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모든 부분에서 서구화를 추구하는 국가시책에 짓눌려 독자적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이런 점은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불합리하게 소외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선각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역사나 종단의 덩치에 비해 코끼리 비스킷 같은 국립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게 한 것이다. 학교교육이 단순한 이익추구가 아니라 종교적 이상을 전파하는 목적사업이며, 사회의 동량을 양성하는 곳이란 점을 상기한다면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검인정 불교교과서 편찬을 계기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끊임없는 개발과 투자를 통하여 보다 질 높은 불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종단 내외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바탕이 제대로된 인간을 양산할 때 한국불교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점은 3척 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를 가르칠 훌륭한 교사 양성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불교를 가르칠 종교교사가 부족하다니 할 말을 잊을 수 밖에 없다. 그에 대한 대책수립을 소홀히 해선 안될 것이다.

열 린 마 당

종교교사

교단의 목소리

김 형 중 〈명성여고 교법사〉

東大 특별전형등 종단차원 해결을



종립학교에서 교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법사들은 중교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민윤리 교사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을 뿐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중고등학교에서 종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위원회에서는 종교교사와 검인정 종교교과서가 없는 학교에서 자유선택으로 종교과목을 실시하고자 희망을 해와도 법적으로 허가를 해 줄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각 불교종립학교가 지금까지 관례대로 교육위원회의 묵인하에 정식과목이 아닌 변칙으로 계속해서 교학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종교(불교)교육은 법적인 구비여건과 자격증을 갖추고 실시하는 것이 떳떳하고 바람직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쓸데없이 교육위원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종교교육을 하는데 위축을 초래할 수 밖에 없으며 우리의 의지대로 종교교육을 하기 어렵게 된다.

우리 교법사들이 종교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었던 원인은 특히 지방학교에 근무하는 교법사가 1년동안 휴직하고 서울에서 하숙하면서 등록금을 개인적으로 180만원을 내야 하는 현실적 상황 때문이다.

앞으로 다시 우리 불교종립학교 교법사들 만을 위하여 종교과목 임시교원양성소가 개설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종단이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종단이 교육부 당국과 건의 협의하여 종교과목 임시양성소를 동국대학교에 위탁하여 동국대학교가 연수를 담당하여 교법사들을 교육시켜 종교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교법사들의 질적 향상과 재교육의 차원에서 종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종교교육과에 특별전형하여 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종교교사 자격증과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케 하는 것이다.

청소년포교는 미래 불교의 자화상이다. 청소년 포교의 중심적 역할은 당연히 전국의 불교종립학교가 담당해야 하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사람은 교법사들인 것이다. 종단의 관심을 촉구한다.

자격취득 방법

교직과정·서울대 위탁교육 거쳐야

종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음에 따라 종교교과에 대한 비중이 더욱 커졌다. 교육부도 종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인정함에 따라 종교교사 자격취득교원이 교육함으로써 선택과목제도를 정착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종교교사의 필요성도 커진 것이다.

종교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종립대학에서 해당 종교학과와 교직과정을 동시에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 종교교육학과를 전공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위 과정을 거친 종교과목 담당교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종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기 이전부터 종립학교에서는 종교과목을 성직자나 국민윤리담당교사가 가르쳐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신교와 천주교는 발빠르게 대응 한국기독교학교연맹과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에서 종교과 임시교원양성을 교육부에 건의, 교목 신부 등 종교담당 무자격강사들에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개신교와 천주교측의 건의에 따라 지난 91년과 올해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에 위탁 각각 104명과 63명을 1년과정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종교교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불교종립학교 교법사는 4명이며, 현재 3명이 과정을 이수중이다. 개신교 천주교는 100명이 자격을 취득했으며, 60명이 과정이수중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종교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특별조치는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특별과정이 있음에도 불교쪽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종립학교의 지원부족이다. 180만원의 등록금을 보조할 만큼 재정운영이 탄력적이지 못하고 지방소재 종립학교에서는 이 과정이수를 위해 교사의 휴직과 이에 따른 교원을 보충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다.



◇ 작가 사정으로 현대만평 쉽니다.

시 론

8·15에 그려 본 민족의 비원

광복 50주년이 되는 날 천지의 물과 백록담의 물을 합수하려던 계획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렇게 해서라도 통일을 향한 민족의 비원을 그려보고자 했건만….

일제의 강압으로부터 풀려난 지 50년을 맞은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해방이 곧 광복인지는 그 뒤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볼 때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해방이 되었지만 조국은 둘로 갈렸고 민족은 분열된 가운데 대결을 계속해 왔다. 세계 어느 곳도 자유로이 갈 수 없는 곳이 없는데 가장 가깝고도 하나의 생활권이어야 할 남북간에는 왕래가 불가능하다. 민족은 적대적인 체제와 의식, 사상속에서 분열과 대결을 거듭해 왔다. 심지어 엄청난 인적·물적 희생을 수반한 전쟁까지 치루었다. 이러한 역사과정을 볼 때 광복 50년을 기쁨속의 축전으로 치루는데는 어딘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지난 반세기간에 남북관계는 어떻게 바뀌어 왔고 지금의 상황속에서 미래의 남북관계 및 통일한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항일독립투쟁에서 공동목표를 가지고 공동전선을 전개했던 좌우익(민족주의세력과 공산세력)은 해방되자 마자 국토분단에 맞추어 분열됐다. 특히 1946년 후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좌익과 즉각적인 통일정부수립을 내세우며 반탁을 하는 우익이 본격적으로 대립되었다.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이 반탁세력을 임시정부수립 협의대상에서 제외시키기를 고집하여 남북분단의 고정화는 기정사실로 되어 갔다. 융합될 수 없었던 좌우익은 각기 남북에 정부를 세웠다. 1950년 6.25 남침전쟁으로 분단고착화는 더욱 확고해져 갔다.



민 병 천
〈前 동국대 총장〉

'통일 한국' 앞당기는 준비

전쟁으로 철저하고 대결적인 분열을 한 남북한은 1972년 7월 통일원칙(자주, 평화, 대단결)에 합의함으로써 제한적인 대결 즉 다소 누그러진 냉전적 분열을 하는 시대로 넘어 갔다. 이 성명이 있은 뒤 몇년간은 아주 제한된 교류까지 하여 남북간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적어도 1984년 9월 북으로부터 수재물자 제공이 있기까지는 그러했다. 수재물자교류가 있은 뒤 남북한 관계는 다소 개선되었다. 1992년에 남북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교환되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있음으로써 남북관계는 대 전환점을 맞았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제도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실천화는 없다.

작년부터는 오히려 남북관계가 악화의 길로 되돌아 가고 있는 듯 보인다. 북한은 남한당국을 고립, 타도하기 위한 목표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공존 교류 협력' 선행돼야

남북한 관계가 악화되자 한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고 있는 쌀제공에 지나칠 정도의 적극성을 보였다. 쌀제공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생각에서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쌀제공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교류를 지나치게 서둔 남쪽은 북쪽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의 대남비방선전이나 고립화 행동이나 민관분열노력이 계속되고 오히려 어처구니없는 돌출행동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문제까지도 남한측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미국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한·미 이간과 한국 따돌리기 전략의 일환일 것이다.

김대통령은 광복 50주년 기념사에서 한반도평화는 당사자간에 해결되어야 하고 주변국은 평화에 협력토록 하며 남북합의서가 준수되어야 함을 천명했다. 북한은 민족문제의 '자주해결'을 줄기차게 주장했으나 평화문제도 미국과 해결해야 한다는 모순된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이 천명은 뜻이 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의 반세기를 '번영된 통일조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적어도 두 가지 일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산업화단계를 넘어 복지국가화를 진행시키고 있는 남한은 21세기초에 그것을 완성하고 번영국가의 단계로 가급적 속히 접어들도록 노력하고 북한은 산업화를 완성할 수 있는 내외협력을 얻기 위한 개혁, 개방을 하루 속히 추진해야 한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공존 교류 협력'단계가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화해통합' 단계를 이루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공존(평화)과 사회적 통일 현상인 교류협력을 위하여 당국뿐만 아니라 민간의 노력도 요구된다. 그러므로 남북불교의 교류와 협력은 통일(사회문화)행동임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광복—분단 50년 종교인 평화통일선언문

우리 민족이 일제의 폭압정치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은 지도 어언 반세기가 지났건만,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분단의 시련과 냉전의 상처로 얼룩져버린 지난 세월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운명의 멍에로 남아있는 현실이다. 독립의 기쁨은 동족상잔의 슬픔으로 변했고, 민족 자주의 꿈은 민족 분열의 함정 속에 매몰되어 민족정기의 소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미완의 광복으로 초래된 분단시대의 비극인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미완의 광복만을 탓할 수는 없다. 이제 광복 50년은 과거 어둠의 질곡을 벗어버리고, 민족사회의 진정한 광명을 되찾는 힘찬 새출발의 원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분단의 어둠이 우리 한민족의 강인한 생명력과 빛나는 문화 전통을 더이상 덮어 누를 수는 없다. 해방 50년, 분단 50년의 8·15 광복절이 바로 21세기 통일민족사회를 향한 진군의 나팔소리로 힘차게 울려퍼져야 함을 장엄하게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 동안 평화를 사랑하고 지켜온 민족이다. 우리 모두는 이 고귀한 전통을 거듭 확인하며, 허리를 동강낸 분단의 슬픈 유산을 과감하게 청산할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다시금 깨우치고자 한다. 분단은 땅만 갈라 놓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갈라 놓았고, 철조망만 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벽을 더 높이 쌓게 만들었다. 우리는 광복 50년을 맞아 분단의 벽을 허물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동시에 상호불신과 두려움으로 높게 쌓아 올려진 마음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우리 종교인들은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위해 사상과 종파를 뛰어 넘어 한마음으로 3·1 독립운동을 펼친 소중한 역사적 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분단 이후에도 우리 종교인들은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체제와 이념의 벽을 뛰어 넘는 인도주의적 만남을 계속해 왔고, 이를 통해 갈라진 남북의 형제와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도록 만드는 통일의 길을 열어왔다. 이는 겨레의 하나됨을 인도하는 역할인 동시에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다. 우리 종교인들은 갈라진 민족사회에 통일의 광명을 비추는 이같은 선구자적 역할을 한 순간도 망각할 수 없으며,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그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종교인들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남과 북이 함께 살아나는 공생의 통일, 남과 북이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통일, 남과 북이 서로를 배우고 닮는 사랑의 통일, 남과 북이 서로를 새롭게 만드는 창조적 통일, 남과 북이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공존공영의 통일이 되어야 함을 7천만 민족 앞에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 종교인들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되살아나는 통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원칙이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우선해야 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강자의 이익을 위한 통일'이 아니라 분단과 대립의 공포에서 자신을 보호하기에도 벅찬 '약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통일'이 되어야 함을 호소하고자 한다. 통일이 또다시 강자의 이익 다툼에서 비롯되고 강자의 승리로 귀결되고 만다면, 결국 민족사회의 분열만을 낳게 되어 통일은 영영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의 위협에 항거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내외의 책동에 끝까지 맞서며, 분단을 빙자한 모든 폭력과 극단주의의 종식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 종교인들은 광복 50년의 참뜻을 되살려 미완의 광복을 평화통일로 승화시키는 민족의 성업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동시에 증오와 불신을 참된 화해와 믿음으로, 두려움과 무관심을 참된 이해와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통일성업의 제단에 민족자주와 영롱한 민족 정기의 횃불을 밝혀 21세기 통일민족사회의 미래를 여는 민족사 창조의 여명이 도래함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이토록 지고한 목적을 달성할 통일성업의 실천강령을 제시함과 아울러 남북의 종교신앙인과 7천만 민족 모두가 이에 기꺼이 동참할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바이다.

실 천 강 령

하나. 남북 종교인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선구자적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남북 종교인은 남북한 사회의 자주성 고양과 도덕성 회복의 바탕 위에서 통일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하나. 남북 종교인은 분단의 상처 치유에 앞장 서고 대화의 노력을 계속한다.
하나. 남북 종교인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의 위협에 항거한다.
하나. 남북 종교인은 남북합의서 실천에 앞장 선다.
하나. 남북 종교인은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을 꾸준히 한다.
하나. 남북 종교인은 민족의 화해와 재일치의 선구자가 된다.
하나. 남북 종교인은 종파적 경쟁을 지양하고 인도주의적 사업에 주력한다.
하나. 남북종교인은 신앙의 자유와 민간교류를 저해하는 법률과 제도의 개선에 노력한다.
하나. 남북 종교인은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에 앞장 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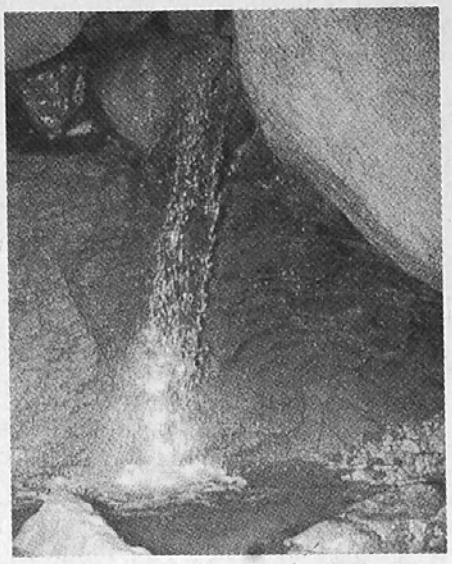
광복 50주년 8월 15일

폐기물 무단매립등 주원인

부처님의 지구 사랑 — 전 재 성 ㉒

지하수 오염 ㊤

식용땐 각종 암·기형아등 괴질 유발
일단 오염되면 정화 불가능



◇오폐수가 지표를 뚫고 땅속에 스며들면 지하수를 오염시켜 지하생태계와 인간생활에 큰 피해를 입힌다.

부처님은 기세경(起世經)에서 땅의 대신(大神)이 "땅의 세계안에는 물, 불, 바람의 세계가 없다"라는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질책하여 "대신이여, 그대는 이제 그와 같은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왜냐하면 이 땅의 세계 안에는 실제로 모든 물, 불, 바람의 세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다만 그 안에 땅의 세계가 많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지하수는 땅의 세계속을 흐르는 강물이다. 지하수는 지표수가 토양층에 침투하여 형성된다. 토양층은 지표수를 정화시키고 식물에 물을 공급하는 통기대와 물이 가득차서 고여있는 포화대로 나누어진다. 지하수면은 이 통기대와 포화대 사이에 놓이는데 일반적으로 지하 30여미터 내에서 발견되지만 지하 수백미터에 해당할 경우도 있다.

현재 지상의 지표수가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비를 비롯한 산업폐수의 무단방류, 폐기물의 무단 매립 등 각종 공해로 심하게 오염되고 있어, 토양층에 침수되는 지하수도 날로 그 오염의 심각도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근본적으로 대기오염에서 유발되는 산성비는 통기대에서 정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흙속의 미네랄 성분 가운데 알미늄이온(Al^{+3})과 같은 중금속을 용해시켜 오염을 가중시킨다. 이 알미늄이온등 중금속으로 오염된 물은 지하 생태계를 파괴하여 많은 유익한 박테리아와 식물의 잔뿌리를 사멸시키며, 포화대속으로 들어가 유해한 지하수를 형성한다.

또한 분뇨처리장이나 농경지에서 나오는 질산염과 같은 비료성분은 토양과 반응해서 중화되지 않으므로 지하로 스며들어, 그 물을 먹은 어린이들을 청색증에 걸리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기도 소래면에서는 지하수가 오염되어 주민들이 피부병, 설사, 요통등을 호소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과학기술원 조사에 따르면 지하수의 비소농도가 허용치인 0.05㎎/l의 다섯배 가량인 0.25㎎/l로 밝혀진 적이 있었다.

또한 최근에 경기도 일원에서 유리섬유의 무단방치와 매립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어 그 물을 먹은 주민들이 각종 암이나 피부병 및 괴질환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이 보도된 적이 있다. 1942년에서 1950년까지 미국에서 나이애가라 폭포 부근에 중단된 운하 건설현장에 유독성 폐기물 2만2천톤을 매립했는데, 이 폐기물 침출수가 지하에 스며들어 그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 주민들은 1973~1978년 사이에 이 지역 출생아 가운데 2/3 이상이 정신박약과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선천성 기형아를 낳았다. 이 사건으로 미국정부는 1억달러 이상을 소모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그 마을은 유령도시로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평균 1,140억㎥의 강우량과 2,320억㎥의 지하수 자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물소비의 증가(1950년대의 3배 4,340㎢)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초래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지표수 유입량의 감소와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지하수면도 급격히 하강하고 있다. 북경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 주변에서는 1년에 1~2m의 지하수면 하강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지하수 오염의 농도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암석의 깊은 층까지 침수되어, 정화시킬 산소가 희박한 곳에 도달함으로 자연적 분해나 미생물에 의한 정화가 일어나기 어렵고, 더구나 그것은 인위적으로 정화하기란 불가능해진다.

또한 지하수는 천이 속도가 매우 느려 1년에 1.5m 정도밖에 흐르지 않는 곳도 있어 오염물질이 씻겨내려가기까지 수십년 내지 수백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한국불교대 교수〉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로 내 이웃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지금의 내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외면해 버리기 일쑤다.

경전을 보면 근기에 따라 베푸셨던 부처님의 점진적 설법들 가운데 '베품에 관한 말씀'이 제일 먼저 다뤄지고 있음을 자주 접하게 된다.

금주의 주제

후원금 보내기

이 된다.

신체장애인 및 정신박약아들을 친자식처럼 돌보고 있는 천마재활원 원장 박근련씨는 "불자들이 보내주는 후원금은 원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돌보아 주고 염려해 주는 이들이 있다는 데에 안도하게 하며, 살아가는데 용기를 준다"고 말했다.

또 정신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 원장 혜진스님은 "큰 돈이 있어야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후원금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는데 장애요인인 것 같다"고 지적하고 "정성스럽게 보내주는 한푼 두푼의 후원금이 내 이웃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오늘 보시하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미래에 대한 또 다른 보시행을 일으키는 인연이 될 수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후원금 보내기'를 "더 넉넉한 사람이 하겠지"라고 다른 사람의 몫으로 돌리기에 앞서 "내가 먼저 작은 힘을 보태자"는 마음으로 실천하길 바란다.

단순히 세상살이를 위한 복 짓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실어린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베풀어보자.

'나와 이웃' 따뜻한 관계 체험하는 자비행

경전마다 나눔·보시정신 강조

아함경에는 '바르게 모은 재산을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이를 두 눈을 갖춘 사람으로, 모으기만 할 뿐 베풀지 않는 사람을 한쪽 눈밖에 없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다.

불교계에는 '나눔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그 첫번째로 꼽히는 곳이 장애인, 고아, 무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수용하고 있는 복지시설들이다. 교계의 경우 불자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을 필요로 하는 곳이 3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30여개의 복지시설들은 정부 지원금, 운영자의 사비, 후원금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은 기대치 이하를 맴도는 실정이고, 사비의 출연도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복지시설들은 불자들이 보내주는 후원금이 큰 힘

신행수첩

더위로 풀린 몸 가다듬고
차생활문화원 가을 강좌

찌는 듯한 폭염과 장마비가 하루를 장식하는 여름.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풀어져 절도를 잃기 쉽다.

(사)한국차생활문화원(원장 감승희)을 두드리면 더운 여름을 현명하게 보낼 수 있다. 9월 2일 3시 가을강좌를 개강하는 한국차생활문화원의 이번 강좌에서는 전통예절은 물론 한국차 문화사, 행다실습, 차그릇 만들기(도요지 답사), 한복 바로입기 등을 강의한다.

또한 개강일에는 배오성 백상한의원 원장이 '공해시대의 체질관리와 차'라는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02)732-9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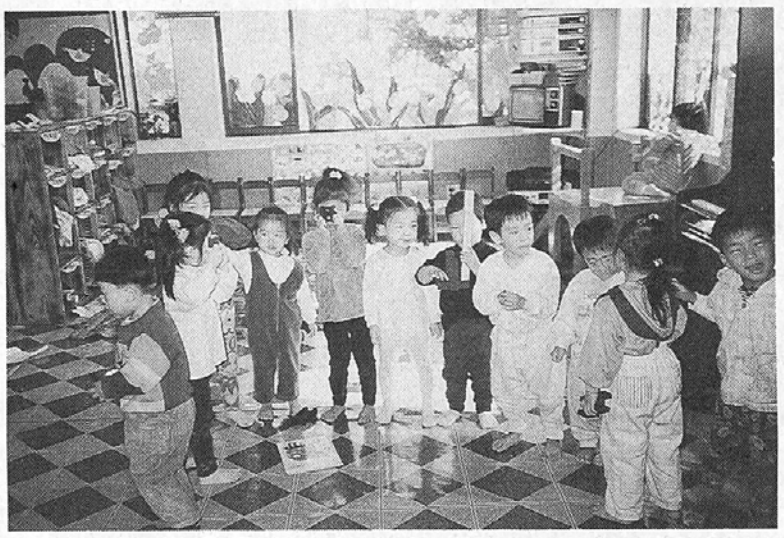
보금자리마련 하루찻집
햇님어린이집, 27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랑하나만으로 세상을 가꾸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

미아8동에 위치한 햇님어린이집은 온종일 아이들의 재잘거림으로 가득하지만 어려운 여건탓에 맘껏 뛰놀 수 있는 곳도, 더 풍족한 교육도구가 없는 것도 불자교사 두사람에겐 안타까운 일이다.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햇님어린이집이 오는 27일 조계사앞 목마레스토랑에서 '보금자리마련 하루찻집'을 연다.

비영리 탁아소라 어려움이 많은 만큼 정성어린 도움이 필요하다. 하루찻집에 들러 백년대계의 동량을 위한 차 한잔도 꽤 의미있는 보시일 것이다. 이와 아울러 후원금이나 장난감, 동화책, 가정용품 등을 보내줄 회원도 모집중이다. (02)985-6920



◇미아8동 소재 햇님어린이집은 교사와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합심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호남 9산선문을 찾아
27일 광주불교교육원

신라말 고려초에 불교의 한 종파인 선종(禪宗)이 중국으로부터 유입하여 형성된 9개의 산문(山門)이 선종구산선문이다.

선종은 석가가 영산설법에서 말없이 꽃을 들자, 제자인 가섭만이 그 뜻을 알았다는 데서 기원하며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기 때문에 불심종(佛心宗)이라고도 한다.

광주불교교육원이 오는 27일 '호남지역 선종 산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불교문화 유적답사를 떠난다. 이번 답사는 9산중 가장 먼저 개창한 실상산문 지리산 실상사에서부터 혜철스님의 법을 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동리산문 곡성 태안사의 온화함을 만난다.

또 한국불교의 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지산문의 장흥 보림사와 3층으로 된 특이한 대웅전이 있는 사자산문 화순 쌍봉사를 거치며 9산선문의 숨결과 사상을 느낄 수 있다.

안내는 전문가 3명이 맡고 출발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후문에서 오전 8시30분. (062)228-9098

한여름밤의 추억 수놓아
불교어린이 글짓기대회

8월 중순이면 여름방학을 차분히 마무리해야 할 시기다. 엄마 아빠를 따라 시골집에 간 일, 시원한 바다나 계곡을 찾아 물장구를 치던 일, 시원한 선풍기바람 아래 책을 읽었던 일들을 추억삼아 화제로 거론할만 하다.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이사장 박용열) 부설 한국불교아동문학회(회장 김종상)에서는 국민학교와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14회 전국불교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 재미난 이야기들을 기다린다.

작품은 동요·동시·일기·기행문·편지글·독후감·논설문 등의 생활문, 기타 부분으로 나눠 9월30일까지 모집한다.

또 한국불교아동문학회에서는 단편동화, 동요·동시, 아동극, 소년소설 부문에 능력있는 신인작가의 작품도 10월10일까지 공모한다. (02)416-3346

구독신청 : 737-0693

감실불상등 신라천년 전설따라
신라문화원 경주남산 유적답사

천년역사의 숨결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경주. 그 경주이 진산인 남산은 산 전체가 법당이라 할만큼 골짜기마다 불상과 탑재가 자리하고 있다.

신라문화원에서는 9월3일 경주남산으로 유적답사를 떠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답사는 부처골바위속에서 잔잔한 미소로 다가오는 '감실불상'과 신라의 태동을 있게한 박혁거세 임금의 탄생지인 '나정', 그리고 역사의 뒷마당에서 아린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포석정' 등에서 천년의 전설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듯. (0561)771-1950

검찰수사권을 발동하라 !!

— 단식에 들어가며 부산시민에게 드리는 글 —

우리 범어사 1백 20개 본·말사 대중은 그 동안 부산의 얼굴이요 정신인 금정산을 지키기 위해 범어사 입구 경동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동건설은 공사강행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정승가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어 **혼탁한 중생계를 정법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보살의 자비심으로 대중이 일치단결하여 뜻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결행하고자 한다.

[1] 금정산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부산시민 모두의 것으로 보존되어야 마땅하다.

하늘의 해와 달이 개인의 것이 될 수 없듯이 금정산 자연경관도 4백만 시민과 만인의 정신적 안식처로 만대에 길이 유전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고 미적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과 일맥 상통하는 바이다. 이에 따라 **부산은 아시안게임과 함께 국제적 선진도시로 성숙할 시점**에서 우리가 숨쉬고 발을 딛고 사는 부산을 푸르고 쾌적한 도시로 가꾸는 데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2] 금정산 경동아파트 건립 저지에 범어사가 나설은 수행자의 사명이요 역사적 도리이다.

오늘날 환경파괴로 인한 대재난의 징후는 국토와 지구촌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로서 우리도 선진국의 환경복구 노력을 주시해야 할 때이다. 범어사 대중은 국토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형사고가 인간의 생명을 업수히 여기고 조화보다는 파괴로써 자연을 극복하고자 하는 심성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경파괴가 향후 대재난을 몰고올 것이라 직관하였다. 따라서 생명의 크나큰 집결체요, 유기체인 금정산이 특정 재벌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훼손당하는 것은 4백만 부산시민의 생명력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요, 1천 4백년 동안 국가의 안위를 위해 금정산에서 살아온 범어사에 직접적인 훼손을 가하는 것이다. 범어사 입구 금정산을 파헤치고 금정산을 가로막는 고층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범어사에 주어진 수행자의 사명이요 역사적인 도리인 것이다.

[3]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는 대중스님은 흠집없는 금정산을 후세에 물려주고 환경파괴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지난해 8월 본·말사 주지 회의에서 경동아파트 건립 저지를 결의한 이후 부산시청, 금정구청, 경동건설에 건의문을 발송하고 수차례 경내 규탄법회와 금정구청 앞 대규모 시위를 통해 아파트 건립 계획의 철회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에도 당국의 미온적인 자세와 경동측의 공사강행이 이어지자 급기야 주지스님을 비롯한 수백 명의 사부대중이 공사현장에서 십수일째 침묵시위를 벌이게 되었으며 이런 와중에 청정승가의 화합을 깨고 승가를 비속화하려는 유언비어가 난무함에 따라 대중은 승가의 위상을 바로 잡고 일치단결하여 흠집 없는 금정산을 후세에 물려주고자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게 되었다.

[4] 아파트 건립계획 철회를 위한 당국의 성의 있는 노력과 검찰수사권 발동을 촉구한다.

범어사 대중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면서 향후 사태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산문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 선거전의 저지 결의대회 석상에서 「맹세코 아파트를 못 짓게 할 것」이라고 시민과 약속한 김진재, 곽정출 의원과 민자당 그리고 산지와 인접해 허가를 남발한 부산시 당국은 공히 아파트 건립 계획 철회를 위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과 인허가 과정에서의 많은 의혹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한 검찰수사권 발동을 촉구한다. 만일 이와 같은 민의가 관철되지 않을 시 내년 총선에서의 민심이반과 행정당국을 불신하는 불행한 사태가 야기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범어사 본·말사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 부산불교신도회
- 사단법인금정산보존회
- 공동체의식개혁 국민운동부산협의회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부산 Y·W·C·A
- 사단법인기러기문화원
-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 참여자치시민연합
- 홍사단 부산지부
- 한국일본문제연구회
- 한국소비자연맹부산지부
- 부산불교문인협회
- 부산여성의전화
- 부산불교신도회
- 사단법인금정산보존회
- 공동체의식개혁 국민운동부산협의회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부산 Y·W·C·A
- 사단법인기러기문화원
-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 참여자치시민연합
- 홍사단 부산지부
- 한국일본문제연구회
- 한국소비자연맹부산지부
- 부산불교문인협회
- 부산여성의전화
- 정신대문제부산협의회
- (통합)부산여성회
- 늘푸른시민모임
- 부산환경운동연합
- 불교환경연합
- 내일신문부산사업소
- 부산불교자비원
- 부산장애인사회문제연구회
- 부산 Y·M·C·A
- 사단법인불국사회복지법인불국토
- 원불교부산교구



용주사 화산 효행교육원 기공식

수원 용주사(주지 정현) 화산 효행교육원 기공식이 지난 12일 용주사 인근 교육원 설립부지 현장에서 거행됐다.

이날 기공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경기도지사 이인제씨, 김인영, 남평우, 정창현, 임경호의원, 김일수 화성군수, 이해상 화성군의회장 및 신도들이 참석해 효행교육원의 원만한 건립을 기원했다.



목동청소년회관장 명우스님 취임식

목동청소년회관 관장 이·취임식이 지난 12일 본관 극장에서 거행됐다. 법운스님(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상륜스님(양천구민체육센터 관장) 등 스님과 신도 2백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명우스님이 신임관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전임관장 광우스님이 공로패를, 명우스님과 박종철씨(목동청소년회관 총무과장)가 표창패를 각각 수상했다.



정신대할머니 삶터 나눔의 집 기공

광복 50주년 맞이 정신대할머니들의 삶의 터전인 '나눔의 집' 건립 기공식이 지난 14일 오후 3시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원당리에서 거행됐다.

이날 기공식에는 한국정신대문제 공동대책위원장 윤정옥씨를 비롯 정신대할머니 7명과 조계종 문화사회부장 시현스님, 자비의전화 회장 정덕스님, 진관사 주지 진관스님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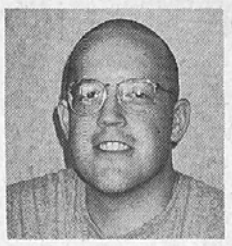
열사·대형참사 영가위한 천도 대법회

강남 봉은사(주지 무상)는 지난 11일 우란분절을 맞아 독립열사, 민주열사및 대형참사로 숨진 영가 천도를 위한 생명해방의 대축제를 봉행했다.

봉은사와 삼성동일대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석주스님, 월주스님을 비롯 스님 1백여명과 신도 1만여명이 참석, 풍물굿, 마당극과 불교의식으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한국불교 너무좋아 산문에 있지요"

범어사 안양암에서 수행
존 윌리엄 말콤슨 스님



파란 눈의 행자승이 범어사 안양암에서 한국불교에 흠뻑 심취해 수행정진에 여념이 없다. 미국 워싱톤주 시애틀 태생인 존 윌리엄 말콤슨(27, John William Malcomson)이 그 주인공.

말콤슨은 미국 에버그린 스테이트 칼리지(Green State College)를 졸업하고 태국, 싱가폴,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을 여행하면서 동양과 불교에 매료돼 범어사 안양암에까지 발길이 닿았다. 범어사 승가대학(강주 대각스님)의 영어회화 강사로서 학인스님들의 은사스님(?)으로 일하고 있는 말콤슨 스님은 "원시불교의 원형이 많이 남아 있는 한국불교가 너무 좋아 산문에 들어서게 됐다"고 입문의 동기를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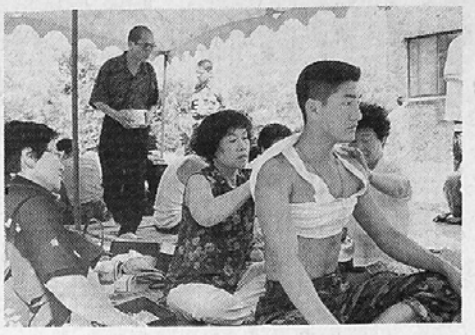
〈병〉



중국 신재부씨 부인등 내한 공연

월북무용가 최승희(崔承喜)의 마지막 제자로 알려진 중국교포 박영자씨와 안승자씨가 지난 9일 일행 6명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최승희로부터 직접 무용을 배운 이들중 박영자씨는 중국불교협회 내의 한국통으로 알려진 신재부(申在夫)씨의 부인으로 교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들 무용단은 지난 19일 부산공연, 21일 전주공연, 23일 충주공연을 갖기도 했다.



◇ 성훈따주기 공덕회 회원들의 따뜻한 손길은 고된 훈련에 지친 장병들에게 사랑을 느끼게 한다.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성훈따주기공덕회

장병 아픔 씻어주는 자비의 약손

수효사 주부·거사 모임…매달 군부대 진료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던 훈련병들은 성훈따주기 공덕회(회장 정유진) 회원들이 훈련소 문을 들어서자 벌써부터 생기가 돈다. 훈련소는 훈련병들의 환호성으로 부대내가 갑자기 잔치 분위기다.

"우리 애기들 어디가 아프지?"

"허리도 아프고, 발목도 시큰거려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되는 것 같구요."

행군을 마치고 온 30사단 필승부대 신병 훈련소 훈련병들은 여기저기 아픈 곳을 말하며 응석섞인 괴로움을 토로한다. 그리고 훈련병들의 두 눈가엔 성훈따주기 공덕회(회장 정유진) 보살들을 보자마자 이내 눈물이 맺힌다. 고된 훈련에 부모님의 얼굴이 사무치도록 그리웠던 참이었다.

수효사에서 매주 화요일 무구스님께 따주기를 배우는 가정주부, 거사들이 배움을 회향하고 부처님 법을 실천한다는데 자연스럽게 뜻을 같이 해 결성한 것이 성훈 따주기 공덕회. 이들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를 돌며 염주·선풍기·책 등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아픈 장병들을 돌보는 치료사가 되어 주고 있다.

"훈련이 많이 고된가 보구나. 발목도 붓고, 방광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공덕회 회원들은 치료를 받으러 온 훈련병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고, 등을 토닥거려 주는 것에서부터 아픈 곳을 치료해 주는 것까지 분주한 손놀림으로 이마에 맺히는 땀방울을 닦을 겨를도 없다.

"혈관을 찌르는 삼릉침의 따끔함에 이 자리를 모면할까도 생각했다"며 말을 꺼내는 훈련병 김정민씨는 곧 "집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가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며 훌륭한 사나이가 되는 훈련이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그 자리를 뜰 수 없었다"며 눈가에 두줄기 눈물을 보인다.

훈련병들의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치유해 주고, 정을 나누 것도 잠깐, 다시 자신들의 가정거 직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성훈따주기 공덕회 회원들은 부대를 나서면서 "침을 맞았으니 적어도 6시간 후에 샤워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눈다.

도필선 기자

교차로

9월 미주 순회법회서 법문



서암스님(전 조계종 종정, 사진 위)과 법륜스님(월간 '정토' 발행인)은 9월11일부터 21일까지 LA관음사, 시카고 불티사, 뉴욕 라마다 호텔, 정명사 등 미주를 순회하는 법회에서 법문한다.

정신대할머니 삶터 나눔의 집 기공



태응스님(불교텔레비전 대표이사)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을 모시고 백두산과 자장율사의 도량인 현통사를 참배하고 돌아왔다.

위빠사나 수행법회 열어

거해스님은 지난 14~19일까지 6일간 서울 용산 국방부대 호국 원광사에서 위빠사나 수행법회를 개최했다.

'아미타경…' 출판 기념법회



금담스님(태고종 부원장)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총무원 설법전에서 '아미타경 강설'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중국불교계 시찰



혜철스님(한국불교포교사 협회장)은 중국불교협회 초청으로 포교사협회회원 15명과 함께 중국불교계를 둘러보고 지난 20일 귀국.

종립학교 우수교직원 표창



정락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해인사 홍제암에서 실시된 제35차 종립학교교직원 하계수련대회에서 우수수련교직원 3명을 표창하고 종립학교 교직원들을 격려.

고구려 유적지 학술조사



문명대교수(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장)는 지난 7일~19일까지 중국 집안·심양지역으로 고구려유적학술조사를 떠났다. 이번 조사에는 고려대 김정배부총장, 건국대 최무장교수, 경주대 정병모교수, 다물민족연구소 조남현씨가 동행했다.

복지관서 간병인 교육



증실스님(법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지난 21일 오는 28일까지 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간병인 교육을 실시한다.

소년소녀가장 글짓기 대회



이호식씨(전국어린이가장돕기모임 회장)는 지난 20일 서울 봉은사에서 제2회 소년소녀가장 글짓기 대회를 개최했다.

"한국 스님들과 나눈 인권문제 대화 감동"

경실련이 주최한 제1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민사회 포럼'에서 캄보디아 대표로 참석한 요스 후오트 스님은 이 포럼을 통해 한국의 불교·사회단체등과 시민운동발전에 협력하고 싶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20여년동안 캄보디아 민주화운동에 헌신해온 민권운동 지도자인 스님은



아태시민사회포럼참석
요스 후오트 스님

91년부터 매년 전세계 1백여 시민운동단체들이 참여하는 '평화를 위한 걷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포럼기간중 조계사를 방문, 한국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인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된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스님은 내전과 홍수·가뭄으로 인해 굶주리고 있는 캄보디아에 아태지역 시민단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

"한국은 이제 당당한 문화의 승리자"

총독부 건물 돔 철거 지켜본 골리다·사라띠사 스님

일제 잔재 청산의 역사적 현장이 된 조선총독부앞 광장에서 지난 15일 돔이 철거되는 장면을 지켜 본 스리랑카 겔러니대학의 골리다스님과 발리대학의 사라띠사 스님.

"일본이 한국 지배의 본부로 지은 건물을 해체시킴으로 이제 한국은 당당한 문화의 승리자가 된 것"이라고 평한 두 스님은 "마침 졸업여행길에서 이런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 보게돼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두 스님은 지난 12일 한국에 졸업여행 왔으며 16일 출국했다.

〈태〉



게시판

▲동국대 후기학위 수여식=동국대(총장 송석구)는 '9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오는 25일 오전10시30분 동국대 중강당에서 개최한다.(02)260-3063

▲방과후 아동공부방=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각)은 국교 1, 2학년 대상으로 방과후부터 5시까지 학습·놀이지도, 특별활동 등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동공부방을 마련한다. 수시접수. (02)421-6077

▲강좌 개설=무설정사 백련회는 9월3일부터 6개월 과정 법화경 강좌를 개설, 등록마감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강의는 매주 일요일 오후1시.
(02)983-0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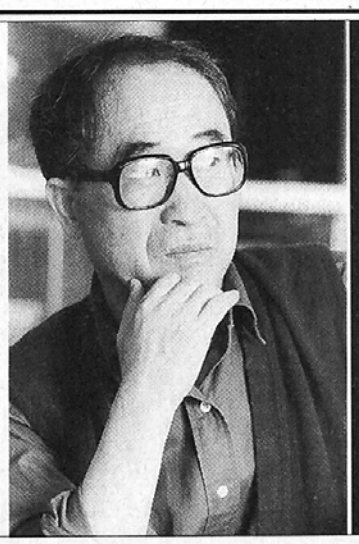
▲교리반 모집=부산불교대학은 오는 28일까지 제6기교리반을 모집하며 모집정원은 1백명. (051)818-8695

▲합창단원 모집=중앙불교합창단(단장 박범훈)은 새단원을 모집한다. 오디션은 오는 28일 오전11시.
(02)653-3940

▲교리경전대회=조계사 청년회(회장 이성상)는 오는 29일 교리경진대회 예선을 조계사 문화관 제1강의실에서 개최한다. (02)722-4994

▲수화·점자 기초반 교실=원심회(회장 석덕신)가 오는 9월18일 기초 수화·점자교실을 개강한다. (02)720-4528

창작과비평사
서울 마포구 용강동 50-1
TEL. 718-0541~4 FAX. 713-2403



소설 禪 1, 2
高銀



선의 역사, 선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소설화한
한국문학사상 최초의 禪小說!

6세기경 페르시아 혈통의 인도승 달마(達磨)가 중국으로 건너가 선종을 연 이래 6조(祖) 혜능에까지 이어지는 대선사들의 고행에 찬 수행과 득도, 오묘하고 그윽한 그 불립문자의 세계가 대시인 고은 선생의 활달한 필치로 그려집니다.
5호16국시대, 남북조시대 중국의 난세를 배경으로 지배적인 황실 불교에서 벗어나 대승적 입장에서 수행정진에 힘쓰는 수많은 고승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득도행과 비밀리에 행해지는 법통(法統) 승계, 수많은 불교 공안들이 흥미를 더하며 박진감 넘치게 펼쳐집니다.

고은 선생께서 교외별전(敎外別傳)의 경지를 불교사상 최초로 장엄한 대하소설로 형상화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고은 선생은 잘 알다시피 불교계의 풍운아요 한국의 대표적 자유인이다.
이제 여기 깨달음의 세계를 뼈를 깎아 붓으로 삼고 피를 뽑아 먹을 삼은 고행으로써 세상에 내놓았으니, 이 소설은 마음의 근본을 비추는 본래면목의 거울이 아닐 수 없다.
— 동국대 총장 宋 錫 球

각권 값 6,500원

"완전연소 될때 파란불꽃 생겨요"

산문밖의 수禪

썬웨이보일러 박민선 회장



"게을러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백년을 산다해도 힘써 꾸준히 노력한 단 하루만 못하다는 법구경의 가르침은 그대로가 저의 기업철학이자 가훈입니다."

경영자와 생산자 소비자의 연결고리로 이뤄지는 사업의 현장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한부모 형제 자매 아님이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한다는 (주)썬웨이보일러 박민선 회장(65).

65년 세운상가에서 신진상사라는 이름으로 업계에 뛰어들어 (주)신진기계로, 다시 (주)썬웨이보일러로 보일러업계의 선두를 달리기까지 30년의 세월을 생산과 경영의 일선에서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삶을 일궈 왔다.

설치·수리도 직접 '억척'

가정용 보일러에서 농·산업용보일러와 각종 기기에 이르기까지 박민선회장이 만들어낸 제품은 무려 20여종에 이른다.

인간의 수행끝에 얻어지는 깨달음과 같이 박회장에게 있어 오랜 연구 개발끝에 새로 태어나 완전연소의 푸르름을 발하는 보일러의 불꽃은 깨달음의 결정체처럼 느껴진다고.

박회장의 경영은 인재경영에서 한층 그 빛을 더한다. 노사화합과 안정,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 복지향상 등에 관심을 가지며 인자한 어머니품같은 경영을 통해 회사설립 이후 지금껏 단 한번의 노사분규도 없었던 사실이 그 모든 것을 대변한다. 노사화합의 모범을 보여 노동부장관상까지 수상하기도 했던 것은 바로 부처님 법을따라 모든 일을 순리대로 처리해가려는 박회장의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 덕분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모든 경영의 토대들을 바탕으로 87년에는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영하 30도에서도 운전이 가능한 보일러 및 압력용기 전량을 제공해 호평을 받기도 했고, Q마크 획득과 더불어 기술경쟁력 확보로 해외시장 개척에 전력해 89년 리비아 2차 대수로 공사에 전기온수기 및 보일러를, 90년에는 소련 시베리아 산림개발현장에 보일러 및 압력용기전량을 납품해 그 성능과 제품의 우수성을 확증받기도 했다.

30년간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열기기 산업발전을 위해 박민선회장과 썬웨이보일러 가족은 모두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란 긍지로 21세기 세계경쟁시대에 대비한 신제품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시장 개척 목표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책의 일환인 농촌산업향상을 위한 각종 농업용 보일러 및 그린하우스의 바닥난방시스템등을 개발, 농민들에게 희소식을 안겨주었던 것.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소가 공동개발한 95% 이상의 고효율 가스보일러의 관련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함으로써 국내보일러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놓은 것도 모두 공업중생의 가르침을 자신의 영역에서 수행해 내기위한 치열한 방편의 실현이었다.

"부단한 기술혁신을 통한 세계무대로의 도약! 이것이 썬웨이보일러 제일의 창업이념이자 제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박회장은 지난 93년부터 중국 하얼빈에 중국과 합작법인을 체결, 제품을 출하하며 세계 도약의 발판을 다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인생살이가 그렇듯 사업도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하는 법. 중국과의 합작에 있어서도 철저한 프로정신으로 모든 관계업무에서부터 관계법령까지를 검토하고 또 검토하며 최선의 선택을 통해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고자 애쓰고 있다. 그것은 바로 30년간 보일러와 함께 불꽃같은 삶을 살아온 박회장의 인생 그 자체인지도 모른다.

'주부마음은 주부가 알잖아요!'라는 광고멘트로 자사제품 광고에 출연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던 박민선회장.

"소비자의 사랑으로 이어온 지금까지의 30년처럼 앞으로도 소비자를 위한 우수 제품을 만들어 내는것, 그것으로 제 삶을 회향하렵니다."

이은자 기자

'보일러도 사람' 나를 바쳐 만들때 소비자 사랑
부처님 법따라 깨어있는 회사 운영…분규 전무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일본에서 수입해 온 부품들을 보니 별것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청계천에서 부품을 사다가 매일 저녁 집에서 조립을 하고 그 다음날엔 도매상에 내다팔곤 했지요."

버너, 시계줄, 석유난로 등의 부품 소매업에서 보일러 판매로 전환하고 부터 박회장은 보일러기사를 따라 보일러 설치와 고장수리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대형공장과 장어어장등 전국 곳곳에 가보지 않은 곳이 없다.

자신의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성실성으로 유정물을 키워내듯 세심함 속에서 사업도 생명력을 지녔다는 것을 박회장은 스스로 믿게 되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 뜨거운 여름내내 온몸으로 가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듯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것은 노력한 만큼, 발로 뛴 만큼,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멀리 미래지향적으로 연기의 법칙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박회장의 경영론이다.

그리고 모든 권모술수와 냉혹함이 아

무욕으로 최상락의 경지를…



삽화 · 이기선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㊴

안분(安分)

쾌락만 좇다보면 "마음 황폐"

법구경은 부처님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초기 경전이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어(詩語)로 구성되었다. 읽으면 바로 부처님의 크나 큰 자부심을 감응하게 된다.

아름다운 꽃을 찾아 헤매이듯

마음이 감각적 쾌락에 빠져 있는 자를

죽음은 순식간에 앗아간다.

마치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이 게송은 〈법구경〉 제 4장 '꽃의 장' 일구이다. 우리들 인간은 외형적 사물이나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고급한 물건을 구하려고 하고 환경이나 주거가 우람한 곳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다. 조그만 거처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 남보다 더 나은 곳을 선택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정념의 노예가 되어 행복을 획득하려고 한다. 이러한 욕망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것만 있어야 하고 나만이 소유하여야 한다는 아집이나 독선의 소치가 아니겠는가.

'나' 세우는 독선 버려야

사람은 조금은 덜 가지고 적당한 것으로 살아야 한다. 옛 성현의 말씀에 "군자는 음식을 챙겨 먹되 포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집을 지어 살아도 지나친 저택을 희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명줄이 이어질 정도의 음식을 먹으면 되지 지나치게 포식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은 흉물스러운 것이다. 조용하고 담담히 살아야 한다. 무욕이 최상락을 가져다 주는 소식도 받아야 한다. 무욕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빈 마음으로 부러움없이 매일매일 삶을 꾸며 나가다보면 삶의 참다운 의미를 깨우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을 찾아 헤매고 있다. 꽃 향기가 그윽하게 풍겨 오더라도 꽃이 열매가 아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힌다. 꽃만 바라고 사는 인생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쾌락은 일시적이다. 영원한 삶은 순간적인 향기로만 이룩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인동초처럼 겨울을 이기는 인내심이 있어야 하고 뿌리를 내리는 생명력이 뻗어가야 한다. 이것은 쾌락적인 행복에 잠겨 있는 동안 죽음이란 세계가 닥쳐오고 있는 것이다. 죽음은 쾌락 이외의 것에도 다가오는 것이지만, 쾌락 그것이 제일이라고 아집하고 있는 인생에게 비극을 주는 것이다. 잠들어 있는 마을에 갑자기 닥친 홍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순간적으로 불어나는 강물은 온통 마을을 휩쓸고 만다. 이는 쾌락의 만족에 들떠 있는 시간에 닥쳐오는 허무·무상과도 같은 것이다.

사람은 시간시간에 정직한 일을 하여야 한다. 허송한 일을 하면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된다. 정직하고 알뜰한 일을 골라서 열심히 하면, 일의 성취도가 지금 바로 이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꼭 이루어질 것이다. 불교의 사상은 연기사상이고 또한 응보의 사상이다. 연기사상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법계속에서 서로 깊은 관계를 맺게 한다. 이것과 저것, 저것과 다른 것, 다른 것과 이것이 모두 연결고리가 되어있고 순환고리로 상관되는 것이다. 이 상관관계를 맺어가면서 원인성과 결과대로 발전 연속하는 것이다.

정직·성실한 삶의 가치

결과를 아름답게 하려면 원인을 잘 찾아 나서야 한다. 원인이 맑고 알뜰한가, 정직하고 성실함이 있는가를 살펴서 골라야만 한다. 아무것이나 마구 손대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부질없이 자행하면 결과적으로는 나쁜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은 맑아야 한다. 눈이 맑은 사람은 마음이 맑은 사람이고, 마음이 맑은 사람은 함부로 행위하지 않는다.

언제나 꽃구경만 하면 행복할지 모르나 쾌락의 종말을 만나게 될 것이다. 노동을 열심히 하면 임금획득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불교는 어디서나 어느 때에 삶의 관계를 맺게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관계의 의미를 벗어나 물질이나 욕망의 기쁨을 희구한다면 한밤중의 홍수를 만나는 비극자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대물적 현장에서 벗어나는 마음만 가지면 지금 어디서 닥쳐오는 홍수도 대피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홍수, 정신적 홍수 이 모든 것은 파황의 길이다. 우리들 앞에 파괴적이고 파황이 닥쳐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이에 휩쓸려 사는 것은 안분(安分)을 모르기 때문이다. 지분(知分)은 안분(安分)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경 축

국씨전영양소 후원으로
세계 여자 역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다

★일시 : 1995년 11월 ★장소 : 중국(광주)

세계인을 위한
다 이 어 트

5일 복용이면 3~5kg이상의 감량!

- 건강관리, 체력보강, 체력유지, 비만해소 100% 효과 보장
- 비만인에게 틀림없이 따라다닌 고혈압·당뇨·변비에도 탁월한 효과
- 비만으로 고민하신 佛子님 특별 상담 환영



※약국, 피부관리에서 취급가능함

국씨전영양소란?

중국의 저명하신 다이어트 전문가인 **북경대 국민원 교수**가 주관하고 의학과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이 협조한 가운데 비만자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특수 한방비법으로 제조한 세계 최초의 완전 천연, 영양 농축다이어트 식품. **중국 여자 역도선수들이 체중조절 및 영양식품으로 복용**한 후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았으며 **복용 5일이면 최저 3kg에서 5kg 이상** 체중이 감량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되면서 체질개선, 혈액순환은 물론 **노폐물까지 제거**된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능과 성장발육**을 촉진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한번 감량되면 다시 비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오히려 허약자에게는 영양 많은 식품으로서 건강관리에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높다. 중국, 미국과 합자하여 만든 제품.



개발자 국민원 교수(박사)약력

1973년~1978년 북경대학에서 식물학 연구
1978년 북경 영양연구소 입소
1978년 中南海(중국 고위 간부 주거지/모택동 등소명 등 역대 중국고위관리) 食品營養 고문 임명. 현 재임중
1985년 감비식품 연구 착수
1992년 8년만에 국씨전영양소 개발완료 현 북경대 교수

세계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제품
한국에도 본격 시판…

국씨 전 영양소(한국총판)
전화:(02) 929-0211~4

이제 다이어트는
국씨전영양소가 책임지겠습니다.

"자비사상은 지구촌문화 구심체"

한민족철학자대회 '인간다운 삶과 철학의 역할' 주제


◇박이문교수


◇박성배교수

박이문교수 미래 가치는 과학과 종교 2분법 지양

김영호교수 함석헌, 보살정신 구현한 숨은 불교도

'한민족철학자대회 1995'가 지난 17일~19일까지 미·중·러·일 등 해외동포철학자들과 국내 철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인간다운 삶과 철학의 역할' 주제로 한민족은 물론 다른 민족과 문화에 대해서도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인간다운 삶의 전형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총 60여편의 논문이 발표된 가운데 박성배 박이문 정화열 한자경 김영호교수 등이 불교관련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지구촌 시대의 민족문화'란 대주제하에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주제로 발표한 뉴욕주립대 박성배교수는 "근대화나 세계화를 그대로 서양화로 생각하는 병폐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민족문화와 서양문화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즉 '별상(別相: 개별성) 속에서 총상(總相: 총체성)을 본다'는 화엄학적인 안목에서 보면 민족문화가 없는 세계문화란 존재하지 않으며 민족문화 속엔 이미 세계문화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설명.

개체의 중요성을 발견해야 민족문화를 살릴 수 있으며, 민족문화가 살아야 세계문화도 산다는 박교수는 "옳든 그르든 누구나 포용하는 자비가 지구촌 문화의 체(體)가 되고 그러한 체의 용(用)으로서 그릇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질서-이성-합리-보편 등등이 각기 맡은 직무를 다하는 것이 지구촌 문화의 본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자연, 과학, 미래'란 주제아래 '자연과 인간: 포스트모던의 지향'을 발표한 미 모라비언大 정화열교수는 다양한 탈근대적 탈식민지적 이론들의 성과들을 총망라하면서 禪불교나 도교 유교 등 동아시아 사상을 통한 새로운 종합을 시도했다.

또한 '인간다운 삶과 미래의 가치'란 대주제하에 '종교와 미래의 삶'을 발표한 포항공대 박이문교수는 "과학기술의 가속적인 발전과 세계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열정을 분석, '과학과 종교' '근대와 탈근대'라는 2분법은 지양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분과별로 진행된 자유발표에서 계명대 한자경교수는 '폿설 현상학의 선험적 주관성과 불교유식철학의 아뢰야식의 비교'를 통해 객관주의적 자연과학 풍토에서 성장한 현상학을 엄밀한 과학과 대면한 적이 없었던 유식불교와의 비교를 시도해 관심을 끌었다.

한교수는 현상학에서의 구성과 유식에서의 식전변(識轉變)이 둘 다 세계의 객관성을 자아의 주관성에 의해 설명하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갖지만, 유식은 아뢰야식이 전변하는 식(識)인 동시에 그 전변된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전변과정 자체를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성된 세계로부터의 선험적 자아의 자유를 말하는 현상학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함석헌의 종교사상을 기독교 유교 불교 인도종교로 분석한 인하대 김영호교수는 '함석헌과 인도종교'에서 "함석헌은 불교신앙인은 아닐지라도 타고난 익명의 불교도요, 보살이 아니었다면 적어도 보살정신의 구현에 노력한 자였다"고 규정했다.

이밖의 불교관련 논문으로는 △인도고행주의에서 본 도덕정신(김인종) △통일을 향한 和의 철학(유병덕) 등이 발표됐다.

김재경 기자

'생활 곧 참선' 참뜻 알고 싶어요

문 스님께서는 생활이 곧 참선이라고 하시는데 과연 생활 중의 모든 언행을 곧 참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얼른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참 뜻을 알고 싶습니다.

〈지정구·경기 안양시 관양동〉

답 자동차를 타고 오며가며 사고난 것을 여러번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으례 운전수끼리 잘잘못을 따지느라 시비를 벌입니다. 들이 받쳐도 운전수 탓 박아도 운전수 탓이지 자동차보고 뭐라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언행 일체도 몸뚱이 탓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운전수, 그 운전수가 모든 걸 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의 운전수가 알아서 하게되니까 일체를 그 운전수에다 맡기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행·주·좌·와를 도대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주재자일까요? 쉽게 '내가 한다'고 하겠지만 그렇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내가 나를 만들었을까요?

죽고 사는 것도 그 내가 할까요? 또 이 세상 일체 만물이 나고 죽는 것은 어떻구요?

물론 일상생활 속의 일거수 일투족은 다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나라는 것은 육신으로서의 나, 의식으로서의 나, 또는 인격으로서의 나가 아닌 참 나, 나의 근본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운전수라고 해도 좋습니다. 처사님이 막연히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가 한다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쯤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그 나가 진정한 나인가를 말입니다.

이 세상이 형성된 것에서부터 죽는 것, 사는 것, 일체 만법이 돌아가는 것 그것은 처사님이 가볍게 생각하는 그 나의 손아귀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하는 것을 싹 부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본래 공이지만 그렇더라도 일거일동 언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잘 모르겠거든 일체를 들이고 내는 참 나를 믿고, 한마음이다 생각하고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운전수를 턱 믿고 돌아갈 때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 됩니다. 행주좌와를 그냥 합쳐서 생활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점을 믿지 않을 때, 생활이 참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라고 생각해온 그 나가 아닌 진짜 나가 일체를 들이고 낸다는 굳은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행주좌와 하나하나에서 나라는 관념이 떨어질 수 있게되니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 됩니다.

내가 일체를 주인공에 맡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 되는 믿음 그것을 일러주기 위함입니다.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고 너만이 이끌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곧 강한 믿음의 길이요 안으로 들이대는 길이요 참나에로 귀명하는 길이요 내가 죽는 길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죽는 길이니 행주좌와가 그대로 참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리 틀고 앉지 않아도 말입니다.

아내가 원인모를 병에 걸려…

문 제 아내가 두서너달 전부터 어지럼증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고 검사도 해보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원인을 모르겠다는 대답뿐입니다. 치병의 길은 없을까요?

〈전상필·서울 서초구 잠원동〉

답 처사님이 모르는 걸 내가 어찌 압니까? 다만 이것만은 일러드릴 수 있습니다.

앞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일체는 다 내 속에서 나고 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병고액난이 어떤 것은 유전성으로 오고 어떤 것은 업보성으로, 또 어떤 것은 영계성 등으로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서 온 것이니 거기서 해결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병원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성부처를 외면하고 타력에 의지해 무얼 해달라고 빌지말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은 압니다만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도리는 오히려 진실한 믿음의 강조에 있습니다. 병원마다 원인을 모른다고 하니 아는 데다 맡겨야 하겠지요.

아는 곳은 자기의 참주인입니다. 거기서는 일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형성시켰고 내앞에 병고액난이 있게한 그 주인공, 장본인에게 알아서 하라, 네 육신 네가 끌고 다니려면 고쳐서 써라 하고 굳게 믿고 맡겨보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놓고 지켜보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의사의 손을 빌리더라도 스스로 강한 믿음을 가질 때와 전전긍긍 할 때와는 분명 다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형성시킨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 그리고 지켜봄 그것이 내가 일러드릴 수 있는 처방입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 들어 보셨다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 불자로서 부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화제의 논문

'21세기 바른역할' 세미나 부산불교신도회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지난 16일 오후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21세기를 지향하는 바른 자리 찾기'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 세미나에는 김지견(정신문화연구원) 신섭중(부산대) 김좌관(지산전문대)교수가 불교의 당면문제와 인간성, 환경에 대해 각각 발표했으며, 토론에는 이춘기(부산대) 곽만연(동아대)교수와 구기자씨(부산환경연합 사무국장)가 참석했다.

유네스코에 '유산' 신청 '경주보존' 17개 학회

한국미술사학회(회장 강경숙)와 고고학회(회장 김병모)를 대표로 한 17개 학회 대표들은 지난 10일 오전 한양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유네스코에 경주시의 인류중요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 17개 학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속철도의 경주통과 철회, 경마장의 시외곽 이전 건설을 정부에 촉구했다.

◇기사넘쳐 '한국 사찰의 주련' 쉽니다.

□ 김훈씨 '원효불학사상연구'

북경대 첫 한국불교학 박사논문


◇김훈씨

"화쟁, 한국불교 근본이념 갈등극복·평화의 길 제시"

중국 북경대에서 원효사상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을 다룬 박사학위논문이 최초로 나왔다.

최근 북경대 중국철학계 박사학위논문으로 확정된 중국 조선족 출신 김훈씨의 '원효佛學사상연구'는 동아시아 불교와 사회발전의 전반적인 흐름속에서 원효의 불교사상을 다각적으로 고찰하면서 한국불교를 중국불교의 아류나 연장쯤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을 지적하고 있다.

김씨는 "화쟁(和諍)을 특징으로 하는 원효사상은 한국불교의 근본이념이며 사유방법일 뿐만 아니라 중국·일본불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화쟁사상은 갈등과 위기에 처한 현대인들에게 대립을 초월,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원효는 〈대승기신론〉을 위경(僞經)으로 인정하면서 불교사상의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중관, 유식, 유심삼계(唯心三界)사상을 대승불교의 중도공(中道空)의 근본입장에서 회통시키기에 갖은 노력을 다했다"며 "그 과정에서 형성 발전된 화쟁사상은 원효의 교학연구와 종교적 실천에 견실한 철학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밝혔다.

화쟁사상의 연원과 기본특징을 개괄한 김씨는 원효의 화쟁을 '대승불교철학에 대한 지대한 공헌'이라고 규정했다. 무쟁(無諍: 다투지 않음)을 목적으로 하는 화쟁사상은 이상과 현실, 목적과 수단이 고도로 통일된 세계관이며 방법론이란 설명이다.

심사를 맡았던 중국인민대학의 方立天교수는 "원효를 통해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이라는 대승불교사상의 전파·발전의 황금통로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격찬했으며, 石峻교수도 "인도불교와의 관계만을 중시해 온 중국학계에 새로운 연구시각과 분야를 제시해 일본·중국불교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정확한 연구방향을 확인해 주었다"고 말했다. ◦

□ 이장열씨 '정조의 불교관…'

용주사 창건·호불관 배경 조명


◇이장열씨

"실학 대두·서학과 비교 불교 수용 증가로 親佛"

정조의 불교관이 바뀌게 된 것은 18세기 후반이란 시대적 배경하에 당시 진보적인 유학자들이 성리학 비판과 실학적인 학풍을 조성한 사실과 이 무렵에 전래된 서학(천주교)과의 비교를 통해 불교의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문화재관리국 기념물과장 이장열씨가 고려대 대학원 역사교육과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정조의 불교관 변화와 불교정책에 관한 연구'란 논문에서 제기된 것.

이씨는 "대유학자이기도 한 정조가 용주사를 창건하게 된 배경과 호국고승의 존숭(尊崇)사업과 중요사찰 중수에 힘을 쓰는등 호불관(好佛觀)으로 바뀐 배경이 궁금했다"며 논문을 쓴 동기를 밝혔다.

이씨는 논문에서 "정조의 불교관이 바뀌게 된 것은 18세기 후반이라는 시대적 배경에 영향을 받은 때문"이라며 "당시 진보적인 유학자들이 성리학 비판과 실학적인 학풍을 조성한 사실과 이 무렵에 전래된 서학(천주교)과의 비교를 통해 불교의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이 주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정조는 세자때 용동궁(龍洞宮)의 미황사(美篁寺)를 철거했고 즉위(1777년)초에는 원당의 혁파를 지시했으며, 재위 2년에는 승려의 도성출입을 금지했다. 또 4년에 청국 황제가 하사한 황금불상을 더러운 물건시하여 궁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조치했다. 그러나 재위 9년에 남북한산성의 의승번전(義僧番錢; 番錢의 징수로 승려들에게 잡역을 면해 주는 제도)을 반감하는 조치를 내린 이후부터는 불교에 대한 관심이 각별해졌고, 재위 12년이후부터 휴정등 호국고승들의 존숭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정도였다.

조선 중·후기 불교사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가운데 나온 이 논문은 역사학계로부터 독창적인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박사급 이상이 실릴 수 있는 학회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황금빛 도자기 불상 지금 선택하십시오


(7치 : 23.1cm) (5치 : 17.5cm) (1자 : 33cm)

일천불 조성 삼천불 조성 일만불 조성

(주)국보도자기, 국보기획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 B/D 301호
▒ 공장 :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장심리
▒ 전화 : (02)723~4260/1, FAX : (02)723~4260

대 표 권 영 천 합 장

장인의 혼과 얼을 담았습니다

-직접 손으로 흙을 빚어 1380℃에서 구워낸 도자기불상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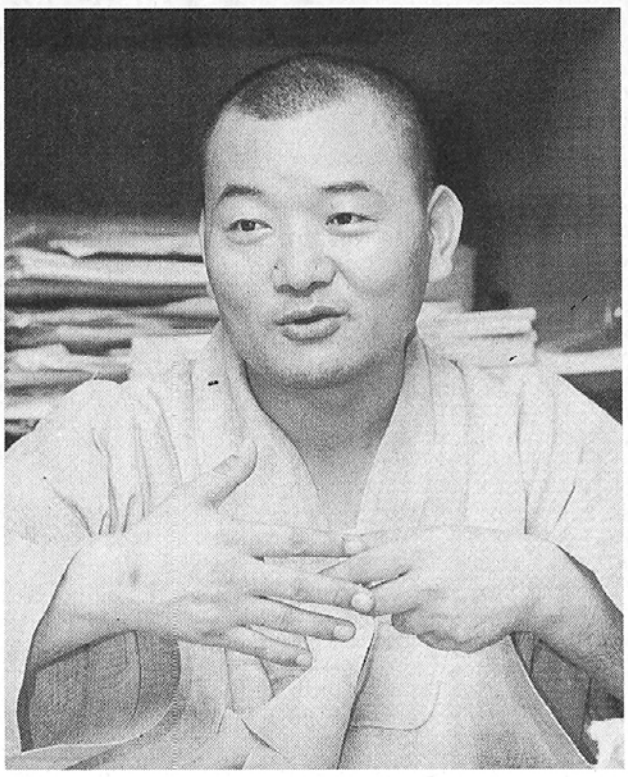
새로 개발한 사람의 손으로 직접 빚어 도자기로 만든 불상입니다.
도자기로 만든 불상을 조성해 볼 계획이 없으신지요.

"대중과 호흡하는 불사 계속…"

도심포교 대명사 '구룡사 불사 10년' 정 우스님

조계종은 3대 역점사업으로 포교, 역경, 인재양성을 들고 있다. 이 가운데 포교는 부처님의 전도선언에 따라 꾸준하고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불교는 있어야 할 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골고루 자리해 있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목소리이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삶의 의욕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는 포교사.

10년전 강남의 황폐한 땅위에 천막법당을 세워 도심포교의 대명사로 알려진 구룡사를 일군 정우스님을 만나 포교에 대한 원력과 포교방향을 들었다.



수요 인터뷰

—지난 15일 종각 타종식을 끝으로 구룡사 불사 10년을 마감하고 이를 기리기 위해 만불명호사경정진법회를 입재하셨는데 만불보전 불사의 원만회향을 축하드립니다.

85년 천막법당 법회시작

▲구룡사불사 회향은 아직 멀었습니다. 금년은 단지 불사시작 10년째일 뿐이고 불사시작에 앞선 준비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만불보전을 건립한다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감싸주었지만 이제 냉혹한 포교의 현실세계에 뛰어든 것입니다.

불사는 부처님 일입니다. 중생과 더불어 중생을 위하는 것입니다. 구룡사도 중생과 더불어 회향할 때 진정한 회향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법당불사회향으로 축하받기는 아직 이릅니다.

—구룡사는 불보종찰 통도사 서울포교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교당이지만 여느 본사에 뒤쳐지지 않는 사세를 갖추고 있는데 그 시작은 어떠했는지요.

▲본래 구룡사는 78년경 뜻있는 통도사스님들이 모여 작품을 전시해 그 수익금으로 서울 가회동에 포교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러나 포교원이 자리한 곳이 사대문 안의 한옥보존지역이자 청와대부근으로 신행활동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85년 현 종정 월하스님이 구룡사를 맡아보라 하여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미련없이 가회동 법당을 처분하고 그해 10월, 이곳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듬해 봄에 남대문에서 천막과 비닐장판, 스치로폴을 구입해 20평짜리 천막법당을 세워 법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7년 만불보전을 기공했지요. 초창기 신도 10여명으로 시작해 오늘의 1만7천세대를 이루었으니 비약의 발전을 한 셈이지요.

—구룡사는 도심속 2천2백여평의 면적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매머드 현대식 양식의 사찰이자 포교당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분당 연화사, 평촌 보림사 등 신도시에 포교당 10개와 11개의 어린이유치원을 갖추고 있는데 이처럼 왕성한 포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요.

▲포교는 이 시대 대중과 불자들의 간절한 목마름입니다. 대중들과 함께 쉬지 않고 기도, 정진을 하다보면 이들의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포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구룡사는 21일 정진법회, 교양강좌 등 한달이면 40여 차례가 넘는 법회가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월40회 법회 포교당 10곳 건립…소극장·노래방 운영

"삼보정재 공유화는 과제 … 인류살리기 운동 나서야"

91년부터는 고려시대 이후 6백년 동안 끊겼던 백고좌법회를 재현했습니다. 몇날이고 쉬지 않고 1080배를 하다보면 몸이 따르지 않는 괴로움도 있지만 회향 때마다 신심있는 불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희열을 간직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구룡사를 일군 힘입니다.

—10년이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닌데 줄곧 구룡사주지를 맡아 대중을 이끌다보면 어려움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려웠던 일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게 된 것이 기쁠이요, 대중에게서 내가 선택된 것은 커다란 복입니다. 불안한 생각이나 안된다는 생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언젠가 노스님 한분이 저에게 "잘 살아주어서 고맙네" 하시더군요. 스님은 그동안 살아온 날들이 어려움의 연속이어서 대중과 함께 열심히 살고 있는 구룡사가 고맙고 좋았던 것입니다.

정진하는 이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내 것을 챙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이의 기쁨을 함께 나누던 노스님의 눈물을 기억하곤 합니다.

—구룡사에는 포교에 원력을 둔 스님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 등 스님에게 배움을 청하는 이들이 많은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요.

만불명호 사경법회 입재

▲포교일선에 뛰어든 이는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심이라는 생명력과 원력이라는 정직, 정진이라는 진지함 속에 살다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신 사홍서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지를 따르라 △삼보정재를 공유화하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기를 권합니다. 이는 곧 제 자신에게 하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스님의 포교관에 많은 공감이 갑니다. 특히 삼보정재의 공유화는 종교계뿐 아니라 현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로 실천여부에 따라 성공이 판가름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스님은 개인적으로 수차례 사진전시회를 갖는가 하면 노래방법회를 열고 극단을 운영하는 등 예술분야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이 씨앗이면 종교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이 법문하는 것도 일종의 모노드라마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손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신 것도 진지한 마음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예전에는 스님들이 극단을 결성해 일본, 만주 등지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저 역시 '님의 침묵'이란 연극을 통해 부처님을 더 가까이 접하게 됐으니까요. 예술은 훌륭한 포교의 방편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종교는 어머니 가슴처럼 편안하고 아늑해야 합니다. 지역단위의 포교당을 결속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물론 대중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포교당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포교의 국제화, 정보화에도 앞장 설 예정입니다.

구룡사대중은 인류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모든 정보를 전산화하여 포교의 신기원을 이룩해 낼 것입니다.

이준엽 기자

나의 수행일기

이태랑 〈청주 삼보기계 대표〉



'자신을 낮추자' 생활지침

'내가 곧 불교로 비친다' 생각하며 늘 조심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지심귀명례 시방삼세 제망찰해 상주일체 불타야중….

법복을 차려입은 회원들이 집전의 목탁소리에 맞춰 모든 번뇌를 끊고 일심으로 참회하며 정진한다. 계정혜 삼학을 실천하려는 도반들의 건강하고 바른 신심이 우러나오는 수요일 저녁7시 청주불교금강회의 법회시간이다.

은은히 퍼지는 향내를 맡으며 하루의 일과를 되돌아보며 부처님 법에 따라 살겠다는 서원을 다시금 되새긴다. 내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다. 법당에 앉아 입정에 들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환희심이 일고 지극한 편안함을 느낀다.

각자의 직업이 다르고 생활의 모습도 다르겠지만 다겁생의 인연을 다시 맺는 모임인 청주불교금강회는 30대에서 50대까지 4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신앙생활과 함께 진실로 서로 형제간의 우의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내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창립 아홉돌이 넘도록 수요일저녁 법회시간에 예불소리가 끊긴 적이 없다. 비록 임대한 작은 법당이지만 불교신행단체들의 법회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청주불교계의 한 모범으로 알려져 있다. 은근히 자랑스럽다.

금강회관에서 신행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는 지도하시는 스님이 안계시지만 회원 스스로 집전 정근 기도 참선 등을 자치적으로 행한다. 우리불교가 앞으로 나아갈 목표인 대중불교를 먼저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의 학식과 덕높으신 스님과 재가불자의 법사를 모시고 법문을 청하여 듣기에 어느 한분의 가르침에 치우치지 않고 근기에 맞는 수행법으로 정진하고 있다. 나를 포함한 우리 회원들은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었다.

지금은 어느 불교인을 만나도 청주불교금강회원이라고 소개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는 선망의 시선을 받는 모범적인 단체로 성장했다.

청주지역에는 십여개의 불교신행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청주불교금강회는 남자들의 신행단체로 불교가 다른 종교의 활동을 능가하게 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예전에 남자가 절이나 불교회관에 다닌다고 선뜻 대답을 기피했던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다고 떳떳이 말하게 되고 오히려 타종교인들이 대답을 피하는 현상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물론 우리 것을 되찾자는 민족정통성 회복운동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들의 신행생활이 실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자가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위해 주는 너무나도 간단한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강법회를 통해 배운 나의 생활지침이기도 하다.

우리 회원들의 대부분이 사회나 직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지위 때문에 동료나 부하직원들도 자기들이 알고 있던 불교의 그릇된 시각을 버리고 불타가 설하신 참된 진리를 조금이나마 접하게 된다. 불교는 말이 아니라 생활속에서 우러나는 하심과 자비의 향훈으로 퍼져나가는 메아리라는 것이 새삼 자랑스럽다.

또 거사들의 신앙생활은 포교활동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불교가 나를 키웠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곧 불교로 비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몸과 마음가짐을 흐트릴 수 없다. 불자 한사람 한사람이 불교를 밝히는 등불인 것이다.

이런 마음 때문인지 매주 수요일저녁 법회시간이 기다려지고 법회날이 되면 어딘지 모르게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게 된다. 새삼 만나는 사람마다 정겹다.

내 일생동안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기로 생각하고 대원불교대학을 수료하고 법사호를 수여받았으며, 청주불교금강회원들에게도 공부할 것을 권유해 3명의 법사가 있다. 현재는 6명이 대원불교대학에 입학해 열심히 부처님의 법을 배우며 수행 정진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부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배울수록 참다운 진리를 볼 수 있는 수승한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금강같이 굳은 믿음으로 대중불교와 생활불교의 등불이 될 것을 서원한다.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5년 8월 31일까지

대원불교대학에서는 정법의 기치아래
대중불교를 선도할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 주 5일 수업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선학입문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 및 종교학	완전강독 Ⅰ

■ 특 전 : 졸업후: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25〉

徐學老 勸童行 勸學文 (서학로 권동행 권학문) ②

出家人 胸中 貫古今 筆下 起雲烟
출가인 흉중 관고금 필하 기운연
方可了身了性 以至於了命
방가료신료성 이지어료명
若自懶惰 託言所稟 無受道之資
약자나타 탁언소품 무수도지자
是 自壞了一生也
시 자괴료일생야

출가한 이 마음 깊이 고금을 관통하고 붓 한번 들어 구름안개를 일으켜야 바야흐로 이 육신과 성품을 알아 마치고 그로써 천명을 터득했다 하겠거니와
만약 저가 게을러서 성품이 도를 받을 자질이 못된다고 핑계를 댄다면
이는 스스로 일생을 망치는 일이다.

且如猿猴 獸類也 尙可敎以藝解
차여원후 수류야 상가교이예해
鴝鵒禽鳥也 尙可敎以歌唱
구욕 금조야 상가교이가창
人爲萬物之靈 如不學 視禽獸之不若也
인위만물지령 여불학 시금수지불약야

저 원숭이는 짐승 무리이나 오히려 기예를 가르칠 수 있고
때까치는 날짐승이나 노래를 가르칠 수 있으니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어 만일 배우지 않으면 금수를 보는 것만 같지 못하리라.

爲人師者 自當尙嚴 師嚴以後道遵
위인사자 자당상엄 사엄이후도준
與其初年 失於寬 而招異時之怨
여기초년 실어관 이초이시지원
不若過於嚴 招異時之感
불약과어엄 초이시지감

스승되는 이는 오히려 엄한 것이 제격이니 스승이 엄해야 도가 존중되는 것이라
처음에 관대하여 엄하기를 잃어 훗날에 원망을 자초하는니
(처음에)아주 엄하게 해 나중에 감사히 여김을 부르는 것(감사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만 같지 못하리라

人家子弟 捨父事師 師 却不嚴而縱其懶
인가자제 사부사사 사 각불엄이종기나
及其時過失學也 談吐又訥 擧止又鈍
급기시과실학야 담토우눌 선백우둔
發遣又疎 寫染又拙 覺時事事無能
발견우소 사염우졸 각시사사무능
方始自悔而歸咎於其師 何謂之感
방시자회이귀구어기사 하위지감
初年 脫白從師 師長 訓導 極其嚴緊
초년 탈백종사 사장 훈도 극기엄긴
於公事畢然後 敢治私事 禁妄出
어공사필연후 감치사사 금망출

속가의 자제가 부모를 버리고 스승을 섬기어든 스승이 엄하지 않아 게으름을 피우도록 내버려두다가
급기야는 때를 놓쳐 배우지 못하여 말 한마디 제대로 이르지 못하고 아뢰는 것도 또한 둔하게 되며
회답의 서찰이 성글고 글 한줄 제대로 베껴 쓰지 못하니 (이와같이)일처리에 무능함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스스로 뉘우치며 (모든) 허물을 스승의 탓으로 돌리게 되니 어찌 (스승의 훈도에) 감사함을 운위하겠는가.
처음에 흰 옷(속가의 옷)벗고 스승을 따르거든 스승이 훈계로 이끌되 지극히 엄격하고 긴박케 하여
공사(공부 길)를 마친 연후에나 감히 사적인 일을 하게하되 망녕되이 나돎을 금할지어다.

讀書要背 寫字要楷
독서요배 사자요해
義理要通 道念 要正
의리요통 도념 요정
日漸月磨
일점월마
復還固有之天 得造洞然之妙
부환고유지천 득조통연지묘
由是 性海淸澄 心珠瑩澈
유시 성해청징 심주형철
學山者 着脚蓬萊 學佛者 安身樂國
학선자 착각봉래 학불자 안신락국
到恁麼時 却感師長 嚴訓之功也
도임마시 각감사장 엄훈지공야

글을 읽음에 반드시 암송하여야 하고 (암송하여 숨은 뜻을 밝히고) 글을 쓸 때는 본보기 (법도)에 맞도록 해야 한다.(참뜻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의리를 반드시 통해야 하고 도를 생각함에 꼭 바르게 하여
날로 닦고 달로 연마해가면 본성의 자리(고유의 천성)로 돌아가고 시러금탁 트여 신통묘용한 경지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성품의 바다는 맑고 깨끗해지며 마음의 구슬은 투명하게 빛나매
.선도를 배우는 이는 발을 봉래산에 붙이고(선경에 우뚝서고:봉래산은 전설의 산) 불법을 배우는 이는 몸을 안락국(극락)에 편히 하리니
이러한 때에 이르면 각설하고(문득) 스승이 엄격히 훈도한 그 공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龍 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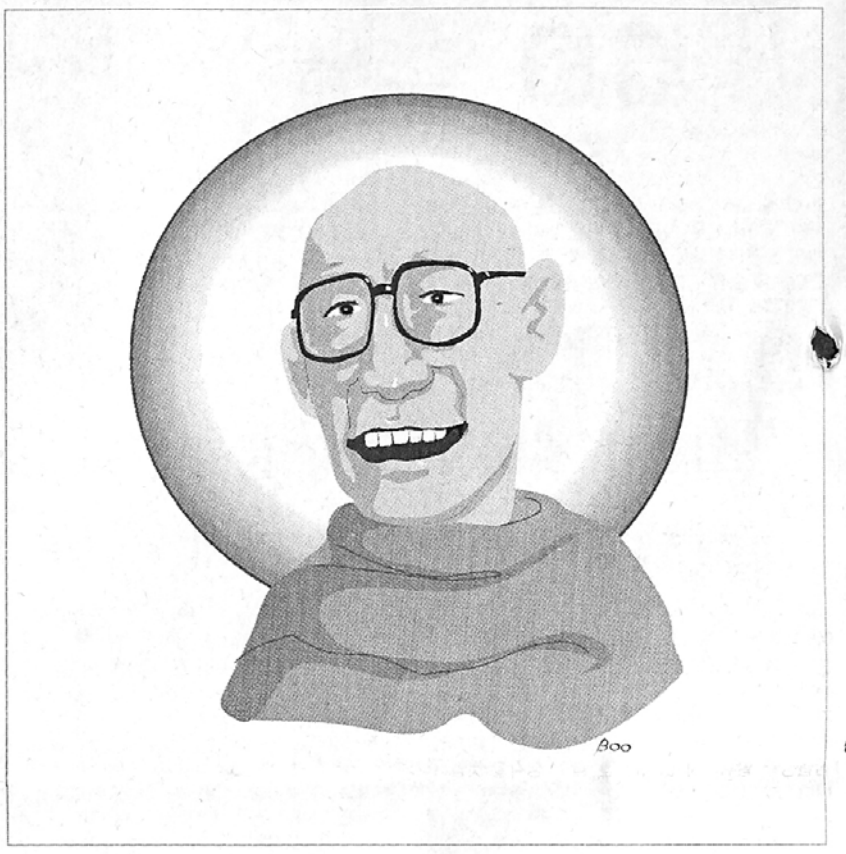
"글을 읽음에 암송하여 숨은 뜻 밝히고 글을 쓸때는 법도에 맞도록 해야 한다"

여름 특집 **해외 고승 지상법석**

"참고 수용하는 일이

아잔 수메도 스님 〈영국〉

스님은 미국태생으로 태국의 수행자 아찬 차 스님밑에서 공부했다. 현재는 영국의 여러 불교사원 조실을 맡고 있으며 영국불자협회(The Buddhist Society of Great Britain)의 명예회장을 겸하고 있다.



참을성이란 덕목은 불교인들 세계에선 대단히 찬양되는 것이지만 현대와 같은 물질주의 사회에서는 원하는 것을 제깍제깍 구해 오는 능력을 더 중시하지 참을성 같은 것은 별로 대단찮게 치부해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온갖 인스턴트 제품이 범람하는 바람에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거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그 즉시로 그것을 손에 넣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참을성이 매우 박약해져서 혹시라도 구하는 것을 곧바로 못 구하게되면 단박 심란해져서 "이놈의 세상 개판이군"하고 투덜대거나 성을 내게끔 되어버렸습니다.
하도 이런 불평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불평거리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구나 싶을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가령 파업 때문에, 또는 사람들이 신속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이지

"육신의 불편이나 고통을 벗어나려고 버둥대고 속상해 하고만 있어서야 언제 정신적 발전이 있겠습니까"

못해서 우리의 성에 차지 않을 때 어쩌겠습니까, 기다리며 참아내는 길 밖에 더 있겠습니까.
좌선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몸속에 고통스런 느낌이 일어나거든, 자신이 얼마나 참을성 없게 그 고통을 면해 보려 버둥대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십시요. 열이 나거나 병이 들었을 때도 그 육신의 불편이나 고통을 얼마나 속상해 하고, 조급하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 쓰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십시요.
이렇듯 버둥대고 속상해 하고만 있어서야 언제 정신적 발전을 기약해 볼 틈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때야말로 참을성이라는 덕목을 가장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행 길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빗나가게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를테면 "인스턴트 선(禪)을 공부할까 보다. 이렇게 기약 없이 상좌부(上座部) 불교에 매달려 봐야 괴롭기만 할 뿐이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는 정말이지 지금 당장 빨리 깨쳐 버리고 싶단 말이야. 이처럼 지긋지긋한 일들을 하면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는 일 아닌가. 시간만 허비하면서 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을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나. 어디 시원하게 속성 과정을 밟든가 기막히게 효과적인 알약이나 기계장치를 써서라도 금방 깨닫게되는 길은 없을까?"하고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엘·에스·디 환각제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의 일이 생각나는군요. 그 때 사람들은 이 약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속성법이라고들 떠들어댔지요.
"이 약 한알만 삼켜 보십시요. 그러면 뭐든지 훤하게 알게될 테니까요! 구태여 번거롭게 승려가 되어 절에서 눌러앉아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한 알만 복용하면 담박에 깨달을 테니까요. 약사나 마약 취급자만 찾으면 됩니다. 달리 애쓰고 있을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것 뿐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몇 번 엘·에스·디를 먹고 환각 상태를 맛본 연후에야 사람들은 깨달은 것 같던 기분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고 남은 것은 전보다도 더 못한 상태, 참을성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게 아닙니까?
그래서 사찰에서는 참을성을 키우는 일이 변함없이, 여전히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특히 동북부에 있는 숲속 사원에 가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참을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맛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곳 생활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기 때문에 참고 견뎌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은 온갖 불쾌한 육체적 경험부터 견뎌내야 합니다. 말라리아 열병이라든가 뜨거운 여름철 같은 것을 말이지요. 사실 동북 지방의 여름철은 내가 겪어본 중에서 가장 지겹고 황량한 계절이었습니다. 허구한 나날이 마냥 똑같이 지겹기만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똑같은 날이구나"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모든 것이 지루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무덥구나. 더위와 모기와 땀 범벅의 이 길고도 긴 하루여."
정말 끝도 없이 길게만 느껴지는 하루, 이런 하루가 나날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루해 하던 어느 날 퍼뜩 정신이 듭니다.
"아, 이 얼마나 참을성을 기를 좋은 기회인가!"
참고 견뎌 내는 공부, 다시 말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모든 장애와 망집(妄執), 들뜬 마음 따위를 견뎌내고 그리고 밖으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공부가 있을 뿐입니다.
이곳 치서스트 같은 곳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일이지요. 여러분들 중에 진정으로 치서스트를 견뎌내고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될까요.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온통 불평투성이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견디겠다.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없다. 자유로운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등 불평 소리가 많이 들려 옵니다. 또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사생활이 없다는 등 바라는 것은 많고 이래저래 마음은 마냥 들뜨기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는 보다 좋은 곳, 이보다 더 나은 어떤 곳이 항상 자리잡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 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참을성을 운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동북부의 그 뜨거운 여름철을 내내 앉아 배길 만한 결의가 되어 있어야 할

불교 전통의식 교육원 제 14기 학인 모집요강

불교전통의식으로는 불교음악으로서의 범패와 승무(바라춤, 착복무)를 들 수 있다.
범패란 전통불교음악을 지칭한 말로서 그 기원은 인도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오늘날 범패음악의 현실은 어떠한가? 오늘날의 한국 寺院은 영산회상의 환희심을 잃은지 오래이며, 몇몇 특수사찰과 교육원에서 그 명맥만이 전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梵唄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중요성이 실추되어 있는 바 불교계의 발전과 조상이 남기신 훌륭한 유산을 우리 후손에게 보다 잘 전승해 주었을때 그 종교적 문화적 가치성은 더욱 크다고 볼 것이다. 이에 본 교육원에서는 사라져 가는 범패의 가치성을 보다 높이고 계승 발전시키고저 제14기 전통의식 교육생을 모집하게 되었는바 전통의식에 관심이 있으신 스님 및 신도님께서는 방문하시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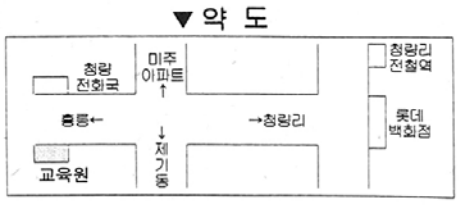
불교전통의식교육원 원장 合掌

■■■ 교육과정 ■■■

■기초과정 : 사찰(사중)생활에 필요한 기본의식 및 예불·불공
■기본과정 : 천도의식 49재의식 범패·범음 등 제반의식
■요잡과정 : 바라춤, 착복(나비춤) 태징치는 법 등
■강 사 :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이수자
임 명 수 원장 직강
■교육기간 : 기초과정3개월 기본과정 6개월
요잡바라 3개월
기초과정－오후5시－6시30분
기본반－오후7시－8시30분
■교육시간 : 주4회(월~금요일)
■접수일자 : 1995년 8월21일~9월16일
※ (AM 10:00~20:00) 상담자 대기
■개 강 : 9월 18일

■자 격 : 종단에 구애없이 전통불교의식에 관심이 있으시고 배우고자 하시는 스님 및 사찰관리자, 신도 모두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육원 발행)
사진 3매(반명함)
■문의전화 : (02)967－7093

▼약 도



1 3 0 － 0 1 4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청량리 전화국 건너편 3층)

☎ 967－7093

상담자 항시 대기

불교전통의식교육원

해외 고승 지상법석 — 여름 특집

생활화 되어야 해요”

장애·망집·들뜬 마음을 견뎌내고 참으로 비어 있으려면 참는 것을 배우는 길 밖에 없습니다

‘빨리 빨리’ 서두르면 무지·혼란 못벗고 불평만 늘어 ‘붙들지 말자’ 마음 비우면 의심·불만·공포도 줄어

것입니다.

설혹 열대병에 걸리더라도 집에 돌아가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을 생각일랑 아예 일으키지 않고 일년이 되더라도 능히 버텨낼 각오가 되지 않았다면 어찌 참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단 깨달기만 하는 날이면 깨닫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재미있는 최신식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도 한일 깨달을 수가 있다면 틀림없이 그때는 잔뜩 교만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미안하게도 부처님의 지혜는 교만과는 매우 거리가 먼 지혜입니다. 오히려 부처님처럼 지혜로워지려면 엄청난 참을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유별나거나 매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는 핵물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또는 철학자가 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대단히 겸허한 것인 바, 모든 생기(生起)하는 것들은 반드시 소멸하며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나 정신에 어떤 조건이 발생하면 그것이 조건지워진 것임을 알며 이 조건 역시 생기한 것이기에 반드시 사라지게 마련이라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조건지워지지 않은 것은 조건지워지지 않은 대로 바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번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방금 조건지워지지 않은 것이라 말했는데 조건지워지지 않은 것을 안다는 일이 정말 재미있고 매력적인 일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재미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응당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절대자인 신(神)이랄까 법(法)이랄까를 알고 싶다. 얼마나 기막히게 재미나는 일이겠는가. 그것이야말로 온통 축복이요 황홀한 느낌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명상하는 가운데서 그와 같은 경험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그런 경지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지워지지 않은 것이 주는 재미는 마치 이 방 안의 공간과 같은 것입니다. 이 방 안의 공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재미있습니까? 나에게는 재미있지 않습니다. 이 방 안에 놓인 물건들이야 물론 재미있기도 하고 또는 없기도 하고, 아니면 좋거나 나쁘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할 테지요. 하지만 공간은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 정말로 그대가 할 수 있는 말이나 생각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어 있다는 점 외에는 어떤 성질도 갖고 있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비어 있으려면 참는 것을 배우는 방법 밖에 달리 길이 없습니다.

거기엔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기에 공간을 깨달으려면 방 안에 있는 어떤 물건도 붙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열중하고, 판단하고, 비관하고 평가하기를 멈출 때, 여러분은 그 방의 공간을 비로소 체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많은 참을성과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자만심으로 차 있는 한 우리는 기껏 불상(佛像)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또는 후불탱화가 어떻고 벽의 색깔이 어떻다는 둥, 또는 아잔 문스님의 사진을 보면 신심이 난다, 아찬 챠 스님의 사진이 더 그렇다는 등 별의별 견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이 공간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할 때… 몸이 쑤시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들뜨거나 졸립게 됩니다. 그 때 우리는 참아내면서 눈여겨 살피고 귀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리에 귀기울입니다. 마음의 불평 소리들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걱정하는 그 소리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별나게 재미있거나 매력적인 인물로 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생기(生起)한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사실에 대한 단순한 인식, 가식 없는 인식으로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딱히 그뿐, 조건지워진 것은 조건지워진 것으로 그리고 조건지워지지 않은 것은 조건지워지지 않은 것으로 아는 것, 그것 뿐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조건지워지지 않은 데에 머물고 계시며,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더 이상 어떤 것에 대해서든 몰두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더 이상 어떤 조건에도 매혹되지 않으시며, 공간 안에 있는, 늘 변하기만 하는 이들 조건들에 마음 쓰시기보다는 조건지워지지 않은, 비어 있는, 공(空)의 쪽에 마음을 기울이십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참선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쪽에, 공 쪽에 마음을 쓰게 되면 온갖 조건들(行)에 대한 습관적 갈구, 매료, 반감, 공포, 의심, 불안 등이 줄어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다만 왔다 가 버리는 것에 불과하며 자아가 아니며, 흥분하거나 낙담할 대상이 아니며, 그 나름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건들을 그대로 놓아둘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왔다가 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만두어도 사라져 갑니다. 따라서 구태여 그들을 쫓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사물을 제 갈 데로 가게 내버려 둘 수 있게끔 충분히 자유롭고 참을성 있고 버틸 힘이 강해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투쟁과 갈등으로 부터, 무지한 마음이 벌이는 그 끝없는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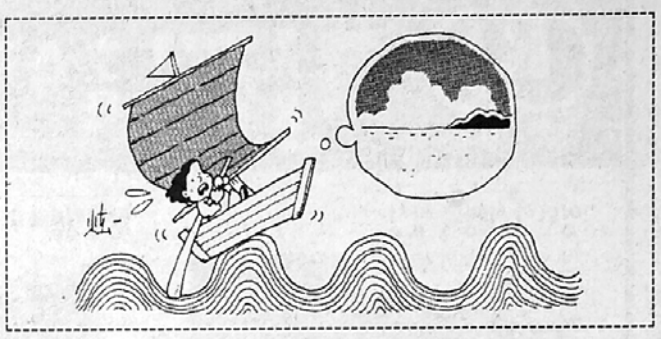
돌아보면 이 무지한 마음이야말로 시종일관해서 무엇이든 만나는 쪽쪽 분별하고 평가하면서 어떤 것에는 매달리려 애쓰고 어떤 것으로부터는 피하려 애쓰며 모든 시간을 보내어 온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한 얘기를 깊이 숙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모든 시간을, 못 견딜일을 견뎌내는 데에 써 보십시오. 아무리 못 견딜것 같던 일도 참을성으로 대하면 견딜만 하게 됩니다. 남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참고 견디어 보십시오.

그것에서 굳이 잘못된 면만 찾아내려 들고, 그래서 나 같으면 이렇게 만들고야 말 것인데 하고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제 나름으로 갈길따라 전개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것은 그럴 수 밖에 달리 길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세상을 참고 수용하는 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거나 좋아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나의 말은 자신의 혼란을 실제로 인정해주어 그렇지 않아도 혼란투성이인 이 세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뜻, 불평하고 저항하여 마찰과 혼란을 빚지 않고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그 속에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을텐데라고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저항하여 마찰을 빚지 않고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수 있습니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36

양 형 진

색즉시공(色卽是空)

허공중의 에너지 인연으로 물체 드러내 색의 본 바탕은 생멸하지 않는 공의 세계

반야심경의 너무도 잘 알려진 구절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임을 설명하고 색과 공이 다르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굳이 색즉시공의 주어를 색이라고 본다면 색이 곧 공이라는 말은 우리 눈 앞에는 색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는 사대(사물의 제 요소)가 화합하여 인연따라 잠시 나타난다는 것으로서 자성으로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연기무자성공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겠다. 굳이 공즉시색의 주어를 공이라고 본다면 공이 곧 색이라는 말은 공이 허무단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색의 세계가 이 공으로부터 현현하니 색의 무한한 가능성을 공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진공묘유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겠다.

진공묘유에서 설명하였듯이 색은 마치 잔잔한 바다에 바람이라는 인연이 닿아 생겨난 파도와 같은 것이다. 지금 당장은 파도라는 물 덩어리가 표면 위에 솟아 있지만 그 파도의 본성은 오직 바닷물일 뿐이니 바람이라는 인연이 다하면 바다라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다. 더우기 그 파도 자체가 바다이다. 그러므로 우리 눈 앞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본성은 공한 것이기 때문에 색즉시공이 된다. 자성이 없는 것이 연기에 의해 잠시 나타나는 것이므로 공이라고 하는 것이다.

현대 물리학이 기술하는 물질관이 정확하게 이 파도와 바닷물의 비유와 같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에너지는 물질과 같다. 이는 유명한 $E=mc^2$ 이라는 공식으로 표현된다. 물체의 질량은 (색 혹은 파도는) 에너지로 (색으로서의 가능태로) 바뀔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이 에너지는 허공에(공 혹은 바다에) 퍼져 있게 된다. 이 에너지가 어떤 좁은 공간으로 결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물체이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체가 (색이나 파도는) 어떤 상황이 되면 (색이나 파도의 인연이 다하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에너지로 변하게 된다 (공 혹은 바다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허공이다. 또 이 에너지가 어떤 상황이 되면 (사대의 인연이 화합하면) 물체(색 혹은 파도)가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물체란 에너지가 결집된 것 이상이 아니어서 색의 바탕은 공이지만, 색을 떠나서 공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허공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충만한 것이어서, 그 본성은 단멸공이 아니라 무한히 현현하는 색의 가능태이므로 색을 떠나서 공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색을 떠나서 공이 존재하지 못하고 공을 떠나서 색이 존재하지 못하니, 이를 색체가 곧 공이요 공체가 곧 색이라 한다(色體卽空 空體卽色).

이를 다시 말하면 색성공(色性空)이다. 색성공이나 색체즉공, 색즉시공의 의미는 색이 멸하고 나서 공이 생겨난다는 것이 아니라, 색의 성품 혹은 색의 본 바탕이 공이라는 것이다. 파도가 곧 바다요 물체가 곧 에너지가 충만한 허공인 것과 같다. 그러므로 색과 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유마경에서는 불이법문(不二法門)이라고 이른다.

대품반야(大品般若) 봉발품(奉鉢品)에서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공 가운데에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색을 여의고 공이 없고 수상행식을 여의고 공이 없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며, 수상행식이 공이고 공이 수상행식이다. …모든 존재의 참성품은 생멸하지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생멸을 보지 않고 더러움과 깨끗함을 보지 않으며 행한다. 왜냐하면 이름이란 인연의 화합으로 된 것이어서 단지 분별과 생각으로 거짓되게 이름을 붙인 때문이며, 이 때문에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일체의 이름을 보지 않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사량 분별에 의한 일체의 ‘이원론을 넘어서서 불이의 관점으로 세계를 관하는 불교적 세계관의 장쾌한 모습을 보게 되며, 이는 또한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을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하는 실천의 문제와 연결된다는것을 알게 된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삼화불교대학생모집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국어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교미술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2급 119명 자격취득
92. 8 본교학생 29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유아교육과 95% 취업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 중의약대학과 자매결연

3. 특전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제정지원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5년 8월 23일까지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 :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주소: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학

포교현장의 전문법사양성(3년과정)

’95학년도 동산불교 전문연구원 신입생 모집

1. 불교전문연구원 개설 취지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라 부처님 가르침의 필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이제 대승불교의 상구보리, 하화중생, 보살도를 중생속에 실천하는 사명감 있는 전문법사, 포교사를 양성코저 3년과정의 동산불교 전문연구원을 개설함.

개 강 : 1995년 9월 4일(월)	
매주 월요일 오후7시 (95. 9. 4~96. 1. 29)	법화경원전(한정섭 법사 : 한국불교교화원장)
매주 화요일 오후7시 (95. 9. 5~96. 1. 30)	아미타불 수행론(태원스님(보국사)·석서진스님(서원사)

※ 과목별 주1회 강의(1학기 : 5개월)

2. 교과목 및 교수

	1학년		2학년		3학년	
경전과정 (매주 월요일)	1학기	법화경 Ⅰ	1학기	육조단경	1학기	구사, 유식
	2학기	법화경 Ⅱ	2학기	아함경 Ⅰ	2학기	화엄경·금강경
응용과정 (매주 화요일)	1학기	불교상담론	1학기	비교종교론	1학기	불교의식 Ⅰ
	2학기	기도수행법 (아미타불)	2학기	불교미술	2학기	포교담경영론

·무진장스님(전 포교원장) ·한보광스님(동국대교수)
·종범스님(승가대교수) ·정병조교수(동국대교수)
·권기종교수(동국대교수) ·서윤길교수(동국대교수)
·권탄준교수(동국대교수) ·박문곡스님(흥천안양사주지)
·한정선박사(불교교화원장) ·홍윤식교수(동국대교수)
·박 종교수(한국불교통신대학장)

※ 과목별 주1회 강의(1학기 : 5개월)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및 장소	비 고
정규반(40명) 통신반(40명)	①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불교교양대학(2년)이수자 ③과목별 이수 희망자	①입학원서 1통 ②주민등록등본 1통 ③반명함판사진 3장 ④불교교양대학졸업증1통 ⑤자기소개서 1통	95년 8월5일 ~ 95년9월2일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매주 월·화요일 오후7시~9시(본 연구원 사무국)	통신반은 지방 거주자나 출석 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 가능

4. 입 학 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검전과정(6과목 이수), 응용반(5과목 이수)합하여 11과목 이상 이수자에 연구원 졸업장(전문법사)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732-1206~8, 722-0408, FAX 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95-2

동산불교 전문연구원 원장 무진장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반야회 회장 김재일

KJ KAJIN

전화로 주문하고 집까지 배달되는

가진 홈쇼핑 HOME SHOPPING

'95 현대불교신문 독자만을 위한 한

영원한 생명의 상징 —호신불 목걸이—



• 실물의 약 1.4배
• 뒷면은 반야심경이 양각되어 있습니다.
• 체인길이 40cm
• 상품코드 KJ 001
• 상품명 호신불 목걸이(14k/6.0g)
₩ 115,000 → ₩ 104,400(10%) (체인포함가격)
• 체인무게 1.8g

만사형통으로 이끄는 작은 호신불 —불자 목걸이—



• 상품코드 KJ 002
• 상품명 불자 목걸이(14k/3.5g)
₩ 70,000 → ₩ 63,000(10%) (체인포함가격)
• 체인무게 1.8g

언제나 제불보살의 큰 자비와 함께 하십시오



—옴자 목걸이/반지—

• 실물의 약 1.2배
• 상품코드 KJ 003
• 상품명 옴자 목걸이(14k/2.8g)
₩ 80,000 → ₩ 72,000(10%)
• 상품코드 KJ 004
• 상품명 옴자 반지(14k/3.7g)
₩ 94,000 → ₩ 84,600(10%)
• 체인무게 1.8g

거북이는 부귀와 장수, 행운의 상징입니다.



• 상품코드 KJ 005
• 상품명 거북반지(대)
(14k/11.2g 24k/0.8g 루비 ×2, 0.2ct×24)
₩ 358,000 → ₩ 358,200(0%)



• 상품코드 KJ 006
• 상품명 거북 목걸이(대)
(14k/11.2g 24k/0.8g 루비 ×2, 0.2ct×24)
₩ 400,000 → ₩ 360,000(10%) (체인포함가격)
• 체인무게 3.7g

• 주문시 반지사이즈를 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선 ▼
• 동봉서 반지사이즈를 적어 주십시오.

거북과 함께 건강장수를 누리시고 행운도 차지하세요.



—거북 목걸이/반지—

• 실물의 약 1.2배
• 상품코드 KJ 007 (소)
• 상품명 거북 목걸이(루비×2, 14k/3.7g)
₩ 94,000 → ₩ 86,400(8%)
• 상품코드 KJ 008 (소)
• 상품명 거북 반지(루비×2, 14k/2.8g)
₩ 84,000 → ₩ 75,600(10%)
• 체인무게 1.8g

현대불교신문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당사의 통신판매 광고에 성원하여 주시는 애독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유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애독자 여러분께 귀중한 분들에게 드릴 실용적이고 뜻있는 추석 선물 용품전을 기획 마련하였습니다.

애독자 여러분께 재삼 감사 드리며,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진산업(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75-1(가진빌딩 2F)

숨쉬는 양모이불과 바이오 건강베개 —가격과 품질 모두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스스로 숨쉬는 양모의 비밀은 트럼프(천연주름)에 있습니다. 뛰어난 습도조절기능, 높은 탄력성 및 복원력 등의 기능은 트럼프가 양모 사이사이에 많은 공기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양모이불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여 사계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특징(건강베개)
• 신체 피로도에 따라 베개높이를 조절
• 25,000여개의 바이오 칩은 머리와 목의 경혈을 지압해 주며 열을 분산시켜 편안한 숙면을 도와줍니다.



■ 재질
• 차렵양모이불(180×220cm):(겉)100% 순면(40수) (속)100% 울(1.3kg)
• 건강베개(65×45cm):(겉)100% 순면(40수) (속)바이오 칩
• 상품코드:KJ 009
• 상품명:차렵양모이불1+건강베개 2
₩ 98,000 → ₩ 78,400(20%)
* 세탁은 드라이크리닝(이불), 물세탁(베개)하시고 양모의 부은 열을에 한번 햇볕과 공기를 보여주십시오.

시원하게 사우나할 때 필수품 —사우나 슬림—



이태리 여성들이 애용하는 사우나 슬림, 몸선에 또는 부위별로 날씬하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하세요. 외부현상에 관계없이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 제품특징
• 젤타입(냉열사우나 효과)
• 셀타입으로 경제적
• 피부질환에 따른 부작용이 없음
• 유럽과 미국의 임상테스트 수입완제품



• 상품코드:KJ 010
• 상품명:사우나 슬림
₩ 33,000 → ₩ 29,700(10%) (250ml)

25세 전후로 일어나는 피부 트러블 강동욱 에센스로 말끔히 해결하십시오. 하루 5분 자기 피부를 변화가 일어납니다.

• 피부 중 문제가 없는 부분에 소량을 덧바르면 됩니다.
• PLACENTA(태반) 농축액기스 80% 함유
• 밀로에 농축액기스 조합
• 효능:기미, 주근깨, 검버섯, 잔주름, 피부노화예방, 여드름 피부, 탄력회기 개선 등
• A형 셀타입(25세 이만용), B형 크림타입(25세 이상용)
• 주문시 AB 형 선택(25세이만 A, 25세 이상 B)



• 상품코드:KJ 011
• 상품명:고농축 에센스
₩ 48,000 → ₩ 43,200(10%)



• 구성 4ml×8병
• 이태리 장클레베르사 수입완제품

20층 피부 세포 속 까지 영양을 공급하는 —첨단 미용 마스크 팩—

• 효능:풍부한 하이넷센스가 함유된 부드러운 치료마스크는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와 거친 피부에 새로운 활력과 윤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하루 수분이 상실된 피부에 영양보습작용이 뛰어나며, 식물성 추출물질과 태반추출물의 상존은 항상 광고 탄력있는 피부를 유지시켜 줍니다.
• 주요성분 태반추출물—노화억제, 주름방지, 탄력강화, 영양공급
알로에추출물—미백작용, 피부재생, 자외선차단, 피부진정
녹차추출물—활성산소억제, 멜라닌색소침착억제, 수렴보습
• 사용방법 냉장고에 차게 보관된 제품은 주시 커녀어 사용하며 피부에 밀착시킨 후 20분간 방치하거나 부드러운 맛사지한다.



• 특히 햇빛이나 바람에 얼굴이 탄 날에 이용하세요.
• 이태리 장클레베르사 수입완제품
• 상품코드:KJ 012
• 상품명:마스크 팩
• 상품용량:20ml×10EA
₩ 85,000 → ₩ 68,000(20%)

촉감이 부드러운 —벨보아 카페트—

보들보들한 감촉의 원단이 고급카페트의 느낌입니다.

■ 특징
• 부드러운 감촉의 고급 벨보아 원단
• 원단이 뭉치거나 쏠림이 없습니다.
• 털이 빠지지 않습니다.
• 물세탁 가능



• 상품코드:KJ 013
• 크기:180×230cm
• 소재:벨보아(폴리에스터 100%)
• 상품명:벨보아 카페트
₩ 69,000 → ₩ 55,200(20%)
*벨보아는 벨로아 카페트와는 다른 소재의 카페트입니다.

패션의 고장 파리에서 온 알코팔의 품위!

유럽과 동남아에서 아니,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파리의 귀족풍 알코팔을 아십니까? 우리의 식탁을 고전적이고 세련된 유럽식 스타일로 바꿔놓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 열에저도 잘 깨지지 않음
• 냉, 온 냉장고 및 전자레인지 해동에 관온이 안됨
• 전자렌지에도 사용 가능
•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적인 용기
• 세련 특수강화유리
• 튼튼한 프레스



• 구성
25.5cm 6PCS(디너접시 6개)
11.5cm 6PCS(국그릇 6개)
15.8cm 6PCS(공기 6개)
8.4cm 6PCS(커피잔 6개)
13.8cm 6PCS(찬받침 6개)
• 상품코드:KJ 014
• 상품명:알코팔 세트(30pcs)
₩ 210,000 → ₩ 99,500(53%)

주방의 만능 박사 —동양 핸드 믹서—

국내최초 KS마크 획득

신세대 주부의 필수품 도깨비 방망이!



* 스텐레스 칼날을 사용하여, 녹슬지 않고 견고함.
* 믹서날, 거품날, 혼합날, 컷트날, 분쇄기로 구성
* 세련된 디자인
* 안전하고 실용적인 제품
* 영양분 손실 방지
* 220V 전용
• 상품코드:KJ 015
• 상품명:동양 핸드믹서
₩ 120,000 → ₩ 53,800(55%)



요리가 즐겁습니다 —동양더블팬—

국내최초 KS마크 획득



• 전골용, 구이용 2개의 팬:요리선택 폭이 증가
• 전골용 팬:각종 볶음 요리 및 전골 요리
• 구이용 팬:특수 기름받이가 있어, 확실한 기름 제거 및 고기의 감칠 맛을 살려줌
• KS마크 획득한 우수한 제품
• 100V/220V 겸용
• 상품코드:KJ 016
• 상품명:동양 더블 팬
₩ 150,000 → ₩ 67,000(55%)

수납량 많고 심플한 실속형 —스텐레스 식기 건조대

심플하고 세련된 스텐레스 식기건조대. 공간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3단으로 세팅하였으며 각 단별 분리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각 칸마다 스텐레스 물받침대가 있습니다.
• 수저꽂이와 컵꽂이는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본수출품(일본통신판매 히트상품)
• 국내 최초의 100% 스텐레스 식기건조대
• 무게 3.2kg
• 재질 18-8 스텐레스(27종)
• 본체크기 38.5(폭)×29(길이)×58(높이)cm
• 일본 Daiyu사와 기술제휴
• 상품코드:KJ 017
• 상품명:스텐레스 식기건조대
₩ 65,000 → ₩ 52,000(20%)

엄마사랑 4종 요리기구 세트



① 하트 후라이팬
• 5개 계란 후라이를 한번에 요리
• 하트모양의 애교있는 달걀 후라이
• 햄버거, 김치부침, 피잔, 핫케익 등 각종 부침요리 가능
• 재질 (본체)알루미늄 다이캐스트 (뚜껑)내열 강화유리
• 사이즈 φ 21cm



② 계란말이 후라이팬
• 1자형바닥에 전용 뒤집기가 있어 계란말이가 쉬워짐
• 도시락 싸는 시간 절약 • 불소코팅이라 눌러붙지 않음
• 재질 (본체)알루미늄 다이캐스트 (뚜껑)불소수지 가공
• 사이즈 360×145×35 m/m



③ 패션 김밥말이
• 네모, 세모, 하트모양의 김밥 주먹밥
•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어지는 김밥
• 보리되어 세척시 용이
• 재질:하이임팩트 수지를 수지



④ 샌드위치 후라이팬
• 샌드위치가 동글동글 한입크기로
• 재질 (본체)알루미늄 다이캐스트 (뚜껑)불소수지 가공
• 사이즈 325×125×40 m/m

• 상품코드:KJ 018
• 상품명:엄마사랑 4종 요리기구 세트
₩ 58,800 → ₩ 39,000(20%) (세 1세트)

• 대금 납부 방법:은행 등에 온라인 입금 또는 카드 결재가능

1. 은행 온라인 아래 계좌로 먼저 입금하시면 확인 후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조흥은행 312-01-129130
○국민은행 023-25-0005-550
○신탁은행 33808-0407009
○한일은행 203-115978-13-001
○농 협 018-17-002091
○우 체 국 011916-0082284
• 예금주 한국가진산업(주)

2. 카드 결제 당시에서 보내는 카드전표를 작성한 후 동봉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되돌려 보내주시면 됩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할부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카드 BC, 국민, 비자, 마스터카드)

■ 소비자 상담:02-529-7873
■ 주문 접수 시간:평일-오전 10시~오후 8시 토요일-오전 10시~오후 5시
■ 배달 기간:입금확인후 7일 이내

가위 맞이 특별 기획전

지금 주문하십시오
무료전화 : 080-900-4900, 080-900-4901
대표전화 : 02-529-4900, FAX주문 : 02-529-4905

인체처럼 휘어져서, 안전도 만점, 효과도 만점! —커빙벤치—



인체처럼 발판이 부드럽게 휘어진 커빙벤치는 허리에 충격을 주지않고, 디스크 등의 부작용을 발생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높이조절 가능
- 복근강화
- 최소 공간에서 사용
- 접어서 보관 가능
- 심폐기능강화
- 쿠션이 좋음

• 원산지 대만

• 상품코드 KJ 019
• 상품명 커빙벤치
~~₩ 88,000~~ → ₩ 57,800 (35%)

걸기는 최고의 운동! 10분 딱만 걸읍시다 —신미니스탭퍼—



현대인에게 가장 좋은 운동인 걷기를 어디서나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거실, 사무실에서 손쉽게 온가족이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직업운전자나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에게 좋습니다.

■ 운동효과
- 심폐기능 강화
- 하체 근육단련
- 비만개선
- 성인병 예방

• 계단보행의 최종효과 시현

• 상품코드 KJ 020
• 상품명 미니스탭퍼(신형)
(제품치수 56×31×51cm)
₩ 99,000 → ₩ 84,000 (15%)

주물러 주는 우리집 홈 닥터 —효자손 맛사지기—



효자손은 두개의 지압 봉이 부드럽고 강하게 움직이면서 저리고 뭉치고 아픈 어느 부위라도(목, 어깨, 허리, 팔, 다리, 허벅지를 시원의 손처럼 시원시원하게 주물러 드립니다

- 몸이 뻐근하고 어깨가 무거우신 분
- 정상시 허리통증이 있으신 분
- 팔, 다리, 어깨가 결리시는 분
- 배가 나오신 분(팔, 다리, 배근살 제거)
- 숙변을 제거하고 싶으신 분
- 운동 선후에 근육을 풀고자 하시는 분
- 수험생의 신장, 오르, 불안에 의한 피로를 덜어줌

효도선물

꼭 카바를 덮고 사용하십시오

1. 물리적인 효험으로, 정맥과 경락을 자극하여 몸 전체의 기능을 활발히 움직이게 합니다.
2. 어디서나 하루 30분은 주물러 서랍해줌으로써 굳어진 근육을 풀어줍니다.

• 상품코드 KJ 021
• 상품명 효자손 안마기
~~₩ 230,000~~ → ₩ 85,000 (63%)

당뇨병, 신장질환, 간장질환, 요로계이상 4가지 검사를 가정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체크 4노 검사기

노검사로 건강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노는 "내부기관의 거울"이라고 하여, 몸의 상태에 대한 150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성인병—이제 가정에서 손쉽게 검사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경제적입니다.



반복검사결과가 비정상이라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전용시험지 10매 포함(추가구입시 15,000원/10매) 일본 수입완제품(수입원 : 광동제약) 제조원 일본 OMRON사

• 상품코드 KJ 022
• 상품명 체크 4 노검사기 ~~₩ 270,000~~ → ₩ 198,000 (26%)

하반신! 군살, 지방 정말 싫으시죠? —다이어트 바지—



하체의 탄력효과 군살 제거 효과가 있는 체중감량용 바지입니다.
입는 순간 놀랄 정도로 많은 양의 땀을 발생시키고 지방, 군살제거와 탄력있는 각선미를 가꾸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배에운박, 헬스, 조깅시에 입으면 효과가 더욱 배가됩니다.

• Size
긴바지 : S, M, L, XL
반바지 : S, M, L
• 원단 : 일본수입품
• 재질 : 네오프렌

• 상품코드 KJ 023
• 상품명 다이어트 긴바지
~~₩ 125,000~~ → ₩ 87,500 (30%)

• 상품코드 KJ 024
• 상품명 다이어트 반바지
~~₩ 88,000~~ → ₩ 61,600 (30%)

종아리, 허벅지, 허리, 어깨에 감아만 주세요! —미용 아대—





남편해지고 싶은 부위—허리, 허벅지, 종아리 등에 살짝 감아보세요. 원하는 곳이 원하는 만큼 날씬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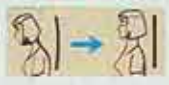
■ 상품구성
- 종아리용, 허벅지용, 허리용 —보급형(5 pcs)
어깨용 —고급형(6 pcs)

• 상품명 미용아대
• 상품코드 KJ 025
~~₩ 25,000~~ → ₩ 22,500 (10%) 보급형
• 상품코드 KJ 026
~~₩ 89,000~~ → ₩ 62,800 (29%) 고급형

• 보급형과 고급형은 원단으로써 차이가 있습니다.

- 둘이 같이가나 어깨가 모이신 경우 바른 몸매로 교정
- 자기관리, 직장인, 주부, 수험생 등 남녀 모두에게 좋습니다.
- 탄탄이 입시곡 품종도 좋음
- 타이오세라믹 참가
- 프리사이즈

■ 상품명 허추교정벨트
■ 상품코드 KJ 046
~~₩ 35,000~~ → ₩ 28,000 (20%)



"토니락"은 각종 천연보습인자와 비타민을 듬뿍 담고 있는 기초화장품 입니다. —프랑스에선 톱 살 살롱용 전문 바디크림으로 더 유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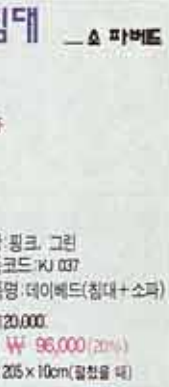
양(羊)의 양수인 '임니오틱' 성분이 살듬현상을 예방하여줌은 물론 이미 진행된 부위는 서서히 개선하여 드립니다. 프랑스 테라뇰사가 개발, 세계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토니락"은 프랑스 약전에 유일하게 톱살개선크림으로 게재되어 있는 세계적 명품입니다.



• 효능 : 튼살, 살터짐, 각질피부 치유 및 개선
• 성분 : 임니오틱, NMF, 리포 프로테인, 소산 토코페롤, 비타민E, 테바라기유 등 12종
• 원산지 : 프랑스

• 상품코드 KJ 027
• 상품명 토니락
~~₩ 68,000 (125g×2입)~~ → ₩ 57,800 (15%)

표정까지 편안합니다 —다용도 안락의자—



- 포장까지 완전한 안락 의자
- 거실, 사무실 등에서 완전한 휴식을 위한 안락 의자의 기능에서 완전히 essential 단어 참대가 되는 최신품
- 발받대 부분이 3단계 각도 조절
- 크기 (눕힘을 때 82×154×90cm (세워을 때 82×96×89cm
- 스틸프레임 분체도장
- 소재 우레탄 발포 스폰지
- 안락의자+보조대

■ 상품코드 KJ 028
■ 상품명 다용도 안락의자
~~₩ 70,000~~ → ₩ 55,000 (21%)



여행의 즐거움은 짐꾸리기부터 —여행용 가방 3점 세트—

여행갈 때마다 고민이었던 짐꾸리기
이젠 여행용가방 세트로 해결하세요!
깔끔한 디자인과 과격적인 가격!



• 상품코드 KJ 029
• 크기 방수형 특수원단
大 56×30×28cm
中 47×26×24cm
小 42×23×21cm
• 상품명 여행용 가방 세트(3개 1세트)
~~₩ 58,800~~ → ₩ 39,000 (33%)

미국 Polo사에 납품했던 그 품질 그대로입니다. —핸드 백 3점 세트—

세련된 칼라와 디자인, 꼼꼼한 바느질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성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분위기에 맞게 선택하면
외출이 즐거워집니다.

• 미국 수출품



50세트 한정

• 소재 : 소가죽+캠피스지 (캐스팅리지)
• 상품코드 KJ 030
• 상품명 핸드백 세트
~~₩ 94,500~~ → ₩ 60,000 (37%)

다양한 기능의 자동 카메라 —현대카메라—



세련된 디자인, 간편한 휴대기능 및 편리한 조작으로 당신도 작은 영상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모델명 : FREE CAM — 30



• 자동노출, 자동플래시 기능
• 필름감기, 되감기 자동
• 드롭 되감기 기능
• 촬영날짜 표시기능
• 현대전자(주) 제품

• 상품코드 KJ 031
• 상품명 현대전자동카메라
~~₩ 157,800~~ → ₩ 98,000 (38%)

보급형부터 최고급까지 워크맨의 진수를 느끼세요 —IWIA 카세트—

■ 아이와 카세트(보급형)
- SUPER BASS 기능
- 스피커 내장형
- AM-FM 스테레오 튜너
- 배터리 표시 램프
- 고급이어폰, 벨트클립
- 사이즈 120×85×35(m/m)
- AWA TOKYO JAPAN

■ 아이와 카세트(고급형)
- SUPER BASS 기능
- 스피커 내장형
- AM-FM 스테레오 튜너
- 스테레오 마이크 녹음 가능
- 스테레오 녹음아이크 기본
- 배터리 잔량 표시(3단계)
- 자동 반복 연주 기능
- 테이프 종류선택 기능
- 고급이어폰, 벨트클립
- 사이즈 120×85×30(m/m)
- AWA TOKYO JAPAN



• 상품코드 KJ 032
• 상품명 아이와카세트 (보급형)
~~₩ 69,000~~ → ₩ 62,100 (10%)
• 상품코드 KJ 033
• 상품명 아이와카세트 (고급형)
~~₩ 135,000~~ → ₩ 121,500 (10%)

바퀴벌레류, 쥐, 개미, 거미가 얼씬도 못합니다



해충퇴치기를 전원에 꽂으면 건물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에 자장을 만들어 해충의 신경계를 자극, 밖으로 내모는 원리로 해충에 면역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체나 애완동물에는 무해하고 초음파 퇴치기와는 달리 소리도 없고 전력소모도 25W로 하루 10원 정도면 해결합니다.

- E.P.A(미국환경청 등록)
- U.L에 등록
- 원산지 미국
- 220V 전용
- 특허심리중
- 반영구적입니다
- 사용면적 60평형

• 상품코드 KJ 034
• 상품명 전기해충퇴치기
~~₩ 68,000~~ → ₩ 57,800 (15%)

이불은 1/3배로, 장농의 공간은 3배로 —이불 압축백—

두툼한 솜이불을 홀쭉하게 줄여서 보관한다면 장롱을 훨씬 넓게 쓸 수 있겠죠. 신선 이불백에 이불을 넣고 진공청소기로 공기를 쑥— 빨대를 이용하여 몇번이고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이불의 복원은 햇빛에 말리면 원상복귀됩니다
- 다림질이 필요없습니다.
- 일본 수입 완제품

■ 재질 : (본체) PE, LLD - 8특수공법 (금속압추봉) PE
■ 사이즈 : 98×130 mm
• 상품코드 KJ 035
• 상품명 이불 압축백



~~₩ 33,000 (3개 1세트)~~ → ₩ 29,700 (10%)

물걸레, 강력모터, 간편사용 —충전식 진공 청소기—



우유, 커피 등 물기제거



먼지, 부스러기제거

■ 제품의 특징
- 자동식, 집안 어디에나 사용가능
- 벽에 걸어두고 충전과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석진 틈새, 청소용 흡입구가 있어 다목 편리
- 한번충전이 필요으로 영구 사용
- 물과 2/3병(230cc) 정의 용량수 가능

• 상품코드 KJ 036
• 상품명 가정용 진공청소기
~~₩ 45,000~~ → ₩ 36,000 (20%)

접으면 소파, 펼치면 멋진 침대 —소파베드—

낮에는 깔끔한 소파로,
밤에는 편안한 침대로…
팔걸이까지 있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제품

접었다 폈다 공간효율은 최대!

100×60×80cm(접었을 때)



• 색상 핑크, 그린
• 상품코드 KJ 037
• 상품명 데이베드(침대+소파)
~~₩ 120,000~~ → ₩ 96,000 (20%)
100×205×10cm(펼쳤을 때)



여름철 소중한 옷 보관에는 —홈센스 옷 카바—



■ 제품특징
- 통기성이 좋은 부직포(PP) 사용(재활활성 원단)
- 접착식은 하단에 벨크로(찍찍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크기 60×95cm(양복용)
60×130cm(드레스용)
- 구성 양복용15+드레스용5(공통)

• 상품코드 KJ 038
• 상품명 넝클무늬 옷카바A(접착식)
~~₩ 37,800~~ → ₩ 26,000 (30%)
• 상품코드 KJ 039
• 상품명 넝클무늬 옷카바B(지퍼식)
~~₩ 48,000~~ → ₩ 33,600 (30%)

집안정리! —홈센스 이불보, 고자상 카바—

■ 제품특징
- 통기성이 좋아, 곰, 곰팡이가 습지 않음
- 지퍼식으로 수납이 용이하고 이불 4개까지 수납(이불보)
- 접착식은 하단에 벨크로(찍찍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상품코드 KJ 040
• 상품명 이불보세트(3개 1세트)
~~₩ 40,000~~ → ₩ 31,000 (25%)
• 상품코드 KJ 041
• 상품명 침고자상카바(2개 1세트)
~~₩ 32,000~~ → ₩ 25,000 (22%)
• 상품코드 KJ 042
• 상품명 침고자상카바(2개 1세트)
~~₩ 26,000~~ → ₩ 21,000 (20%)

조립이 간편한 —홈센스 정리함—

이사할 때에도 꼭 필요합니다.

- 재질 백색컬프지+미널라지
- 사이즈
37×57×19cm(뚜껑식)
40×60×20cm(서랍식)



• 상품코드 KJ 043
• 상품명 파스텔정리함(서랍식 10개 세트)
~~₩ 57,800~~ → ₩ 45,200 (20%)
• 상품코드 KJ 044
• 상품명 양상블정리함(뚜껑식 10개 세트)
~~₩ 49,800~~ → ₩ 34,300 (30%)

바디라인을 살려주는 고탄력 거들 팬티

- 배가 나온 여성 출산후 체형관리 중인 분들에 좋습니다.
- 허리부터 팬티까지 이음 제봉선이 없습니다.
- 인체공학적 디자인
- 면 90%, 스판 10%
- Free Size
- 세계 15개국 특허
- 5매 1세트
- 이태리 BONITO사와 기술제휴



• 상품코드 KJ 045
• 상품명 거들팬티
~~₩ 35,000~~ → ₩ 25,000 (30%)

■주문시 유의 사항

추가 할인 혜택 10만원 이상 구매시 → 5% 할인혜택
(보석류와 카드구매시는 제외)
교환 및 반품 : 상품을 받으신 후 **7일 이내** 교환 및 반품 가능

당 사는 높은 광고비를 소비자 이익으로 돌려 드리기 위하여 각 광고매체별로 최소단위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상품이 없더라도 본 광고지를 잘 보관하셨다가 필요할 때에 전화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행 사용품이나 관촉물 특별 상담합니다.
저가 및 고가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귀로가 없으신 분은 (2-529-8900으로 연락 바랍니다.

고은 불교 대하소설

남각 무전 그리고 만화

남각이 지옥의 8대지옥과 8한(寒)지옥을 차례차례로 떠돌며 극한의 고통을 받은 나머지 때로는 그가 살았던 사바세계에 있는 고지옥(孤地獄—邊地獄)에도 떠올라서 단 하나만으로 갇혀있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또한 무전은 커다란 고기 속에 삼켜져 그 안의 벌레로 지내다가 고기 밖으로 빠져 나가서 수미산의 정상이 아득히 수평선 끝으로 어떤 불안정한 표적이나 낚시의 찌처럼 보이는 바다 가운데 자라가 되어 떠 있었다.

그런가 하면 만화는 마치 폭죽(爆竹)처럼 하늘 속으로 한없이 솟아 올라서 그곳의 우주 허공계 가운데서 지친 심신으로 멈춰있는 것을 천상계의 사자(使者)들이 발견해서 그 사자들의 날개에 힘 입어 천상계의 외원궁(外院宮)에 입실(入室) 할 수 있었다.



40

천상계 도솔천 내원궁은 외원궁 안에 따로 있거니와 진작 미륵보살과 석가보살이 함께 지내다가 석가보살이 먼저 사바세계의 중생계에 내려가지 않았던가. 이미 미륵보살의 하생(下生)이 정해진 것이었는데 바로 그 미륵보살에게 호소해서 "내가 먼저 사바세계 중생으로 태어나 그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니 나에게 양보하오"라는 간절한 당부 때문에 미륵보살이 내려갈 차례에서 물러선 것이다.

그런 다음 석가보살이 사바세계의 부처가 되어 중생을 사랑하다가 그 사바세계가 다한 뒤의 59억8천만년 뒤의 어느 시기에 도솔천에서 부처가 된 미륵불이 내려가 사바세계 다음의 용화세계를 주재할 것이다.

그 도솔천은 어디인가. 바로 수미산 꼭대기에서도 12만유순이나 더 올라가야 하는 하늘이다. 욕계(欲界) 6천(六天)의 한 군데이거니와 아래로부터 욕계 사천왕(四天王) 도리천(忉利天)야마천(夜摩天)이 있고 그 위에 바로 도솔천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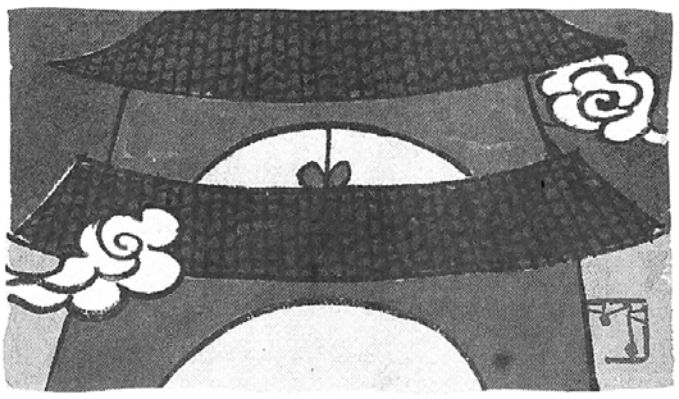
이토록 높은 경지로서의 천상계에도 아직 중생의 욕(欲)과 정(情)에 잠겨있는 상태이고 도솔천 위의 화락천(化樂天)이나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은 좀 나은 경지로서 들뜬 마음이 많으나 그것이 잠기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으면서 5욕락(五欲樂)에 지극히 만족하는 곳이다.

그러는 동안 그 하늘에서 다음에 부처를 이룰만한 보처(補處)의 보살들이 머무는 건은 극히 드문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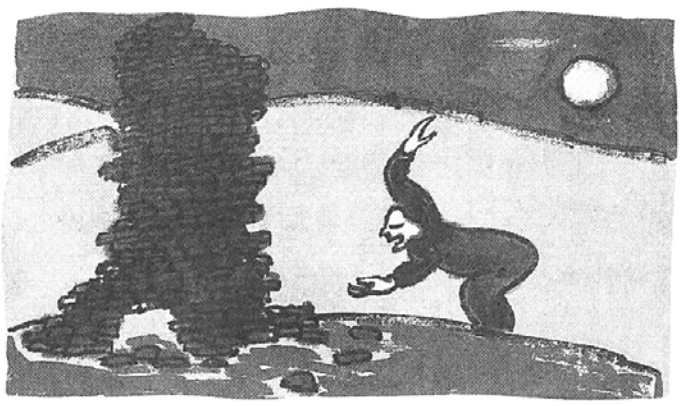
전해오는 석가여래의 8상도(八相圖)나 그밖의 불화(佛畵)의 감로탱화(甘露幀畵)와 어떤 관각화를 통해서 도솔천이 마치 이승의 한 숲속의 장원(莊園)처럼 그려지고 있거니와 수미산으로부터도 더 아득히 높은 하늘 속의 그 우주 궁전이야말로 중생계가 도달할 수 있는 한 궁극이기도 하다.

우선 그 하늘 속의 궁전은 인간의 욕망이 한없이 그려낸 재보(財寶)의 염원 그 자체로서의 금·은 따위의 7보(七寶)로 지어진 지극히 아름다운 누각이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하늘사람들이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고 있다.

거기에 외원궁(外院宮) 내원궁이 있다. 외원은 여러 하늘사람들의 욕락(欲樂)을 누리는 곳이고 내원은 미륵보살이 머무는 특수한 곳이다. 그곳에서 미륵보살과 석가보살이 함께 일생부처로 살고 있다가 한 보살이 먼저 사바세계 인간계로 떠난 것이다. 그가 내려간 곳이 인간계라고 하지만 그곳은 인간과 축생 아귀 아수라들의 온갖 중생이 뒤섞여 살면서 인간의 전횡이 차츰 사나와지는 곳이었다.







도솔천에 태어난 만화는 하늘사람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바로 이런 도솔천 외원에 만화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를 이끄는 행운의 인도자가 바로 야마천으로 가는 하늘사람이었는데 그 야마천의 수명 2천세를 다한 하늘사람이 그곳에서 욕락을 아껴서 누린 업으로 도솔천으로 승진되어 태어날 때 그 승진에 따라붙은 것이었다.

어떤 업은 다른 업의 힘에 의해서 큰 파도더미에 조각배가 휩쓸리는 것처럼 휩쓸려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실은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엄밀함과는 달리 타업(他業)에 의한 이익의 한 예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예외의 사건은 언젠가 어김없이 보상받기 마련이다.

어쨌거나 야마천은 시간에 따라 욕락을 받는 하늘이므로 도솔천의 행복과는 견줄 수 없게 낮은 곳이다. 그런데도 인간계의 지상에서 16만 유순이나 높은 곳에 있는 천상계의 한 군데였다. 바로 이 야마천으로 태어날 몸이 도솔천에 태어난 것이 우선 만화의 영광이기도 하였다.

한 중생이 아주 오래동안, 고대인도의 시간개념으로 치자면 수많은 겁(劫)의 세월을 선업을 쌓아가며 생사를 거듭하는 동안 어느덧 보살의 자리에 오르게 되거니와 그 보살의 마지막을 보내는 곳이 바로 천상계 도솔천 내원궁이다.

사바세계의 단위와는 전혀 달라서 왜 그렇게도 보살의 키는 2리(8Km)나 되는지 만약 그런 키의 몸이 석양이라도 역광(逆光)으로 등지고 서 있다면 그 그림자는 갑절인 4리나 긴 곳을 뻗어나갈 것이 아닌가.

바로 그런 곳에서 4천년동안의 수명이나 사는 것이므로 그것도 사바세계에서는 가장 긴 역사시대의 공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없다.

나비 한 마리의 바삭바삭 말라버린 시체는 클론이거니와 하루살이 따위의 무더기 먼지 같은 시체의 생애의 짧은 것과 도솔천의 긴 수명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루살이의 찰나와 그곳의 4천세는 어떤 차이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은 이미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곳에서 사는 동안의 내용이 그 세상의 진면목을 말해주기 마련이다.

가령 만화가 도솔천 외원궁에 그의 예상에는 맞지 않게 태어난 이래의 행복은 그것을 시간으로 잴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지옥계에 태어난 남각은 그의 염원 그대로 그곳에서 모진 고통을 받는 중이다. 그런 지옥의 고통에도 실로 수많은 종류의 극단적인 고통이 있다. 남각은 그런 고통 중의 몇가지를 받은 나머지 이미 제대로 의식과 감정을 추스릴 여지도 없는 생명의 폐허가 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다가 지옥계의 중생 이동일정에 따라 고지옥(孤地獄)으로 밀려가 다시 태어난 것이다. 고지옥은 반드시 수미산 밑의 지하 깊은 곳에 있지 않고 도리어 그가 살던 조선땅 서해안이나 다를 바 없는 사바세계의 어느 곳이었다.

아니 그곳은 고대의 동서 문명과 무역의 통로였고 천축의 불교가 중국대륙으로 넘어오는 통로였던 멸망한지 오래되는 나라의 유적지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너지다가 만 전탑(塼塔) 하반신이 모래언덕에 파묻혀 있는 곳이었다. 바로 그런 고독하기 짝이 없는 사막의 절망 가운데로 태어난 남각은 그곳에서 열사(熱砂)의 엄청난 뜨거움과 그와 반대인 혹한의 밤을 남루한 홑옷 한벌을 너덜너덜 걸치고 견디는 고통과 끊임없이 온몸이 쑤셔대는 고통 그리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그 막막한 고독의 고통 따위로 살아가는데 그 고통들이 언제까지 갈것인가를 따지는 일은 지옥의 영역에서 헤아릴 수 있는 시간으로 보아 전혀 무의미한 일이다.

바로 이같은 남각의 지옥 체험을 석가보살이 사바세계로 내려간 이래 다시 미륵보살이 맡아 그 미륵보살의 빛을 통해서 지옥중생을 살피다가 문득 한군데의 고지옥 사막에 시야의 초점이 맞춰져서 남각을 볼 수 있었다. 이같은 확인은 도솔천 외원궁에 있는 신참의 보살인 만화의 간곡한 호소로된 일이었다.

내원의 미륵보살이 외원의 만화에게 알렸다.

"만화보살. 그대가 그렇게도 찾고 있었던 남각이라는 지옥 중생을 찾을 수 있었다네."

"보살이시여! 정녕 기쁘옵니다."

"그 기쁨 이전에는 기쁨이 없었다는 말인가?"

"아니옵니다. 이 천상락(天上樂)을 어찌 모르겠사옵니까? 하오나 제 전생의 반려(伴侶)였던 남각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아오니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한층 더할 따름이옵니다."

"남각은 지옥 공부를 잘하는 것 같네."

"그러하온데… 보살이시여 보살께서는 도솔천자(兜率天子)이시기 때문에 지옥천자이시기도 하옵니다. 보살의 빛 자비의 빛으로 그를 이끌어 올려 이 도솔천에 태어나게 하면 어떠할지요."

"만화보살, 그대는 때로 너무 다급한 발원(發願)을 일삼고 있네그려. 꼭 옛날의 석가보살과 비슷한데가 있네…"

"황공하옵니다."

"여보게 만화보살. 사바세계에도 한 여왕이 이 세계에 대하여 몸시 겸손해져서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신하들에게 그보다 아래인 도리천에 태어나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했다지 않은가? 신라의 선덕여왕이 아마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녀도 지금은 도리천의 수명을 다하고 나서 그를 사랑했던 사나이 지귀(志鬼)가 형체없는 중생으로 태어나 공중을 떠도는 곳으로 가서 형체 없는 중생이 되어 함께 떠도는 중이지만."

"보살이시여."

이제 만화는 남각을 구제하려는 뜻을 더 재촉할 수 없이 제 처소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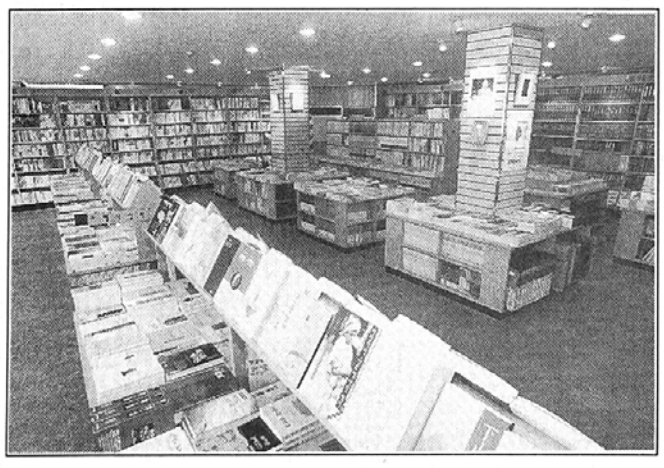
내원궁은 외원궁에서 함부로 드나들 수 없다. 다만 내원궁의 보살이 외원궁에 드나드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외원궁으로 미륵보살의 시자(侍者)인 이생(爾生)보살이 나타난 것은 며칠 뒤의 일이다. 그 며칠이라는 것도 사바세계 인간계의 시간으로는 얼마나 장구한 것이겠는가.

그림·조향숙

"남각은 지옥공부를 잘하는 것 같네"
"보살이시여, 보살의 빛 자비의 빛으로 그를 도솔천에 태어나게 하면 어떨지요"
"만화보살, 그대는 너무 다급한 발원을 일삼고 있네 꼭 옛날의 석가 보살과…"

불을가득, 법향가득
개점 1주년
책방 여시아문
개점 1주년,
책방 여시아문의 성장은 곧 불교문화의 성장입니다



독서회원 가입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서점 발행 신간안내 소식지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의 충직한 서비스로 알찬 독서생활을 만끽하십시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님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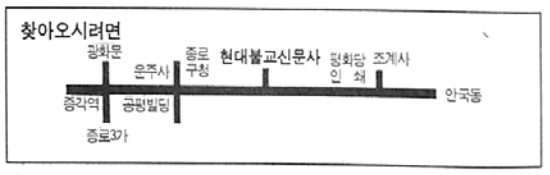
통신판매
미처 회원가입을 못하신 고객 여러분도 전화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서적을 신청해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며 우송료는 본 서점이 부담합니다.


종로에 나오면 항상 이곳에 들러요. 조용히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책을 고르다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회생)


저야 뭐, 항상 내 집처럼 드나들죠. 책방 여시아문과 같은 문화공간들이 어서어서 자리서 불교발전에 기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교극단 「바람」 대표)


이렇게 번듯한 불교 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참 좋으네요.
(주부)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팩스 : 737-0696

찾아오시려면


독 자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또 현대불교에 대한 의견·지적사항·제안 제보도 받습니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02)722-4162 FAX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HBS3470

나의 의견

정신대 할머니 보금자리 '나눔의 집' 기공소식 흐뭇

광복 50주년을 맞이해 아직도 진정한 광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정신대할머니들이다. 매주 수요일 정오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얼마전 한국정부가 합의한 민간모금안에 대해 분노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할머니들은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잃어버린 명예회복을 바라는 것이지 단지 돈몇푼 던져주는 값싼 동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불교계가 얼마전 경기도 광주 퇴촌면에 정신대할머니를 위한 안식처인 '나눔의 집' 기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불자들이 뜻을 모아 건설하게된 나눔의 집이 하루속히 완공돼 정신대할머니들의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길 빈다.

이와더불어 단순한 공간마련에 그치지 않고 그곳을 기점으로 이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지 않은 할머니들의 마지막 소원인 일본정부의 사죄와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순천 서울 종로구 혜화동〉

어린이 집 자원봉사 참여 자비·평등의 가치 되새겨

불교자원봉사연합회에서 주최한 95청소년 자원봉사에 참여한 나는 지난 9일 대부도 쌍계사 동지어린이집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많은 것을 느꼈다.

부모없는 아이들이 스님의 보살핌 속에서 생활하는 둥지어린이집에서 다른 자원봉사자 친구들과 빨래를 하며 손으로 하는 빨래가 그렇게 힘든 줄은 처음 알았다. 빨래, 청소, 설거지 등 기본적인 일들이었지만 봉사하는 그 자체만으로 가슴이 뿌듯한 하루였다.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지도 못해 불교를 잘 알지도 못하지만 불교의 정신이 자비와 평등이라는 것을 봉사활동을 통해 다시금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앞으로도 불교계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넓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함께 도우며 참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임창희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불심으로 갈등벽 허물어 제2광복 '통일' 앞당겨야

광복 50주년을 맞아 민족 대화합의 길을 여는 제2의 광복인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민족동질성의 확보가 우선입니다.

종교를 아편시해 온 북한에서도 불교만은 외래 종교가 아닌 민족종교로서 거부감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불교는 1천6백년간 민족의 대동맥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민족문화의 근간이 되는 불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종교적 감성을 공유해 나갈 때 막혔던 마음의 벽이 눈녹듯이 사라지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보살심이 절로 발해 대화합의 통일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한민족의 가장 큰 쇠말뚝이었던 구총독부 첨탑이 제거된 이제 민족의 정기가 되살아나고 증오와 갈등 사라진 자비의 정신이 충만된 불국토가 멀지 않을 듯 합니다.

뒤늦게나마 민족의 자주성을 확인하는 광복 50주년 행사를 통해 우리 자신의 문화와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세계' '통일된 민족'을 위해 우리 불자들의 서원을 모아야겠습니다.

수천년을 끊어지지 않고 이어온 한국불교의 전통을 되새기며 이 큰 저력으로 민족통일의 에너지를 삼을 수 있는 기틀을 우리 불자들이 마련해야 합니다.

〈최태영 인천광역시 남인천세무서〉

봉선사 누각앞 잔디앞에 돗자리깔고 피서 '안될 일'

유난히도 무더웠던 며칠전. 나는 가족들을 이끌고 경기도 광릉 수목원에 들렀다 오는 길에 평소 가끔 찾던 봉선사에 들어서자 마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봉선사 누각 앞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신성한 부처님 도량에 왔으면 삼배를 해야지, 몰상식한 행동으로 절에 들어서는 모든 이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다니.

그곳 봉선사뿐만 아니라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 사찰들에선 그것보다 더한 풍경이 벌어졌으리라 생각하니 참으로 한심 할 지경이었다.

아무리 사회가 문란해졌다 하더라도 사찰과 같은 신성한 곳에서만큼은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이 진정한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

〈박선영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참선이 첩경이라지만 마땅히 배울 만한 장소나 스승을 만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잡다한 일상 생활에서 늘 여여(如如) 할수 없었으므로 이번 여름 대흥사 참선 수련회는 내가 평소 바라던 일이었다.

대흥사입구 소나무, 벚나무, 단풍나무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그 장관의 숲 터널이 나의 눈길을 놔 주지 않았지만 오후 2시부터 일체 묵언(默言)으로 4박5일 재가자들의 출가는 시작되었다. 법복으로 다같이 갈아입고 첫날 저녁부터 시작된 발우공양에서 누리 퇴수물에 김치쪽을 씻어 퇴숫물이 뻘겋게 된 줄도 모르고 나도 그냥 주루루 붓고보니 아! 어쩌랴 퇴숫물 부은 네사람이 다 나누어 마시고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었다.

새벽3시 예불과 백팔배로 시작된 일과는 참선에서 참선으로 이어졌다. 기존의 나의 틀을 벗어버리고 식사하는 법, 걸음걸이, 손과 눈길 두는 것하며 수시로 이뭣고 잘 있는지 챙겨보라는 원장 지수스님의 참선 지도는 자상 하면서도 확실했다. 어른노릇만 해야하는 이 나이에 언제 우리 잘못을 면전에서 지적받을 수 있었던가, 생각해 보니 코끝이 찡해지면서 그만 응석이라도 부리며 마냥 기대보고 싶은 심정이었다.

"싫고 좋음을 구별하기에 정신을 빼앗기고 살았던 나자신을 돌아보는 계기"

호흡도 천천히 맥박도 천천히 모든 것을 가라앉히고 휴식하라. 마음의 눈으로 단전을 지그시 응시하고 눈은 반쯤 뜨고 망상이 끊어지지 않으면 주인공아! 부르고 예! 대답하고 이뭣고? 해보라. 특히 잠들기 전 일념에 화두를 챙길 수 있게되고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 콘트롤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화두를 들고 부터 미리부터 걱정하는 버릇이 없어지고 별로 피곤할 줄 모르고 지낸다. 아마도 싫고 좋은 분별심으로 하여 늘 피곤하게 살았던 것 같다.

원장 스님의 말씀과 청량제같은 장군죽비맛 오랫동안 내 가슴에 남아있을 것이다.

〈안정환 서울 압구정동〉

이리후 건강칼럼 <30>

스트레스와 암

바이러스 증식 돕는 단백질 증가 암유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안될까요?"

병원의 외래를 찾아오는 많은 환자분들이 갈망하는 바램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명현상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동안은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살아가지는 못한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외상이나 한냉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과 같은 이상자극을 통틀어 말한다. 원래 스트레스란 어원은 무엇을 조인다는 뜻이니 우리 몸과 마음을 압박하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가령 날씨가 몹시 춥다는 것은 우리 신체 체온의 항상성을 위협하는 신체의 압박조건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면 비탄스런 정서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될 조건이 된다.

이처럼 사람들이 살아 생명현상이 있는 동안은 외부의 조건들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근자에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범위가 여러 영역으로 넓어져 감에 따라서 스트레스는 신체 정신적인 건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혀내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 옛부터 전해오는 지혜는 경험적으로 마음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생활 속에서 터득하고 마음 닦음을 질병 예방의 방편으로 삼았었다.



근착 외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미국의 정신보건연구원 연구팀이 밝혀냈다고 전한다. 스트레스가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이유는 스트레스에 의해 분비되는 호르몬이 우리 체내의 면역세포에 달라붙어 바이러스의 증식을 돕는 단백질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란 것을 밝힌 것이다.

암이 바이러스와 관계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의학에서 스트레스가 바이러스를 증식시키고 있다는 짐작은 벌써부터 해왔으나 이번처럼 구체적인 호르몬이 어떤 형식으로 분비되어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드문 일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반응으로 분비되는 '코트리코르르핀 분비 호르몬(CHR)'이 많이 분비되어 면역세포에 달라 붙게 된다. 이런 현상의 결과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돕게 되고 바이러스가 증식된다는 것은 암을 일으키게 된다는 뜻이다.

언젠가 이 칼럼에서 사랑이 결핍되면 감기가 잘 걸린다는 이야기를 쓴 적이 있는데 사랑이란 자극은 인체의 면역을 증가시킨다. 반대로 스트레스는 인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돕는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암을 유발시킨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 악(惡)의 장 *
죽음에서 벗어날
그런 세계는
어디에도 없다



이 향 원



구천을 떠도는 어린 영혼들이여, 편안히 떠나소서



생명을 빼앗기고 사라져간 수많은 태아들 그들을 위한 천도재가 올려진다.

"태아를 죽인 죄를 지었더라도 참회하고 태아의 영혼을 위해 천도 공양하면 죄업이 소멸되고 이고득락(離苦得樂)한다" 이미 지은 낙태의 죄로 윤회의 업속에서 고통받지 않기 위해, 또 선업(善業)을 쌓아 좋은 과보를 받기 위해 우리는 생에 대한 집착과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이승을 떠돌고 있는 어린 영혼들을 천도해야 한다.

이 책은 <불설포대경> 등 불교의 여러 경전을 통해 낙태의 죄악성 및 태교의 기술, 그리고 이미 행해진 낙태행위에 대한 참회와 영가천도의 방법을 제시하고, 부록으로 '오십삼존불경' 법요집을 수록하고 있다.

297면/5,500원/신국판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강 자 우 편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2동 320 개암빌딩 밀알 전화 5290140~5 팩스 5792312

세속의 가치에 등 돌린 선사(禪師)들의 이야기!

고우영 禪 만화 달마의 제자들



나라의 군주나 정치가들보다
백성들에게 더 존경받던 힘없는(?)
선사(禪師)들. 비단 옷에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은 없어도
속세의 가치에 허리를 굽히지 않던 정신의 스승들.
부정부패, 부실공사, 정치비리에
마음 상한 현대인들의 정신적 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달마의 제자들.
초조 달마대사로부터 성철 큰 스님에 이르는
스물 두 분 선사들의 후련한 이야기!

신국판/280쪽/값 5,500원
■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불지사 우편번호/100-392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8-6 뉴장충빌딩 3층
편집부 (02) 277-2676 / 영업부(02) 263-1941~3 / FAX (02) 263-1946



◇흑인촌에 마련한 아파트에는 법회 때마다 수십명의 불자들이 모여 참선을 지도받았다.

모든 이들의 **안락을 위하여** <7>

지구촌 전법이야기

숭산 스님 ⑦

좁은 아파트 합숙하며 참선지도

시주없어 세탁소에 취직… 방문 신도 갈수록 늘어

미국행 비행기에서 만났던 김정선 교수를 다시 만난 것은 보스톤에서 1시간가량 차를 달린 후였다. 그곳의 학생 너 댓명이 미리 교수의 집에 와 있는 것을 보고 행원스님은 놀랐다.

"스님, 반갑습니다. 스님이 오신다니까 이렇게 학생들까지 찾아 왔군요. 다들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김교수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스님과 학생들사이에도 간단히 인사가 치러졌다. 그리고는 스님을 중심으로 둘러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사실은 이야기를 나눴다기 보다는 "불교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오"라는 교수의 청에 대해 행원스님이 법문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관은 금방 깨지고 말았다. 행원스님이 '선이란 무엇이냐' '불립문자요 직지인심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를 이야기 하면 그 통역을 김교수가 하는데 의미가 바르게 전달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기야 '언어도단'과 '불립문자'의 뜻을 서로 다른 언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되지 못할 일이기도 했다. 불교를 가르치는 이야기관은 깨졌지만 학생들은 스님과 좀더 오래 만나며 조금씩 배우고 싶다고 청했다. 이미 미국포교에 뜻을 세운 뒤인데 무엇을 망설일 것인가.

행원스님은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얻었다. 그리고는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참선을 지도했다. 역시 말이 안통하는게 큰 어려움이었다. 스님이 아무말 없이 방석을 깔고 가부좌를 틀면 학생들도 그것을 따라했다. 죽비 소리에 맞춰 앉고 또 일어서 움직이는 것으로 참선을 지도하는데는 아무래도 답답한 그 무엇이 있었다.

왜 그렇게 앉고 앉아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설법을 해야 했다. 빈 깡통에 흙을 퍼 넣더라도 그 이유와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 열의에 찬 학생들을 그저 멍청히 앉아 있게만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권법이긴 했지만 최면술을 조금씩 써가며 학생들에게 단전호흡법을 가르치는 한편으로 간단한 말로 선(禪)의 목적 등을 설명했다. 통역하는 김교수도 무척 힘들었겠지만 내색은 않고 늘 즐거운 표정이었다.

다시 흑인촌으로 아파트를 옮겼는데 참선을 배우러 찾아오는 신자가 30여명이나 됐다. 그곳에 브라운대학의 프르덴 교수가 찾아 왔는데 그는 일본말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동경대학에서 인도철학을 공부하고 하바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스님에게 참선을 배우고 싶다며 스스로 찾아 온 것이었다.

프르덴 교수가 일본말에 능했던 것이 스님에게만 반가운 일일 수 없었다. 30여명의 학생들에게도 해당되는 반가움이었다. 이제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스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스님이 일본말로 뭔가를 얘기하면 프르덴교수는 답박에 그것을 영어로 옮겨 들는 이의 귀를 열어 주었던 것이다.

매주 아파트가 메어지도록 사람들이 몰려왔다. 50명, 60명, 90명… 이렇게 참가자가 많은 법회를 열어 나가다 보니 살림살이가 궁핍해 질 수 밖에 없었다.

보시나 시주가 무엇인지 알 미국신도는 없었고 그것을 강요할 형편도 못 되었다. 할 수 없이 행원스님은 세탁소에 일자리를 얻었다.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한 달 품삯도 2백50불 이상을 받지 못했다. 영주권 있는 사람의 6백~7백불에 비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월급이었지만 달리 항변할 문도 벽도 없었다.

반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지나 갔어도 지루하지 않았다. 매일 찾아 오는 사람에게 참선을 가르치고 금요일 밤에는 정기법회를 가지며 지내는 동안 아예 스님의 법당에 들어 와 살겠다는 사람도 한 두 사람씩 생겼다.

"마음 자리를 하나로 하려는데 같이 못 살 것도 없지. 들어와 살도록 해요."

스님과 그들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 함께 예불하고 참선하고 그렇게 단체생활을 했던 것이다. 입이 많다보니 먹거리의 소모도 만만치 않았다. 밥에 두부와 김치와 물을 넣고 끓여 주어도 그들은 맛나게 먹었다.

"스님, 오늘은 저희가 식사를 짓겠습니다."

"그래 보시오."

그들은 빵이니 우유등속을 장만하고 쌀을 구해다 밥을 짓기도 했는데 제법 밥이 잘 되었다. 함께 살면서 간단한 말과 몸짓의 의사소통만 가능해 진 것이 아니라 밥짓는 일까지 배우게 된 것인가 싶었다. 그런데 그 잘된 밥을 그릇에 퍼담은 한 제자가 다시 물을 붓더니 끓여서 내왔다.

"아니 밥 잘 지어서 이게 뭐야."

의아해 하는 스님께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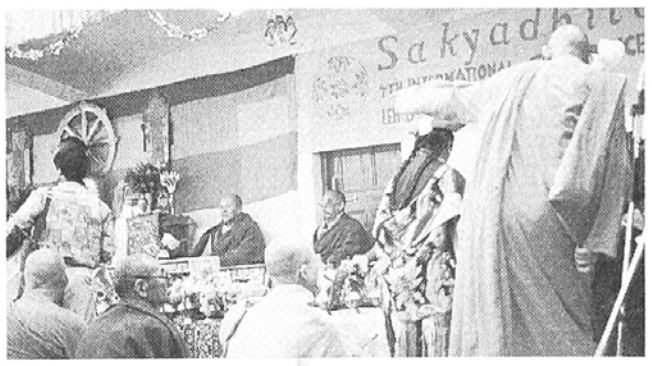
"전에 스님이 이렇게 끓는 물을 부어 드셨잖아요."

"하하하, 그것은 찬밥이어서 그렇게 먹은 것이지…."

임연태 기자

□ 인도 라닥 제4차 세계여성불교도대회

21세기 새 여성불자상 모색



◇북인도 라닥의 마하보디국제명상센터에서 열린 세계여성불교도대회는 여성불자들의 화합과 역할증진을 한층 앞당겼다.

남방 비구니 종단결성등 연대방안 열띤 토론

20개국서 2백여 여성불자 참가

제 4차 세계여성불교도대회(Sakyadhita)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북인도 라닥에서 국제여성불교도연합(IABW), 라닥신도회, 라닥여성신도회의 주최로 개최됐다.

'21세기의 여성과 자비의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 태국,일본, 독일 등 20개국 2백여명이 참여해 불교여성성직자의 변화·불교, 여성 그리고 정의·테라바다전통에서의 비구니종단의 잃어버린 역사·티벳에서의 여성과 불교·전통과 적응(서구사회의 불교정착)·불교와 여성건강·불교와 심리요법의 접합 등에 대한 강연과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태국, 스리랑카, 버마등 남방불교국가의 비구니 종단 결성이 주요 논제로 대두돼 이에 대한 방안등 열띤 토론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와함께 대회에 이어 열린 회의에서 여성불자들은 라닥지역 출가여성들의 교육시설마련을 통한 사회적 지도자 양성등에 대한 지원을 결의 하고 이를 위한 '여성과 불교 조사기구(Women and Buddhism Research)'를 결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임 회장에 스리랑카대표인 라자니 드 실바, 신임부회장에 일본인 히로코 카와나미가 각각 선출됐으며 서기에는 까르마 렉슈 소모가 재임됐다.

한편 티벳승왕인 달라이라마는 특별 메시지를 보내 "세계여성불교도 대회를 통해 실질적인 결과가 있길 희망하며 세계여성불교도의 더욱 굳건한 연대와 수행으로 불교포교의 막대한 책무를 다해 줄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은자 기자

부처님 가르침 통한 세계평화 여성역할 증진 추구

세계여성불교도 대회란

국제 여성불교도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Women, IABW)이 주최가 되어 거행하는 행사로 일명 샤카디타(Sakyadhita, 부처님의 딸들)라고도 불린다.

국제여성불교도연합은 지난 1987년 인도의 보드가야에서 태국불교학자 챠수만 카빌씽 박사, 티벳불교에 귀의한 미국인 까르마 렉슈 소모, 태국불교에 귀의한 독일인 아야케마 등 3인에 의해 주도 결성됐다.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으로 세계평화 증진·여성불자들의 정보교환체계 형성·다양한 불교전통사이의 화합과 이해증진·여성의 교육과 수행시설의 개선과 개설·불교에서 승가의 계율과 여성의 역할 연구 등 다양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시작된 모임이다.

제2차 대회는 1991년 방콕에서 '다양성과 통일'이라는 주제로 열렸고, 제 3차 대회는 93년 스리랑카에서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불교여성'이란 주제로 열렸다.

여성불교도라면 누구나 이 샤카디타의 회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샤카디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1년에 10달러의 회비를 내면 샤카디타의 모든 행사에 참가할 수 있고 각종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주소 : Sakyadhita
400 Hobron Lane, #2615
Honolulu, Hawaii 96815
U.S.A

운월스님 참가기



◇운월스님

세계여성불교도대회가 열린 북인도의 라닥은 고도 3천8백미터의 고산지대에 다시 사방이 석산으로 둘러싸이고 그 위로 파아란 하늘이 유난히도 가깝게 느껴지는 곳이다.

옛부터 티벳불교의 영향을 받아 티벳문화와 불교문화가 젖어있는 라닥은 민속춤까지도 스님들께 공양올리는 모습을 묘사하였다고 하니 그대로 불국토인 듯 했다. 가정마다 불단을 모신 방이 따로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정수 공양을 올리며 일년에 적어도 한번은 스님들께 공양 청해서 하루종일 경을 읽는다고 한다. 그곳 라닥의 남쪽에 위치한 마하보디 국제명상센터에서 7일간의 일정으로 세계여성불교도대회가 개최됐다. 8월 1일 대회 첫날 민속악단과 무용대의 시내행진을 따라 개최장인 마하보디국제명상센터까지 카 퍼레이드를 하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세계 여성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에서는 나를 비롯 3명의 비구니 스님이 참가했지만 고산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 나 혼자 끝까지 대회에 참가 할 수 밖에 없었다.

새벽에는 참선을 하고 아침 공양후에는 세미나가 계속되었으며 오후 공양후에는 각 나라의 전통예불이 진행됐다. 나 또한 5일 저녁에 한국전통식 오분향과 반야심경으로 예불을 하기도 했다.

세계 20개국에서 온 2백여명의 여성불자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는 다양한 주제강연이 펼쳐져 많은 관심을 끌었다.

생태의학적인 측면에서 출가수행자의 정신적 생리적 관계를 설명한 '불교와 여성건강' 강의, 정신적인 방황을 겪고 있는 서구인들이 참선등 불교의 수행방법으로 정신치료를 돕는다는 '불교와 심리요법의 접합' 강의 등이 특히 시선을 끌었다.

또한 '전통과 적용(서구사회의 불교정착)'에서는 불교에 심취해 출가하려는 서구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이를 위한 방법안내와 출가후 수행자로서 정착하기까지의 대책부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식 수계와 교육, 출가후의 안정적 지원책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 주제강연후 토의를 통해 올 겨울쯤 이를 위한 실무자들의 회의를 다시 열기로 결의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대회에서 회장에 새로 선출된 스리랑카의 라자니 드 실바는 세계여성불교도 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샤카디타의 회원을 확대, 그 역량을 키워

건강·수행·일상생활등 다양한 주제설정 돋보여

사회봉사등 현실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계속되는 강연과 토의 일정속에서도 각국의 참가자들은 모두가 부처님의 딸들이란 마음으로 자기 나라의 전통무용을 선보이기도 하고 아이들 교육이야기등 일상생활이야기로 서로간의 벽을 허물었다. 또 옛날 예수가 수행했다고 전해지는 라닥의 중요 성지인 헤미스곰파 사원을 방문해 아미타부처님의 원만하신 상호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발심을 내기도 했다.

이번 대회는 모처럼 세계여성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고민을 토론하고 불교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다짐한 소중한 기회였다.

세계화시대를 맞아 한국의 비구니스님들과 여성불자들도 이같은 행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느껴졌다.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써 한국불교를 더욱 널리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동국대대학원 선학과 박사과정〉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

2천 5백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금강경〉은 다이아몬드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다!
'그대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우는 인생의 큰 스승
오쇼 라즈니쉬! 그만의 독특한 깨달음의 언어와 강의법, 탁월한 삶의 인식으로 '우리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운다.
어떠한 집착도 번민도 없는 무상도의 세계, 구름 너머 저멀리, 깨달음의 밝으로 인도하려는 그의 노력이 우리에게 시공을 초월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
삶에 찌든 우리에게 샘물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신국판 / 432면 / 값 7,000원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갑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라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한다.



오쇼 라즈니쉬! 그는 참초가 무성한 법구경이라는 밭을 완전히 갈아 엎는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깨달음의 씨앗을 뿌린다. 우리는 그의 법구경 강의를 통해 고타마 붓다의 시대로 돌아간다. 스승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깨달음의 언어, 방금 건져올린 물고기처럼 생동감 넘치는 삶의 지혜, 그 무한정의 감동이 우리를 압도한다.

법구경 (上)(下)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전2권 / 각권 값 6,500원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112 가지 명상비법 무삭제 완역공개
인생을 무덤덤하게 살 것인가? 황홀하게 살 것인가?
목마른 영혼만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고민이 없이 삶에의 무지와 무관심, 무감각에 빠져 버린 메마른 의식과 안일한 삶의 태도에서 이젠 깨어나십시오!
인도 5000년의 지혜 「비그아나 바이라바 탄트라」
국내 출판 사상 최초 완역본!



탄트라 비전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전4권 / 각권 값 6,500원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를 아십니까?

이 존재들을 모른다면 지성인이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인간 정신의 가장 차원 높은 지적 유희가 바로 선(禪)입니다
이 존재들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당신은 초범입성(超凡入聖)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조가 당신을 만난다면 그 즉시 당신의 머리를 베어버릴 것이고,
조주는 그 남은 몸뚱어리를 부처의 몸으로 조각할 것이며,
임제는 부처의 머리를 가져다 그 몸에 붙여줄 것이다.



마 MATZU 조 — 인간이라는 동굴의 몽롱한 정신적 소유자 조주의 신과 영상의 세계 /
조 JOSHU 주 — 달마대사의 거보(巨步)를 앞지른 마조선사의 빛나는 즉적 /
임 RINZAI 제 — 고금을 통하여 선(禪)어록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임제선사의 생생한 육성의 가르침 /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각권 값 5,000원

태일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36 대표전화927-2831 팩스924-3236

몽골불교 현장을 가다

특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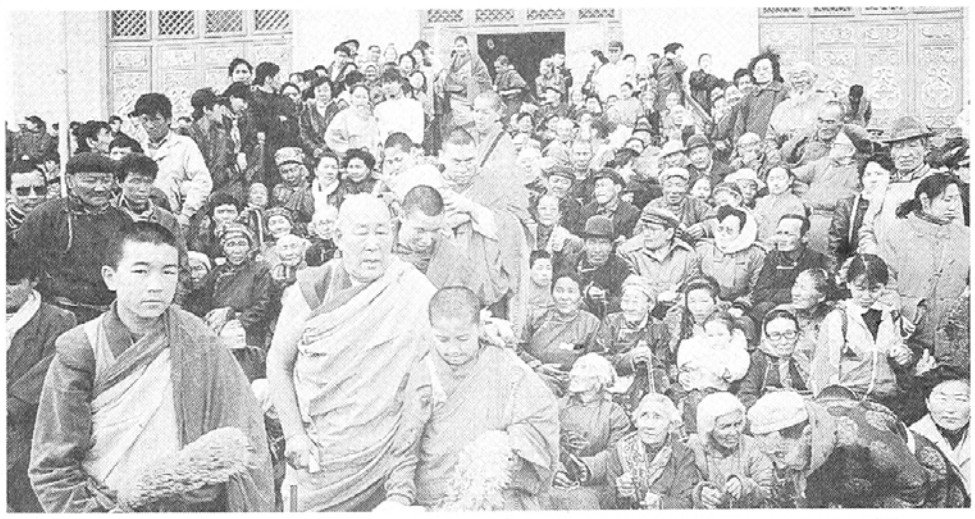
민주화 바람타고 중흥불사 한창

4년새 사찰 132곳 건립…자동차마다 만다라 탱화

한국불교 공식교류 없어…기독교 선교사·병원 상륙

구 소련이 무너지면서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는 몽골은 민중 속에 남아있던 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가장 몽골적인 것이 불교다'는 기치 아래 '몽골식 우리것 찾기'에 나선 것이다. 한때 전세계를 호령하던 징거스칸 후예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불교. 21세기를 앞두고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몽골불교의 현장을 찾았다.

〈편집자 주〉



◇몽골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모든 생활을 불교의식에 따른다. 불교행사에 참석한 몽골스님과 불자들.

몽골의 수도 울란바트르의 거리에 서 있다 보면 국내의 작은 도시를 찾은 착각에 빠진다. 주변 미관을 고려치 않고 듬성듬성 세워져 있는 사회주의식 건물을 빼고 나면 전쟁후의 한국땅이다. 엉덩이에 푸른 반점이 있는 같은 인종이고 다만 언어만 다를 뿐이다.

몽골인들은 아직도 대부분 전통의상을 고수하고 있다. 그들의 의상을 유심히 살펴보면 염주나 불교달력 호신불을 찾을 수 있다. 또 거리를 지나가는 자동차의 앞유리에는 어김없이 작은 만다라가 매달려 있다. 몽골인 모두가 불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증표다.

간단사 대규모 관음상 조성

몽골은 요즈음 국민적 축제를 준비하느라 부산하다. 8월25일 달라이라마가 몽골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기 위해 25일을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울란바트르의 서북쪽 언덕에 자리한 몽골에서 가장 큰 사원인 간단사도 세계 최대의 관음상을 조성하는등 달라이라마를 맞기위한 단장으로 어수선하다.

간단사는 전형적인 몽골사원 양식을 갖추고 있다. 대웅전, 관음전을 비롯한 10여동의 전각이 짜임새 있게 자리해 있다. 간단사에는 도서관, 박물관, 장경각과 승가대학, 총무원이 자리해 있어 명실상부한 몽골불교의 센터다.

특히 간단사 승가대는 유일한 인재양성기관으로 그동안 2백여명의 승려를 배출했다. 이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공산주의자들이 파괴한 사찰을 다시 세우고 후학을 가르치고 있어 몽골불교의 앞날을 밝게한다.

몽골의 불교는 티벳에서 형성된 라마교다. 살아있는 부처 라마가 종교와 정치를 총괄하는 승·정일치다. 아직도 티벳 라마교의 자취가 처처에 남아있다. 사찰양식이나 만다라가 그렇다. 또한 몽골인의 이름이 대부분 티벳어인 것은 스님들이 이름을 지어주기 때문이다.

1920년대 초반,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면서 몽골불교는 처참하게 말살되었다. 그러나 50여년간 지속된 공산주의 정권에도 민중속에 남아있는 불심은 없애지 못했다. 집집마다 모셔놓았던 불상과 탱화는 빼앗겼으나 항상 기도하는 마음은 손댈 수 없었던 것이다.

몽골인은 생활이 곧 불교

이러한 신심은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불교를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 공산정권이 물러난지 4년이 지난 지금 몽골에는 울란바트르에 15개와 전국 1백32개의 사원이 다시 세워졌다. 승려도 3천명을 넘고 있어 몽골불교의 저력을 보여준다.

울란바트르에는 5개의 박물관이 있다. 그 가운데 2개는 사찰을 개조해 만든 불교박물관이다. 불교가 모든 것을 관장했기에 사찰이 곧 박물관으로 바뀐 것이다. 이 가운데 울란바트르 남쪽에 자리한 복도칸박물관은 몽골의 마지막 승왕이 거처했던 궁궐이자 사원으로 융성했던 불교의 옛 영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곳에 보관된 불상과 만다라, 경전 등은 몽골에서도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몽골은 최근 민주화의 물결 위에 떠있다. 급격한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은 젊은층 가치관을 흔들어 놓기도 한다.

최근에 또다른 변화는 한국 기독교의 선교활동이다. 얼마전 기독교 선교사로 구성된 한국평화봉사단 30여명이 입국했다. 이들은 몽골 각지로 흩어져 2년동안 봉사활동을 앞세워 선교활동을 펼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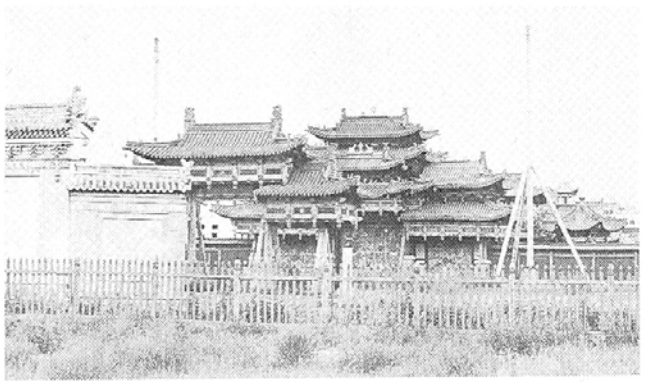
개신교 의료진의 진출도 활발하다. 지난해 7월 연세병원이 울란바트르에 병원을 세웠다. 몽골에서 가장 최신시설을 자랑하는 병원이다.

자신도 불자라고 소개하던 통역 바야르씨(24)는 "포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반문하며 "몽골인은 생활자체가 곧 불교이기에 굳이 불교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몽골의 경제사정으로 볼 때 개신교의 깊은한 선교활동은 궁핍했던 시절 외래종교가 활개치던 한반도를 연상케 한다.

가난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온 몽골인. 50년 억압속에서도 흔들림 없었던 불심이 계속되는한 몽골은 영원히 부처님 땅으로 존재할 것이다.

울란바트르=이준엽 기자



◇울란바트르 남쪽에 자리한 복도칸 박물관. 몽골의 마지막 승왕 잡춘람바 8대가 주석하던 궁전겸 사원으로 옛 몽골불교의 영화를 엿볼 수 있다.

몽골이 전세계를 지배하던 원나라 때 한 집에 장군 한 명이 나왔다. 그후 16세기는 티벳에서 라마불교가 전래되었다. 이후 몽골의 집에는 장군대신 승려가 한명씩 나왔다.

이렇게 몽골의 불교는 3백여년동안 경제, 문화, 정치를 망라해 생활속에 젖어들었다.

인터뷰

몽골 불교 최고지도자

쵸잠츠 스님



"공산당 탄압때도 佛心은 여전"

"한국 분단 불법으로 허물 수 있어"

몽골불교 인재양성·사찰건립 시급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국에는 몽골불교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몽골불교의 역사는 3백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티벳에서 불법이 전래되었으나 위대한 스님들이 많이 나와 독자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몽골의 풍습과 생활에 따라 점성술, 의술, 철학 등이 크게 발달해 쉽게 불법이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가장 몽골적인 것이 불교라 할 수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스님이 이름을 지어주고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혼, 생일, 병들거나 죽었을 때 등 모든 생활이 불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승·정일치로 잡춘 람바 8대가 승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불교가 말살되었다고 하는데 암울한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요.

▲1936년 스탈린이 불교말살을 갑자기 단행해, 린포체를 포함한 대승려 1만7천명이 학살되고 전국적으로 7백여개의 사찰이 폐허가 됐습니다. 당시 외형상으로는 몽골에 불교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신·구·의 삼업에 의해 불법이 이루어 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정권이라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마음만은 막지 못합니다.

부처님 믿는 마음만 남아 있으면 불법은 멸하지 않습니다. 몽골의 민중은 경전을 외우지 못하고 절에 가지 않아도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몽골 민주주의가 일어나자 절을 건립하고 스님들이 다시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몽골은 오랜 기간의 공산주의로 정치, 경제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종교나 문화발전에는 더욱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스님은 몽골불교의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몽골불교는 스님양성과 사찰건립이 가장 시급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불교계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적극 나서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제악화로 아직 큰 도움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교계 자체의 힘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저희는 우선적으로 간단사에 있는 승가대학에 주력하여 인재양성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대대적인 포교행사를 펼쳐 신심을 일으키고 사찰건립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세계는 전쟁, 인권, 환경 등 많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요즈음 사람들은 자동차, 컴퓨터 등의 기계에 의존해 몸을 움직이지 않고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생활이 편리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하고 불행합니다. 사람에게는 정신이 중요하건만 행복을 밖에서만 찾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자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찾는 정신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려움이 소멸되지요.

-한국은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민족 분단국가입니다. 통일을 위해 스님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통일문제 또한 불교를 통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티벳을 볼 때 독립된 티벳과 중국자치주 티벳이 있으나 모두가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싸우지 않고 융화하려는 부처님 가르침에는 봄눈 녹듯이 사그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몽골은 민주화와 함께 외래종교의 선교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교간의 갈등은 없는지요.

▲90년대 들어서 한국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몽골에 들어와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의 자유입니다. 저는 몽골인들이 다른 종교를 보고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진실하다면 믿으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선교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종교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가 발전하면 결국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으로 나뉘어 경쟁을 하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종교는 사람이 행복하자고 생긴 것인데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종교는 이런 것이다는 것을 진실되게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불자들에게 인사말을….

▲한국 불교도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친하게 살아갑시다. 또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엽〉

생전 예수재의 공덕



▲신국판 64페이지

생전 예수재의 의미, 유래, 공덕, 전 생의 빚과 량, 예수재의 재단설치, 의식절차, 저승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예수재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서 예수재 행사 동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으며 불자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 법회안내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법보시 가격/1권당 1,000원
- 맨 뒷장에 법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

생전 예수재 용품 보급안내

저희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39년 윤달을 맞아 생전 예수재 용품을 2가지(1,000원, 2,000원)로 보급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전화주시면 즉시 납품하여 드립니다.

예수재 용품 내용물 (1,000원)		예수재 용품 내용물 (2,000원)	
지전 …1권(1권·60만)	수생경 …1권	지전(상) 1권(1권·60만)	금전 …5권(1권 720만)
천수다라니 …1장	팔대금전 …3권(1권·720만)	지전(하) 2권(1권·120만)	은전 …5권
수구다라니 …1장	은전 …3권	천수다라니 …1장	수생경 …1권
돈다라니 …1장	금강탑다라니 …1권	수구다라니 …1장	일 …1권
소다라니 …1장	금강경 …3권	돈다라니 …1장	금강탑다라니 …1권
금강경 …3권	향합소 …1개	소다라니 …1장	향합소 …1개
만관 …3만관	봉투 …1개	금강경 …5권	봉투 …1개
		만관 …5만관	

성하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들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본문 중에서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핑소에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황광우 이경옥 옮김
신국판 전2권 각권 7,500원

도서목록 불서 읽기 안내서 '볼만'

교계출판사 10여곳서 펴내… 여시아문도 소식지 정기 배포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도서목록을 비롯 각종 신간불서정보를 담은 소식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도서목록과 소식지는 매우 풍부한 출판정보를 담고 있어 꼼꼼히 챙겨두면 좋은 불서읽기의 안내서가 될 수 있다.

현재 도서목록을 펴낸 불서전문출판사는 우리출판사 민족사 불광출판부·동국대출판부 효림출판사 대원정사 대원사 장경각 경서원 등 10여곳에 이른다.

대부분 이미 간행된 출판물 목록과 표지사진을 곁들여 각 불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작게는 10쪽에서 시집 1권분량에 달하는 150쪽 안팎까지 다양하다.

도서목록은 서점과 불교단체 등을 통해 배포되고 있으며, 도서전시회나 대규모 불교행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불광출판부는 월간 '불광' 구독자에게도 배포했다.

불서전문서점도 매월 소식지를 만들어 독자들에게 신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불서총판 운주사는 '신간서적안내'를 발행한다. 현재까지 32호를 펴냈다. 불서전문책방 여시아문은 지난달부터 소식지 '여시아문'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16쪽 분량의 '여시아문'에는 1달 동안 들어온 신간불서에 대한 내용과 독자독후감 불서전문출판사 소개 등을 싣고 있다.

전체 불서를 소개하는 불교서적종합목록도 있다. 93년 불교출판협의회에서 처음 펴냈으며, 올해에도 운주사에서 발행해 독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종합목록에는 현재 서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3천7백여종의 불서를 종교·철학·과학일반, 경전, 불교문학 등으로 분류해 실었다. 또 출판사별 목록과 불서전문서점 주소록도 실어 단편적인 불서정보만 가지고도 원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꾸몄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서목록을 활용해 불서를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출판연구소의 '국민독서실태조사'(93년)에 따르면 국민의 25%가 신문·잡지의 기사 및 신간안내가 주요한 독서정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교전문서점을 제외한 서점에서는 불교코너가 작아 신간위주로 진열하고 있어 도서목록을 이용한 계획적인 불서구입이 요청되지만, 출판사 도서목록을 이용하는 경우는 1.6%에 그쳤다.

불광출판부 남동화편집부장은 "불자들이 계획적인 독서습관에 익숙하지 않아 도서목록을 이용하지 않는 것 같다"며 "도서목록도 불서읽기의 지침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충실한 내용보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판사 도서목록과 불교서적 종합목록, 서점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는 불서전문서점에서 구할 수 있다.



통일법요집 10월 발행

포교원, 청소년 법요집도

청소년 법회의 지침이 되고 법회 현장에서 실제 이용될 수 있는 법요집이 10월경 발행,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에 배포된다.

포교원은 〈청소년통일법요집〉 편찬위원회를 지난 7월 구성하고 10월까지 원고집필과 감수과정을 마칠 예정이다.

〈청소년 통일법요집〉은 한글세대에 걸맞게 모든 의식을 한글화하고 불자로서의 생활의례를 포함시켜 실제 법회 및 신행에 도움을 주도록 꾸며진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영가천혼법어	석성우	토 방
2	절로 가는 마음	신영훈	책만드는 집
3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4	하산	홍 주	불지사
5	히말라야·인도에 빠진닥터	임현담	효 형
6	삶에서 깨어나기	틱낙한	장경각
7	소설 선	고 은	창작과비평사
8	깨달음의 거울(선가귀감)	휴 정	불 일
9	나를 보게하소서	현 장	민족사
10	존재론·시간론	사이구사 미쓰요시	불교시대사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서장·대승기신론



이 동 식
(한국정신치료학회 명예회장)

1965년 봄에 역경위원의 한 사람이었던 모씨가 우리 병원에 우울증으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 사람이 대혜선사(大慧禪師)의 〈서장(書狀)〉을 꺼내 놓고 여기 저기를 나에게 물어 보는데 대답을 하다 보니 불교라는 것은 근본이 집착을 없애는 것이고 마음을 정화하는 정신치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전부터 불교나 동양의 도(道)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품은 지는 오래였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가 이 일을 계기로 불교를 공부를 하게 되었다. 당시 동국대학교 총장인 조명기박사에게 부탁을 해서 당시 조계종 교무부장었던 행원(지금은 숭산)스님을 강사로 모시고 몇몇 교수들과 〈서장〉을 공부했다. 〈서장〉은 우리나라 강원에서 중등과로 배우는 사집(四集)중의 하나로서 당나라 때 간화선(看話禪)을 주창하고 묵조선(默照禪)을 배격한 고승으로서 바른 소리를 하다가 임금에게 밉게 보여 18년인가 19년을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대혜선사에게 고관들이 서신으로서 지도를 바라는 서한을 보내온 것에 대한 답신을 수록한, 말하자면 서신으로서 도를 상담지도한 서한집이다.

서양의 정신치료 정신분석을 먼저 공부한 후라 너무나 절실한 대목이 많지만 몇가지만 든다면, 첫째로 왕내한이 다섯번째 아들을 잃고 슬픔을 호소하자 대혜는 그 슬픔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주고 울고 싶으면 울고 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퍼내고 나면 슬픔도 기쁨도 재미도 없는 경지에 이른다. 이것이 본래면목(本來面目)이라는 대목이다.

두번째로는 애웅지물(碍熊之物) 즉 가슴에 거리끼는 물건을 제거하면 각(覺)이라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몽각일여(蒙覺一如) 즉 각이면 꿈속에서도 현실을 보고 눈을 뜨고 있어도 현실을 본다는 대목이다. 중생은 꿈과 깨어 있을 때가 다르고 각성시에나 꿈속에서나 망상 속에 살고 있다.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은 마명(馬鳴)보살의 저술로서 대승불교의 근본이 되는 마음에 대해 밝힌 논서이다. 여기서도 감명깊은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은 두가지만 지적하고 싶다. 첫째로 깨달음(覺)에 여러가지 단계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도에 대해 상담지도한 서한집
무의식·행동의 연관관계 밝혀

말하고 있다. 특히 비구경각(非究竟覺)과 구경각을 구별하는 데 있어 긍극적인 깨달음, 즉 부처는 마음의 처음 모습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말하자면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구경각이다. 비구경각은 여러가지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자각하지만 생각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의식과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결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이상의 몇가지 점은 내가 서양의 정신치료와 도를 통합하고 도가 최고의 정신치료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에서 결정적인 확신과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또 작년 8월 '동서양 정신치료의 통합'을 주제로 서울에서 열린 (비서구권에서는 처음이었다) 제16차 국제 정신치료학회의 성공을 거두게 한 바탕이 되어주었다.

화제의 책

율장연구 허리기와 이키라 지음



경·율·론 삼학 가운데 경·론에 관한 연구서는 많으나 계율에 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 계율관계 박사학위 논문은 6편에 불과하다.

원시불교 교단 조직·운영에 초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리 및 사상연구도 필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몸소 실천했던 수행과 생활태도를 눈여겨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율'은 교단사회의 화합을 이루기 위한 제율(諸律)의 신고(新古)' 등 7장으로 구성, 승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문제, 원시불교 교단법으로서의 250계에 관한 연구 등 율장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했다. 〈박용길 역, 토방, 4만원〉

관세음보살보문품 강화 법령 지음



〈관음경〉으로도 불리는 〈관세음보살보문품〉은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보살이며 그 역할과 능력 방편 등은 무엇이며, 또 그 명호를 부르면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를 밝힌 경전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에서 널리 읽히고 있다. 그런만큼 이 경전에 대한 해설서도 매우 많다.

신앙체험 바탕 부처님 말씀 풀이

〈관음출판사, 8천원〉

절로가는 마음 2 신영훈 지음



지난해 발행된 1권에 이어 〈절로가는 마음2〉에서는 우리나라 전통사찰의 조형적인 면과 함께 정신문화적인 면에 더큰 비중을 두고 한국의 사찰을 살펴보고 있다.

산신각 지장전(시왕전) 극락전 관음전 약사전 비로전 등의 전각은 물론 스님들의 수도와 참선을 하는 설법전(무설전)과 선원, 부대시설인 공양간 하우소에 대한 안내도 상세히 곁들여 사찰에 대한 궁금증을 낱낱이 풀어주고 있다. 문화재전문 사진작가 김대벽씨가 찍은 81컷의 사진과 사진색인, 본문에 소개된 사찰과 인명색인, 우리 목조건물의 각부분 명칭을 도면으로 해설하는 부록을 실었다.

사찰건축 정신문화적 의의 조명

〈책만드는 집, 9천원〉

한국 불교조각의 흐름 강우방 지음



불상은 삼보의 으뜸으로 섬기는 신앙상징 물이며 동시에 아름다운 예술품이다. 나아가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불상은 경외의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불상이 우리의 문화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접근법을 알려줄만한 책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주요 불상 시대별 기원·의미 정리

〈한국 불교조각의 흐름〉은 주요 불상을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등 시대순으로 정리하여 아름다움과 신앙적 의미, 그것을 창조한 민중의 기원을 알 수 있게 했다. 또 우리나라 불상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인도와 중국 불상의 시대적 양식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종교미술론' '우리나라 불교조각의 흐름'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불교조각론' 등 3부로 구성했으며, 불교조각사 주요문헌목록을 부록으로 실었다. 〈대원사, 2만원〉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승도인쇄 스티커 전문
불심과 공익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문의처 (02)273-1239
대표 이 강 화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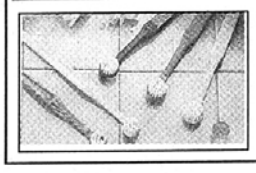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총판 운주사
·종로구 청진동 6번지
·TEL (02) 720-9372~3
·FAX (02) 723-0646

한남상사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주 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1동 612-5
전화번호: (02)795-4083 팩스 02)792-9659

정통 중국어 속성강좌
냉·난방, 최고급 시설과 어학실습실 완비
중국 사범대학 교수 초청강의 책임지도
기초반, 회화반, 유학반, 비지니스반
■ 스님 유학반 모집(이미 출국유학중)
■ 학위및 자격취득 책임보장
■ JW 202 유학허가및 입학통지서 보장
■ HSK 시험대비 중점 강의
中國語 : 漢文 : 書法
평일 6:30~22:00(9월 학기 유학생 모집)
특별반 토➡14:00~18:00 일➡10:00~18:00
정기 학원생 취업보장(수시접수)
상담 : 代 (02) 246-8256, 246-8257
韓中語學院
원장 : 중국 할빈 사범대학교 경제학 교수 중국 학위 심사위원(한국인 최초)
관허 1670호 기업진흥상담

오직 일념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조각의 명문 동양석재
•일찍이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전통 불교문화 창달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작품 제작을 일념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사오니
•대덕 스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 바랍니다.
조각가 이 규 동 합장
대 표 이 규 영
동양석재 주간:(0357)541-4705 야간:(0351)847-2001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02)733-6141(서울사무소) (0331)283-2083(공장)

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관매도 합니다.
■ 판매처 전국약국 판매중 (02)457-1241~5(삼성제약)
■ 온라인 농협억십동지점 096-01-239051(서클상사)
■ 전화 (02)556-3076~7 ■ 팩스 (02)556-3078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쉽게 풀이된 해설「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개별지도용)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인(남, 27세)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씨비스 080—023—4600

언어도단·불립문자의 세계 소설화

◇경전소설의 전형을 제시했던 〈화엄경〉 이후 4년만에 다시 〈소설 선〉을 내놓아 선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고은씨.



투철한 수행·은밀한 법통계승등 초기선종사 다뤄
고은씨 '소설 禪' 1·2권 출간… 99년 전 6권 완간

"나는 문자의 세계가 결코 아닌 세계를 문자의 세계로 그려내는 일을 한 것이다."

〈화엄경〉을 소설로 구성한 〈소설 화엄경〉을 내놓아 경전소설의 전형을 제시했던 고은(高銀)씨가 다시 선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한 〈소설 선(禪)〉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창작과 비평사刊).

작가 자신의 문학적 모태인 불교와 선의 세계를 다룬 전 6권 분량의 대하소설 중 1,2권이 먼저 발표된 것. 앞으로 매년 1권씩 추가해 99년에 전 6권을 마감하겠다는 것이 작가의 계획이다.

〈소설 선〉은 달마가 중국으로 건너가는 뱃길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험난한 파도와의 싸움을 견디고 대륙에 도착한 이후 양나라에서 무제와의 만남, 면벽수행 9년, 혜가에로의 법통승계, 의문의 죽음 등 선의 시조(始祖) 달마의 이야기에서 혜가, 승찬, 도신, 홍인을 거쳐 6조 혜능에게로 의발(衣鉢)이 전해지고 중국선이 남종과 북종으로 갈래 지워지는 과정까지가 1,2권의 내용이다. 선사들의 처절한 수행이력과 깨달음의 요체, 은밀하고도 감동적인 법통의 승계, 왕실과 세상의 어지러움을 초탈하는 수행력등이 재미를 더하고 있다.



〈소설 선〉은 앞으로 6조 이후의 중국과 한국의 선승들에게까지 사실(史實)을 바탕으로 이야기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한편의 선종사를 방불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설 선〉은 문학적 가능성을 품고 있었던 선의 세계와 소설이란 문학양식을 본격적으로 접목시키는데 성공을 보임으로 그간 '선소설'의 전형이 없었던 안타까움을 불식시켰다는 평도 듣고 있다.

불립문자(不立文字)와 언어도단(言語道斷)으로 표현되는 선과 사건·인물이 중심되는 소설의 개별적 특징은 '선소설'이란 문학분야를 형성하기에 어려움을 갖는다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와관련 평론가들은 "굳이 선소설이라 명명한다면 그 내용 속에서 선의 본질적 요체가 언어의 속성마저 뛰어 넘은 상태로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선의 역사와 선사들의 수행 자체들을 대하소설로 기획한 〈소설 선〉의 경우 작가의 체험적인 메시지와 소설적 구성의 탄탄함등이 내놓는 '게송'과도 같은 것이 작품에 흐르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불심시심 〈27〉

가사 없는 옛 곡조

火裡紅蓮落故衣 (화리홍련락고의) 불길 속 붉은 연꽃 연못에 지니
木童收拾滿籃歸 (목동수습만광귀) 나무하는 아이 주워서 광주리 가득 돌아오다
古曲無音誰敢和 (고곡무음수감화) 가사없는 옛 곡조 누가 화답하랴만
溪邊石女笑微微 (계변석녀소미미) 시냇가 돌계집은 빙긋이 웃네

계우(繼雨)법사에게 준다는 소요당의 시이다. 선가의 염송적 시이다. 한 그루 그림자 없는 나무를 불 속에 옮겨 심었다(一株無影樹 移就火中栽)는 옛 선사들의 시를 연상케 하는 시이다. 법사에게 준 시라 하였으니 일상적 사유의 세계를 초탈한 선사와 선사의 문답이라 하겠다.

연못에 피는 것이 연꽃이라는 일상의 사실에서는 불과 꽃이 동일한 공간에 존재할 수 없음이 사실이다. 하지만 피어오르는 불길을 우리는 불꽃이라 하여 일상적 언어관습에서도 불을 꽃으로 유추하고 있다. 이 꽃이 오히려 보기 드문 아름다운 꽃이기도 하다.

연꽃으로 상징되는 이 진리의 세계 그것은 불꽃으로 불타는 열정어린 가슴이라야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리의 꽃을 수습할 수 있는 나무꾼은 현실의 도착된 의식에 무젖지 않은 사람이다. 작자는 이 시를 보내는 계우법사를 이런 나무꾼으로 유추시키고 있다.

시내의 물은 예와 이제라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흐름이다. 이 흐름에 울려 나는 음률은 바로 가사없이 변함이 없는 곡조이다. 그러기에 인위적인 음률로는 화답할 수가 없다. 이 곡조를 누가 화답하겠는가. 설사 의성의 능수가 있어 곡조화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벌써 옛곡조가 아닌 오늘의 의사곡이다.

그러나 시냇가에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돌처녀가 있다. 그는 이 시간의 구애가 없기에 가사없는 옛곡조의 음률을 이해한다. 그러기에 빙긋이 웃고 있다. 우리는 이 웃음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이 웃음이야 말로 법열의 기쁨의 웃음이다. 석녀로 대칭된 불성의 본체를 찾고 거기에서 웃음짓는 기쁨을 맞아야 한다.

소요대사는 계우법사에게 이러한 진리의 세계를 이해하여 시처무애의 초탈자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인터뷰

피아노 독주회 여는 임동창씨



"음악에 몰입하는 것이 나를 찾는 수행방편"

"양악도 국악도 아닌 임동창 '나만의 음악'을 「이뭐꼬 2」에 담았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으면 심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는 29일 오후 7시 연강홀에서 첫 피아노 독주회를 통해 수행음악을 선보이는 임동창씨.

「이 뭐꼬 2」는 증부지방 농악가락 중에 나오는 '칠채' 장단을 응용한 곡으로, 라(D)와 시(F) 두개의 건반만 사용한 수행음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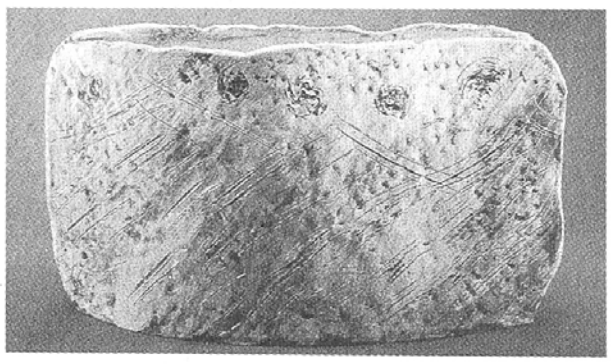
교교 졸업 후 '나'를 찾기 위해 인천 용화사(주지 송담스님)에서 출가수행을 하기도 했던 임씨는 언제나 '이 뭐꼬'라는 화두를 품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는 이번 공연에서도 자신의 세계를 담은 「이 뭐꼬 2」를 연주한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찾았을 때 비로소 음악은 완성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역부족이예요."

이번 독주회에서 「이 뭐꼬 2」라는 수행음악외에도 「달아 달아」 「가을 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와 같은 전래동요를 주제로 작곡한 세 곡을 함께 소개하는 임동창씨는 "음악과 나의 만남은 운명적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그 운명적 만남을 이렇게 풀어갈 계획이다. "천상의 연(緣)을 이어 찬송가·대중가요의 허울을 과감히 벗어 던진 찬불가를 창작해 낼 겁니다. 수행의 방편으로 삼을 수 있는 찬불가를."

〈필〉



◇ 화랑미술제에 내놓을 윤광조씨의 '월인천강'.

이왈종·이점원씨등 불교화가 대거 참여
제10회 화랑미술제… '백남준 특별전시' 등 행사 다채

올해로 열번째를 맞는 화랑미술제가 오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전관에서 열린다.

80여 화랑이 선정한 작가 1백43명이 참가하는 이번 미술제는 본 전시외에도 '백남준 특별전시' '10주년 기념 특별전, 화상(畵商)의 눈' '제2회 미술상 시상식' 등이 함께 열린다.

미술의 해를 기념해 특별 기획한 이번 화랑미술제에는 불교를 주제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도 다수 참여한다. 이점원교수(동국대)와 도부조관화로 잘 알려진 임효씨가 조형갤러리 초대작가로, 화순 운주사 천불천탑 연작을 하고 있는 강연균씨는 송원화랑 초대작가로 참여한다. 또 샘터화랑의 이인씨 동숭갤러리의 강대철씨 다도화랑의 윤광조씨 등도 각각 작품을 내놓는다.

한편 10주년 기념 특별전은 지난 9회까지 참여한 전업작가를 초청해 열게 되는데 강연균, 이왈종, 임효씨등 교계에 잘 알려진 작가들이 함께한다.

김복진 기념 조각전
컴퓨터로 작품 복원

최근들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조각가 김복진(金復鎭)의 55주기 기념 조각전이 지난 18일 한남동 다도화랑에서 문을 열었다.

「백화」「소년」등 김복진의 미발국 조각작품 도판을 바탕으로 컴퓨터그래픽으로 복원시킨 작품사진 20여점과 강대철·전뢰진등 40여 작가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31일까지 계속되는 이 전시회는 정관 김복진 기념사업회가 주최한다.

경복궁 전승공예관 이전
단청·개금등 공방 열어

경복궁내 전승공예관에 12종의 공방이 신설돼 단청, 목공예, 개금등 불교 공예실이 마련됐다.

향원정 뒷편으로 자리를 옮겨 22일 문을 연 전승공예관의 12공방은 칠, 붓제작등 생활과 밀접한 공예품들을 만들고 전시하는 곳. 이 가운데 3코너가 불교관련 공예실이다. 단청은 김의식씨(불화작가)가 목공예는 이진형씨(목공예기능보유)가 개금·도금은 김익홍씨(전통문화재 조각회장)가 각각 맡아 운영하게 된다.

김익홍씨등 작품 실려
전통문화재 조각회 작품집

대한민국전통문화재 조각회(회장 김익홍)가 회원들의 조각 작품을 실은 작품집을 펴냈다.

비매품으로 제작 관심있는 불자들이나 불교미술 관련부서에 보급하게 될 이 작품집에는 김익홍, 허길용, 조병현씨등 35명의 작품 도록이 칼라로 실렸다. 또한 후반부에는 '복장의 기원과 변천' '복장물품목' '복장품 이입 절차' '복장이입의 사상, 신앙적 의미'등이 실렸다.

6·25 주제작품 선보여
전수천씨 개인전

비무장지대 작업전의 일환으로 열리는 전수천씨의 개인전이 지난 11일부터 31일까지의 일정으로 갤러리 이즘에서 열리고 있다. 6·25를 주제로한 설치작품과 회화 4점이 소개되고 있다.

문화재 단신

사명대사 생가 복원 '성역화'

경남 밀양시 무안면 고라리 소재 사명당 생가(지방기념물 제116호)가 복원·성역화된다.

밀양시는 '사명대사유적지복원추진위원회(회장 조휘붕 밀양문화원장)와 연계, 지난 4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8월7일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입찰자 선정과 동아대 박물관의 학술용역을 토대로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키로 했다.

밀양시는 또 총 부지 2천4백여평에 생가(정침 1동, 행랑채 1동, 곡간 1동, 대문 및 협문 3개소)와 사당, 주차장 등 부속건물의 1차공사에 이어 예산 확보등 여건이 조성되면 일대를 성역화하는 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총 공사비 15억6천만원 가운데 9억5천만원이 확보된 상태.

경주경찰서 석탑 제자리로

경주시는 경주경찰서 정원에 조경용으로 놓여 있던 통일신라시대 3층석탑을 23일까지 경주시 현곡면 남사리 옛 절터로 이전키로 하고 지난 9일부터 이전공사에 들어갔다.

경북도문화재자료 7호인 이 석탑은 높이 1백70cm 너비 90cm 크기로 하단 4면에 불상이 새겨져 있으며 마을주민들이 안녕을 기원하는 탑으로 전해 오다가 지난 73년 경찰서 신축 당시 마을에서 옮겨온 것. 주민들은 "조경물로 사용해 온 석탑이 뒤늦게나마 다시 마을로 돌아온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 대표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광고국	02-737-0692
	•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경주지사	• 전화	062-375-9986
	•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 전화	053-427-8008
경기지사	• 전화	032-613-4027
	• 팩스	032-665-0965
포항보급소	•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 전화	0416-856-3280

第16次 韓日·日韓佛教文化交流大會

韓國과 日本의 佛教文化交流와 發展을 圖謀하고 兩國의 佛教指導者가 世界平和와 南北間의 平和統一을 祈願하고저 由緖깊은 古都 慶州佛國寺 大道場에서 第16次 佛教文化交流大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코저 하오니 教界의 大德스님들과 在家의 善男善女 여러분의 聲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음

◆ 大會名 : 第16次 韓日·日韓 佛教文化交流大會

第1部－大會法要式(佛國寺大雄殿) 10月31日 午前 10時
第2部－學術講演會(現代호텔 大會議室) 10月31日 午後 2時
(主題 : 宗教의 葛藤과 平和勞力)
其他－通度寺參拜 및 曹溪宗 宗正 覲下親見 11月1日 午前 10時
三光寺 오찬 및 梵魚寺참배 11月1日 午後 3時

◆ 日 時 : 佛紀 2539年 / 檀紀 4328年 〉 10月30日~11月1日(2迫3日間)

場所－佛國寺 및 現代호텔(보문단지내)
電話－서울(02)732－4885, 737－7872(종단협의회 사무국)
경주(0561)748－2233(현대호텔 보문단지)
※ 本會 任員諸位께서는 8月31日限 會費와 參加費를
一般會員님들 中 參加의 뜻이 있으신 분은 參加金 20萬원(宿食費 15萬원 參加費 5萬원)
을 本會 구좌, 국민은행 : 023－01－0365－724, 예금주 : 김 진 수
로 入金하여 주시면 參加申請하신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主催 : 韓日佛教文化交流協議會
後援 : 社團法人 韓國佛教宗團協議會
社團法人 全日本佛教會
文化體育部, 財團法人 大韓佛教 振興院

월간 대중불교 8월호



정법의 눈
쇠북소리 살아있음의 두려움 / 김종철
특집 해방 50년, 분단 50년
정신 없이 줄빌린 업의 과보
통일불사 50년의 반성과 전망 / 장응철
헐어버릴 것과 바로 세울 것
통일이 되어야 조국을 찾지 / 실상·김희균
함께 이루는 칭정국토
삼풍백화점, 또 다른 후유증-석면 / 성낙진
오늘의 눈으로 읽는 전통문화
열과 문화 전남 보성 벌교 홍교 / 김호형·김상철
법당이야기 선운사(2) / 김원존
페사지를 찾아서
(6)가야산 법수사지 / 김상영·최태선
불교와 민속 (7)솟대와 당간 / 김종대
오늘 여기에서 말씀대로 살기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서강대학교 박광서 교수 / 김희균
수행으로 가는 길(5)/간경
경전, 이렇게 읽는다 / 이제열
생활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6)
바른 말 바라밀(3) / 용타
교리신책/업(7)
악업을 방어하는 양심, 율의 / 정승석
에세이 보살불교(8)/지장보살(1)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 일지
일상을 깨우는 산문들
수행길의 이런 도반
상식을 뛰어넘는 아승, 작음 / 효림
포교당 일기 풍선껌과 두 아이 / 원욱
한조각 깨달음이 있는 수필
조정옥·박문숙·변청자
해외 불교 읽기
환생의 땅, 티벳(2) 티벳 가는 길 / 김선정
변화하는 연변, 그곳 사람들 / 소암
붕주우르, 길상 수제비타령 / 지묵
벌어나가는 불교
포교의 현장 구미불교포교원 / 이춘희
직장불교 BBS교통등신원 불자회
방송과 함께 말씀 익히기
불교방송 교리강좌를 권말부록으로 묶습니다
정기구독신청은 (02)773-5731, 754-1614

'화이팅' 천태불자 화합 한마당

상월 대조사 旗 전국청년회 배구대회 현장 취재

"자 화이팅!" 힘찬 화이팅을 외친 아홉명의 선수들은 코트에 들어서자 허리를 구부리고 오직 하얀 배구공에만 집중한다. 그 순간 어김없이 서브가 넘어오고 순식간에 송곳같은 강한 속공이 상대편의 코트에 내리꽂힌다.

선수들은 껑충껑충 뛰어오르고 응원석에서는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과 굉과리 징소리가 8월의 하늘로 울려 퍼진다.

천태종 중앙청년회(회장 이문수)는 광복 50주년을 맞은 8월15일 단양 영춘중학교에서 천태청년불자의 제전인 '제22회 상월원각 대조사기 전국청년회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스포츠행사 가운데 교계 유일한 대회일뿐 아니라 매년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개최되고 있어 대규모 공식 배구대회를 무색케 했다.

특히 이번대회는 광복50주년을 맞는 기쁨과 함께 치러지는 한편 지난해와는 달리 한국배구협회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배구대회의 수준이 더욱 격상돼 연륜과 규모를 과시했다.

김도용 종정스님을 비롯 구천서·송광호 국회의원 등 2천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운덕 총무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청년들은 종단발전의 씨앗이며 튼튼한 씨앗만이 무성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상월대조사께서 항상 강조하셨다"며 "배구, 줄다리기등을 통해 더욱 더 결속력을 다져 수행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79개 청년회가 참석한 이날 배구대회는 A·B조로 나누어 각 청년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고려증권·현대·경기대·인하대 등의 기라성같은 현역선수들도 대거 참석, 매 경기마다 2천여명의 불자들을 열광시켰다.

박진감 넘치는 배구경기가 이어지는동안 한켠에서는 줄다리기도 이어졌다. 비지땀을 흘리면서 '영차 영차'를 목청껏 외쳐대며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진지하다 못해 필사적이다.

첫번째 줄다리기 경기에서 실패한 서울 성룡사 청년회원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 마지막 기회야. 심판의 시작소리와 함께 초반승부를 냅시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승리를 향한 힘찬 화이팅을 외치고 경기에 임한다.

이렇게 모든 경기마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각 사찰의 응원단은 신명나는 응원을 통해 승패에 관계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울어진다.

해가 서쪽산으로 기울어질 무렵부터는 단축마라톤과 릴레이 경기가 이어졌고 관중들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을 향해 열화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낸다.

원활한 경기의 진행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문수 중앙청년회장은 "배구대회를 계기로 청년회원들간의 화합은 물론 현역배구선수가 참가함으로 인해 간접적인 포교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펼쳐진 이날 결승전은 청주명장사와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펼쳤던 서울 성룡사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고 하루종일 분위기를 사로잡았던 응원전에는 마산 삼학사 응원단이 응원상을 차지했다.

구인사=김중근 기자

2천여불자 참여 결속다져
지역주민들도 한뜻 동참



◇8·15광복 50주년 맞아 개최된 '제22회 상월원각 대조사기 전국 청년회 배구대회'에서 전국 79개 청년회원들은 한마음으로 우애넘치는 화합의 한마당을 펼쳤다.



이문수 천태종 중앙청년회장
"수준급 대회평가에 긍지느껴"

"매년 펼쳐지는 배구대회는 천태불자들과 스님, 지역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화합을 다지는 장입니다."

전국 79개 청년회원을 중심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해온 이문수회장은 배구대회의 의의를 이렇게 말한다.

이회장은 "8·15광복 50주년을 맞은 오늘 국내 어느 대회보다 손색없는 수준을 갖추게 된 것에 무한한 긍지와 기쁨을 느낍니다"라며 "불법을 널리 알리는 포교적인 측면에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인터뷰

대회 참가한 정의탁 선수
"불심 다지는 값진 기회 됐어요"



"배구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면 전국 어디든지 가야죠. 오늘처럼 시골학교 모래판에서 펼쳐지는 배구경기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올해로 4번째 삼룡사 선수로 출전하는 정의탁 선수(전 국가대표)의 소감이다.

"사찰을 자주 찾지는 못하지만 제게는 이런 배구대회가 불심을 다지는 값진 기회가 됐어요"라고 말하는 정선수는 "내년 대회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참석하고 싶다"며 밝게 웃는다.

수륙영산대재·예수재 봉행

천태종, 16일부터 5일간

천태종(총무원장 전운덕)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광복 50주년 기념 호국영령을 위한 수륙영산대재및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

33번의 타종으로 시작된 이번 영산대재에서 총무원장 전운덕스님은 법어를 통해 "조국의 광복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을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받들어 봉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전통의식으로 치러진 이날 법회에는 종단 간부스님을 비롯 전국각말사 신도들이 참석, 유주무주고혼을 천도했다.

법사연수교육 실시
태고종, 설법대회도

태고종 동방불교대학(학장 정태혁)은 지난달 29일 1백여명의 현직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95 법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현대불교와 법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회에는 다종교 상황에 따른 포교방법론, 신행과 불교의식등이 진행됐다. 한편 이번 연수교육을 계기로 향후 법사단을 조직 사회활동을 개최하는 한편 설법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방송작가 세미나 개최
통도사서, 25~26일

조계종 포교원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양산 통도사에서 방송작가 불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불교의 생명사상'을 주제로 도법스님(선우도량 대표)이 '경전속에 나타난 생명사상'을 강건기 교수(전북대 철학과)가 '불교문화에 나타난 생명사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구불방추진위 현판식

불교대구방송추진위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대구 대덕골프장 옆 룸비니유치원에서 현판식 및 개국 설명회를 갖고 대대적인 홍보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btn 자원봉사자 모집

불교텔레비전 기획홍보부에서는 방송출연 업무보조및 기타사회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이달말까지이며 불교TV본사나 사찰종무소에서 지원서를 교부한다. 지원서접수는 3270~33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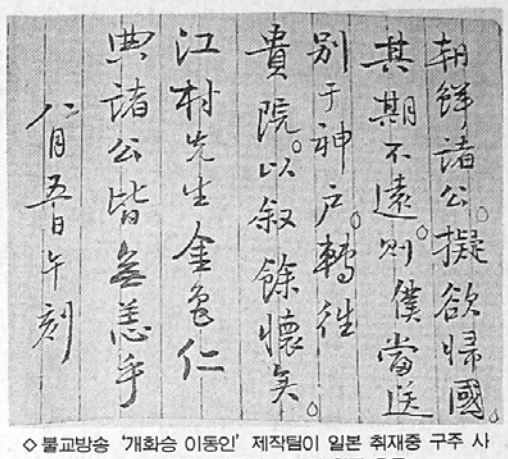
개화승 이동인 생애 재조명 활발

BBS 5부작 특집 호응…KBS '찬란한 여명' 촬영
격변기 선구자 삶 통해 '역사 바로 보는 눈' 제시

개화승 이동인 스님의 생애와 사상이 광복 50주년을 맞아 BBS, KBS등 방송가에서 집중 재조명 되고 있다.

불교방송은 지난 13일부터 5부작으로 '개화승 이동인'(PD 유진화, 매주 일요일 14:00~15:00)을 방송하고 있다. 불교방송은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일본에서 이동인스님의 유묵을 발견, 그 사본을 공개하여 학계및 언론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유묵은 가로 19.5센치,세로 14.5센치의 종속황색조선지에 쓰여진 것으로 개화기 연구가인 김의환 선생의 고증으로 제작된 도서목록에 '이동인이 오쿠무라 엔싱에게 보낸편지'로 분류,기재돼 일본 사가현의 고덕사에 소장되어 있다. 무불스님 김옥균 박영효 유대치 김장희등개화파 인물들의 친필을 방송할 계획이다. 토·일주 2회 1백부작으로 방영될 이 드라마는 제작비만도 1백37억원이 투입되는 대하 역사드라마.



◇불교방송 '개화승 이동인' 제작팀이 일본 취재중 구주 사가현 고덕사에서 발견한 이동인 스님의 친필 유묵.

대사를 새롭게 조명하여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겠다"는 제작의도를 밝혔다.

16종 19매도 소장돼 있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 유묵에는 '강촌선생 김구인'이라는 개화파 인물이 등장해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줬으며 고덕사 유물중 무등산 원효사에서 기증했다는 고려초기불상 한점도 발견돼 관심을 끌었다.

불교방송은 이번 일본에서의 이동인스님 활약상을 모은 '이동인스님 일본자료집'을 4백쪽 분량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또 한 출판사에서도 '세계의 한국인'이라는 어린이 위인전집을 기획하며 제 1편으로 '개화승 이동인'을 다루겠다는 섭외가 불교방송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BS-1TV도 내달 30일부터 이동인스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찬란한 여명'(PD 이녹영)마.

이미 촬영에 들어간 '찬란한 여명'은 이조 5백년 역사의 최대 격변기인 개항, 개화, 개혁의 역정에서 선각자들의 불꽃같은 열정과 우국충정을 오늘의 시점에서 면밀히 분석 조명하여 봄으로써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여 새로운 역사를 제시한다는 의도아래 제작된다.

이동인 스님역에는 영화 '태백산맥' 연극 '님의 침묵'에 출연했던 김갑수씨가 맡아 열연중이다.

'찬란한 여명'의 극작가 신봉승씨는 최근 집필원고 12편을 마치고 "우리나라의 근대사가 대원군의 쇄국정책, 흥선대원군과 민비의 관계가 망국으로 이끌었다는 부정적인 역사관이 지배하고 있다"며 "이동인 스님을 통해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새롭게 조명하여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겠다"는 제작의도를 밝혔다.

또 불교방송의 '개화승 이동인'을 기획하고 자료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 김정학 차장은 "개화기의 불교사가 그동안 공백상태 였다"며 "총체적인 연구를 통해 조미협약의 초약까지 작성했던 이동인 스님을 통해 불교의 시대역할론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인 스님은 박영효 김옥균 등에게 개화 사상을 일깨워준 개화파의 선구자였다.

이동인 스님은 1881년 미국과의 수호조약체결시 초약을 작성(3항만이 현존하는데 10항에 교회를 짓지말것등의 내용이 있다.)했으며 고종 밀명으로 통리기무아문의 참모관으로 일본에 군함을 구하러가다 암살당한 풍운의 승려였다.

김원우 기자

"토지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자산이며,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는게 인간의 임무이며 행복이기도 하다. 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과 미(美)와 영속성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제4의 목표에 불과한 생산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영국의 경제사상가 E.F 슈마허의 말이다. 금정산 범어사 초입에 건축중인(일시 공사중단) 16~18층 규모의 아파트를 놓고 범어사와 경동건설 양자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이 공방을 슈마허의 말을 곱씹으며 한번 생각해 보자.

금정산이 부산의 진산이며 4백만 시민의 휴식처라는데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휴일이면 수만 시민들이 금정산 자락자락에 몸을 맡기고 하루만이라도 자신의 건강을 금정산에서 찾고자 한다.

목탁소리

박 병 근

〈부산주재 기자〉

금정산의 건강미

컴퓨터로 합성한 사진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18층 규모의 고층아파트가 금정산을 가로막아 살찐 금정산의 곡선과 인공물의 직선이 연출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 그 부조화에 경탄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또 '환경영향평가'라는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진단을 털끝만큼도 몰라도, 6백12세대가 살아갈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선 금정산이 언제까지나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턱없는 욕심 아니겠는가.

이윤추구에 밤낮으로 전력투구하는 현대인에게 슈마허의 세가지 조건을 열심으로 따르라고 하면 기업가의 경우 문닫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일이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는 하등 쓸모없는 조건 뿐이기 때문이다.

재판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범어사와 경동건설의 맞대결은 결국 앞서 인용한 세가지 목표와 생산성의 싸움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토지의 건강과 미와 영속성 등 비생산적 가치를 주장하려면 그 주장자의 일관된 가치지향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생산성을 앞세우는 이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출판·편집 안내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인생은 짧고 기록은 영원합니다. 도서출판 사람들은 사회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는 물론 보통사람들의 자서전·회고록·개인기록 등을 전문적으로 기획·집필·편집·광고를 해 드립니다.

◎자서전 ◎회고록 ◎출판대행
◎수필집 ◎시 집 ◎편집대행

※ 인생 경험과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스님과 불자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출판 기획만 원하시는 분, 출판 아이디어나 출판 예정인 원고가 준비된 분의 연락을 환영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전화 혹은 방문해서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에서 필요한 각종 홍보물을 전문적으로 기획·집필·편집·제작도 해 드립니다.

도서출판 사람들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3번지 2호 선덕빌딩 3층
전화 : (02)725-6752~4
팩스 : (02)725-6920

法華經 大講座

(제1기생 모집)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 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이자!
법화경은 중생들에게 보살도를 가르쳐 최고의 행복을 주리니

1. 연구반 30명
2. 통신반 약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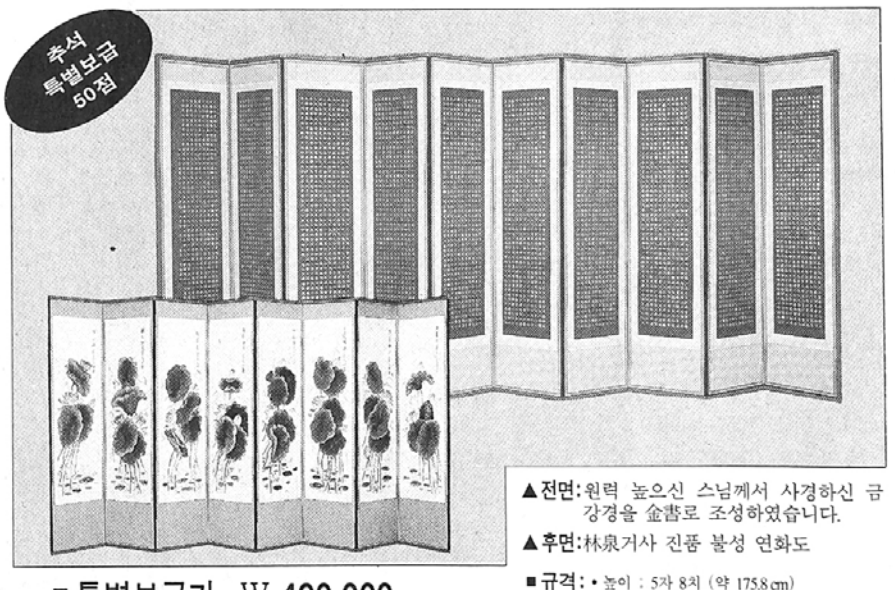
강 주 : 법화경의 태두 惠耕 큰스님
기 간 : '95. 9월 3일부터 6개월간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부터
장 소 : 무설정사(84번 화계사 종점)
회 비 : 교재대 포함 20만원(분납 가능)
등록기간 : '95. 8월 15일 ~ 8월 30일

주 최 : 無說精舍 白蓮會
전 화 : (02) 983-0198
팩 스 : (02) 982-7598

모시는 인연만으로도 큰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금강경 10폭 병풍

불자라면 누구나 원하시는 원력병풍 – 금강경
표구비만으로 드리는 추석특별보급으로 가격부담없이 가까이 모실 수 있습니다.



▲전면: 원력 높으신 스님께서 사경하신 금강경을 金書로 조성하였습니다.
▲후면: 林泉거사 진품 불성 연화도
■규격: • 높이 : 5자 8치 (약 175.8cm)
• 폭 : 14자 (약 424.3cm)
• 재질 : 고급스기목/양면 고급비단/스모사 특후지

■특별보급가 ₩ 490,000
(현금 및 은행신용카드)

※참조:후면에 팔상록(석가세존 일대기)를 원하시면 별도로 꾸며드립니다.

구입문의
기획제작 三田佛事
(02) 732-6095
732-6096
• 클로버서비스전화 080-023-1101(요금 수신자 부담)

"금정산 파괴 절대 안된다"

범어사 본말사스님 아파트 건설 저지 단식·산문폐쇄도

범어사와 경동건설이 공사중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한 가운데 범어사(주지 정관)를 비롯한 본말사 1백여 스님들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보제루에서 경동건설의 아파트 건립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범시민 차원의 백만인서명운동 전개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어사는 '단식에 들어가며 부산시민에게 드리는 글'의 성명을 채택하고 "금정산은 부산시민의 안식처이기에 마땅히 보존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흉집없는 금정산을 후세에 물려주고 환경파괴에 경종을 울리고자 단식에 돌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성명은 또 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각종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며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문폐쇄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환경운동연합(우용태), 공개협부산지부(장혁표), 경실련부산지부(이종석), 부산YMCA(이성헌), 부산YWCA(유금종), 부산기독교교인협의회(정영문), 참여자치시민연합(김정각), 부산불교문인협회(김문숙) 등 20개단체들도 아파트 건립철회를 요구하며 향후 범어사와 연대해 나갈 것을 표방했다.

한편 범어사 앞 경동아파트 건립반대에 나섰던 정임순(여, 70,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씨가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경 경동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경동 직원들에 의한 강제해산과정에서 바리케이드에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 입원 가료중이나 의식불명이다.

〈부산=박병근 기자〉



◇삼풍백화점 희생영가 합동 49재가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삼풍참사 49재 '극락왕생' 기원

16일 조계사서…생환자·자원봉사자에 감사패

삼풍백화점붕괴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영가 천도 합동 49재가 지난 16일 오후2시 희생자가족의 오열속에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49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 각종단 대표와 국회정각회 권익현회장, 박찬종씨, 유가족대표, 실종자대책본부 고문 신현규씨등 3백여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에앞서 이날 오전 11시 자원봉사를 펼친 봉은사, 구룡사, 경불련, 불교자원봉사연합회등 16개 봉사단체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됐다. 또 극적으로 생환한 박승현, 유지환양과 서울소방본부, 서초소방서 119구조대등에 감사패가 전달됐다.

통도사 수련대회 성료

대한불교 법사회

대한불교법사회(이사장 목정배)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경남 양산 통도사 취운선원에서 회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중흥운동 법사운동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46명의 법사 품수식을 겸한 이번 수련대회는 △생명과 환경, 복지 △자주적 불교 △가족동참 수련대회에 역점을 두고 목정배이사장, 운곡스님, 이용권(동방불교대)교수, 일기준법사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대전에 초대형 법당 모습 드러내

천태종 광수사·3군법당…중부지역 포교중흥 기대

대전이 불법포교의 요람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대전 계산동에 자리잡은 천태종 광수사(주지 문덕스님)는 9월27일 법당 낙성식 및 봉불식을 앞두고 마무리 불사에 한창이다.

지난 93년 착공된 광수사는 대지 2만5천평, 건평 1천2백평에 지하 1층, 지상3층의 다목적 불교회관으로 콘크리트 한식형 건물이다.

특히 3백평 규모에 2천5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법당과 소강당, 회의실 등은 급격히 늘어가는 지역불자들의 신행활동에 커다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11월, 이미 신도회 정기법회 등을 열기 시작한 광수사는 내년 초부터 유치원 건립, 불우이웃돕기 등 2세교육과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다각적인 포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유성 지운동에 지어지고 있는 3군법당은 군포교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대지 1천4백여평에 건평 5백평 규모의 3군법당은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육·해·공군대학이 합쳐져 대전에 세워지고 있는 3군대학이 군 최고 고급교육대학기관이라는 점에서 영관급 장교 교육생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포교일선에 나서게 될 3군법당의 건립의미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대전은 민간과 군포교를 통해 불교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동석씨등 사면복권

인권위, 양심수석방 촉구

광복 50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단행된 특별사면·복권에서 89년 민불련 사건에 연루됐던 서동석, 김영균, 이남재씨와 박강희씨(불교인권위 언론대책위원장), 김동주 전의원, 조기현(전 전국신도회장)씨 등도 사면·복권됐다.

한편 전불련(상임의장 지선스님)과 불교인권위는 이번에 단행된 특별사면·복권조치와 관련 성명을 내고 장기수와 양심수의 전면 사면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행자교육 228명 입방

조계종, 내달 5일 회향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스님)이 주관하는 제9기 행자교육원이 지난 15일 해인사에서 고불식을 시작으로 21일간의 교육일정에 들어갔다.

오는 9월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행자교육에는 남행자 1백34명, 여행자 94명등 총 2백28명의 행자가 입방했다.

춘천신도회 29일 창립

정기법회·바른신행 운동등 추진

춘천지역 불교신행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춘천불교신도회가 오는 29일 창립된다.

시내 춘천문화체육예술회관에서 27일 오후2시에 창립법회를 갖는 춘천불교신도회는 춘천·강원지역 불자 1백여명이 뜻을 모아 결성한 순수 신행단체. 이날 창립법회에는 3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

청소년교화연합회

(사)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주관 '95 청소년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이 지난 11일부터 3박4일의 일정으로 부여 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청소년단체, 수련시설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공부방 및 어린이집 운영자 등 70여명은 이번 연수에서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육성5개년 계획과 관련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한편,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청교련 대전지부 윤남선씨가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구민, 복혜인, 성록환씨 등 6명이 본회 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산림백고좌 대법회

해인사 대구포교당 법왕사

해인사 대구포교당 법왕사(주지 실상스님)는 18일부터 11월28일까지 제4회 법화경 산림백고좌 대법회를 봉행한다.

통일기원 백일 기도

마라도 기원정사 회향

국토 최남단 마라도 기원정사(주지 정관)는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봉행한 통일기원 1백일 기도를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회향했다.

기원정사 통일기원법회는 그동안 마라도를 찾은 불자와 관광객이 동참했다.

법정스님 선우도량 수련결사 기조 강연요지



"미래지향적 종단교육 실현 지도자 의식변화 선결과제"

21일 열리는 선우도량 제 9차 수련결사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법정스님(맑고향기롭게 운동본부 회주)은 미리배포한 강연문에서 미래지향적 종단교육 실현은 현 지도자들의 의식변화와 젊은 수행자들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현재 종단교육 문제는 많은·부분을 논의해야 할 만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종단자체의 실행과 실천이 뒤따르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하고 올바른 종단교육을 위해서는 종헌·종법보다 전통적 관행이 우선되는 구습철폐와 실력자들(주지, 방장, 조실, 강주, 선원장등)의 의식개혁을 필수요건으로 꼽았다.

스님은 또 종단교육의 기틀은 삼학을 배우고 익히며 실현하는데 있다고 언급하고 계를 지키는 철저한 수행으로 교육의 바탕을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불교의 역할에 대해 스님은 △불살생(不殺生)사상의 보편화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경제윤리 확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생활방식 개선 등을 요체로 꼽고 이에 대한 불교의 사명은 실로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경륜을 지닌 젊고 청정한 수행자들이 큰 원을 세워 종단교육은 물론 불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수행자 본분을 명심하며 부처님의 지혜를 잇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차주상보〉



내려앉은 일제잔재 광복 50주년을 맞은 지난 15일 경축식에서 구총독부 첨탑이 69년만에 철거되어 경복궁 안마당에 내려졌다. 통일의 역군이 될 청소년들이 치욕의 흉물이었던 첨탑을 바라보며 미래를 다짐하고 있다.

제주법정사 만세행진 재현

정부, 방동화·김연일스님등 18명 독립유공자로 선정

일제 강점에 대항해 제주에서 최초로 봉기한 무오법정사 항일투쟁을 기념하는 만세대행진이 지난 15일 제주 서귀포 일원에서 거행됐다.

77년만에 재현된 이번 행사는 중문청년회의소(회장 원두원)가 중문 법정사를 중심으로 스님과 주민 4백여명이 자주독립을 외치며 항거했던 만세대행진을 추모해 열렸다.

이날 유족과 불교신도, 주민등 1천5백여명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중문국민학교에서 중문관광단지까지 만세대행진을 재현했다.

이어 학계, 교계관련자등 2백여명은 중문관광센터 회의실에서 법정사 항일운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한편 정부는 법정사 항일투쟁에 참가했던 김봉하, 김명돈, 이상언, 방동화, 김연일스님을 비롯 신도 18명을 독립유공자로 선정, 포상했다.

전국사암 '민족화해' 일제 발원

통일기원대회등 교계 광복행사 다채

광복 50년을 기념해 불교계는 전국 사암에서 일제히 타종식을 갖는등 광복의 의미를 기렸다.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각 사찰은 15일 오전 10시 33번의 타종으로 광복의 기쁨을 되새겼고 구룡사는 새로 제작한 범종 타종식을 거행하고 민족의 화해를 발원했다.

태고종도 이날 사이판 한국인 위령탑앞에서 '광복 50주년 기념 태평양전쟁 희생자 천혼대재'를 봉행했다.

이밖에도 실천승가회, 평불협, 전불련, 불교인권위 등 불교단체도 타종교와 연대해 광복 50년 관련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한국종교평화회의, 통일광복민족회의 소속 스님들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5·18 진상규명 촉구

광주사암연등 가두행진

전남교구본사주지협의회와 광주불교사암연합회는 지난 11일 광주 원각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원각사에서 도청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불민협(회장 월주스님)도 5·18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日참회단 과거잘못 사죄

일본의 신흥종교 천지정교(天地正敎·교주:아라야시즈)교주 및 신도 1백30명은 지난 12일 참회단을 구성 한국을 방문, 서울 남산의 안중근의사 기념관을 찾아 과거 잘못을 사죄했다. 또한 독립기념관참관(13일), 유관순생가 방문(14일), 8·15광복절 식전행사(15일 독립기념관) 등에서 과거 일본의 잘못을 사죄하고 16일 귀국했다.

26일 범종교인 축구대회

한국종교인협의회(회장 이재석)는 불교, 천도교, 원불교, 유교, 대한예수교 장로회연합총회, 대종교, 이슬람교, 대한천리교, 통일교등 9개 종교인이 참여하는 '95 종교인 축구대회를 26일 서울 잠실올림픽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한다.

29일 극단 '반야' 특별공연

대전불교사암연합회(회장 청봉스님)와 연합회 신도회는 오는 29일 오후 7시 우성 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나라사랑 시민도덕성 회복 기원대법회로 극단 '반야'를 초청 특별공연을 갖는다.

'환생'이란 주제의 이번 연극은 제행무상을 깨닫고 니르바나에 이르는 길을 펼쳐 보인다.



불교 성지 순례

실크로드 대장정 23일
-중국 불교유적지와 간다라 불교유적-
· 출발 : 9월 18일
· 동참금 : 295만원
· 일정 : 서울-북경-서안-난주-가욕관-돈황-투르판-우룸치-카슈가르-쿤자랍고개-훈자-길기트-스왓-페샤와르-탁실라-이슬라마바드-라호르-방콕-서울

실크로드 불교유적지 11일
· 출발 : 9월 22일
· 동참금 : 188만원
· 일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벳·네팔 9일
· 출발 : 9월 30일
· 동참금 : 210만원
· 일정 : 서울-상해-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방콕-서울

인도·네팔 성지 순례 10일
-불교 7대 성지와 네팔의 불교사원 순례-
· 출발 : 9월 27일, 10월 26일
· 동참금 : 160만원
· 일정 : 서울-델리-바라나시-사르나트(녹야원)-부다가야-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사윗성-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와이앰부넛 등)-서울

중국불교유적지 13일
· 출 발 : 9월 19일
· 동참금 : 195만원
· 일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백두산 연길 북경 5일
· 출 발 : 9월 16일
· 동참금 : 100만원
· 일정 :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사원-
· 출 발 : 9월 17일
·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 출 발 : 9월 20일
· 동참금 : 65만원

■ 여행조건 ●호텔 : 특급 및 1급,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 ●최소 출발인원 : 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작업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보이는 것을 바로 보는 것이 일상적 삶의 정도(正道)라면 보이지 않는 것마저 바로 보려는 것은 예술적 안목을 통한 또다른 세상 보기일 것이다. 그래서 구상과 비구상의 영역이 각각의 특색을 인정받으며 예술의 한 범주를 차지하는 것일게다.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나의 화면 분할은 풍경과 정물 또는 일상적인 사물들, 그리고 불교적 소재로부터 오고 있다.

같으로 볼때는 색·면·추상적 경향 이지만 실은 구상에 그 바탕을 두고 싶다. 화면작업 자체는 추상적 경향과 구상적 인상이 혼용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작업 전체를 어두운 색의 강한 덧칠 특히 주제 부분을 나타낸 것은 나 자신이 인간으로써의 갈각적인 체취를 더 해주고 관화작업은 일상의 비개성, 이기성을 순화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로 보는게 예술의 눈

깊은 산사를 찾아 입주문 대웅전 앞에 설 때는 누구나처럼 경허함과 동시에 그 안에 피어오르는 청정불심의 메아리를 느낀다. 그 느낌을 그리고 싶은 욕망들이 사실 인식을 단절한 어떤 무아의 상태에서 필묵을 유희해 보고자 하는 것은 어느 작가이든 한 번쯤 몰입해 보려 하는 경지 일 것이다.

강렬한 삼원색 때로는 흔히 흔스럽다는 색의 도움으로 수묵의 흠뭑 속으로 침몰되다시피 하는 나의 작업은 때로 자유의지의 표상이기도 하다.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그리거나 없는 것에서 없는 것을 그린다는 매우 선(禪)적인 결단이 '부처님의 마음'까지 그릴 수 있는 것이기에.

늘 한을 피우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늘에서 쏟아지는 꽃비를 기다려 본다.

이상진(동양회기)

선재들의 합창 ①

주부신행담

오늘도 우리 천마재활원의 아이들은 바쁨넘고 자비심 깊은 수많은 불보살님들의 원력으로 하루하루를 밝고 명랑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요즈음 같이 습기많고 바깥 출입하기 어려운 날씨에는 정상인들도 생활하기가 무척 힘드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원 원생들은 날씨에 이랑곳하지 않고 잘도 견디어 내고 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늘상 입에 돌게 그들을 마음먹은 대로 보살펴 주지 못하는 죄책감이 항상 앞선다.

생각해 보면 내가 천마재활원을 운영하게 된 동기는 대략 3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시절 법어사에서 공덕(일간 불광 발행인) 스님으로부터 금강경을 배우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불교에 공식적(?)으로 입문하게 되었으며 그후 사찰을 내집 드나들듯이 하며 불타 석가모니의 위대한 가르침을 한자 한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전까지 특별한 종교가 없었던 내게 불교는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하는가를 나에게 가르쳐 주었으며 그 당시 많은 스님들의 법문은 자금도 내 생활의 지침이 돼 힘들고 괴로운 고비 때마다 힘이 되어 주고 있다.

부산시 서구 암남동 산 13-5, 3층의 자그마한 벽돌집.

불교에 귀의하게 된 인연을 언급하자면 우리 천마재활원을 빼놓을 수 없다. 천마재활원은 지난 1960년 송도 신경정신과 의원장인 황산무(58, 남편)씨의 선친이었던 고 황명규 선생에 의해 '사애원'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1977년 일반 아동들이 줄어들고 정신지체인이 늘어남에 따라 남편의 연구와 의료사업으로 정신지체인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고 내가 직접 원장일을 맡아 본격적으로 이곳 지체인을 돌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4년에는 풍경좋은 지금의 위치로 시설을 확장 이전했다.

처음 시아버님이 나에게 천마재활원을 맡아서 해보라고 하셨을 때는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에 전혀 경험이 없었던 터라 덜컥 겁부터 났다. 돌이켜 보면 어려운 복지사업의 시작을 단순히 시혜일 정도로 생각하고 맞닥뜨리게 너무 무모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다른 일에 신경을 쓰를도 없이 재활원 일에 눈코 뜰 새 없이 보내기를 몇년, 어느 시점이 있다고 하기는 막연하지만 나의 생활은 천마재활원을 떠나서는 형성되지가 않을 만큼 나는 이 일에 열중하게 되었다. 그동안 차츰 천마가족이 늘어나 일이 힘들어져도 단지 삶터이 크다는 것 뿐이지 하고 살아왔었다. 시간이 모자라면 어느 편가는 시간이 여유로와지겠지 하고 자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살아갈수록 다정했던 친척과 지우의 결혼식, 장례식, 동기회, 동문회 등 여러 모임에 연이어서 참석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의 마음은 불편하기만 하고 무슨 대책을 강구해 두고도 그냥 넘어가 버리기가 다반사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모자라는 시간을 스스로 충족할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나의 생활을 연민의 정으로 이해하는 쪽도 이해 못하는 쪽도 다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는 나를 평온하게 하였고 모든 바깥 나들이의 참석 여부를 두고 애태웠던 생활이 차츰 안정되게 되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복잡한 살림은 체계화 되었고 능력있는 직원들의 움직임으로 어느 정도 바깥 나들이가 허용될 수 있었다.

그때는 겨울이 오면 마음의 무장이 전쟁터로 출전하는 군인처럼 되었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몸시 추운 날 두분의 비구 스님께서 방문 하셔서 겨울 한 철 재활기간을 천마재활원에서 연탄갈이 봉사를 하시겠다고 자원하셨다. 당시에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었지만 워낙 언행에 신뢰가 가고 존경스런 분들이었기에 이사장님께 허락을 받고 방을 내드렸다. 그렇게 해서 스님들의 천마재활원 연탄갈이 봉사생활이 시작되었다. 검정 조끼잠바와 가스방독 마스크를 쓰신 두 스님께서는 연탄불을 꺼뜨리지 않으셨다. 우리 아이들의 방은 항상 일정 온도를 유지하였고 육육까지도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뿐이 아니었다. 방도배를 하시는가 하면 식탁과 걸상을 고치시고, 이때 아이들은 합장인사하는 법도 익히게 되었으며 큰아이들을 환경에 알맞게 교육도 하셨다. 정말이지 그 해처럼 천마가족이 크게 아프지도 않고 큰 걱정없이 보내기도 드문 일이었다.

박근령
〈부산 천마재활원 원장〉



처음 시아버님이 재활원을 맡아보라 하셨을때 경험이 없었던 나는 덜컥 겁부터 났다

♦ KHAGGAVISANASUTTA (코뿔소경)

♦ Having laid aside the rod against all beings, and not hurting any of them, let no one wish for a son, much less for a companion, let him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살아 있는 것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 살아 있는 것들을 해치지도 말라. 너무 많은 자녀와 친구를 갖고자 하지도 말고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 In him who has intercourse with others affections arise, and then the pain which follows affection : considering the misery that originates in affection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사귐이 깊아지면 애정이 싹트고 사랑이 있으면 거기 고통의 그림자가 따르나니 사랑으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을 깊이 관찰하고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 He who has compassion on his friends and confidential companions loses his own advantage, having a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⑦

letteres mind : seeing this danger in friendship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친구나 주위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여 마음이 그들에게 얽매이게 되면 본래의 뜻을 잃게된다. (친함)에는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 Just as a large bamboo tree with its branches entangled in each other, such is the care one has with children and wife ; but like the shoot of a bamboo not clinging to anything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자식이나 아내에 대한 애착은 마치 가지가 무성한 대나무가 서로 엉켜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죽순은 다른 나무가지에 달라붙지 않듯이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rhinoceros 코뿔소 무소
*letters 주의, 마음, 구속

한명우 기자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침대전문 회사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길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체폭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트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 매트 시스 사용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해소 할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GRAND FANTASIA

꿈의 나래를 편다
그랜드침대
• 본사: 경기 파주군 광탄면 마장2리 180-18
• 전화: 0348-945-2233 / 팩스: 0348-945-9607

생활 속의 불교 ㊲

재수(再修) 보다 삼수가 더 힘겹듯이…

질병·고통·재난·실패·손재·이별·죽음 등 불행한 일들, 건강·화목·성공·부·명예 등 행복한 일들, 운명·능력·환경이라 이름하는 것들, 그것들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다만 행운이요, 다만 불운인가.

물질 세계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엄존하는데 우리들 삶의 세계에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에도 그와 같은 원인—결과의 법칙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어느 종교에서 말하듯이 창조주의 뜻인가.

만약 원인—결과의 법칙에 따른 것이라면 불행의 원인, 행복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인가, 나 자신인가, 부모인가, 조상인가.

내가 원인의 제공자라고 한다면 왜 자신을 찾아오는 순한 행·불행에 대해 낱낱히 그 까닭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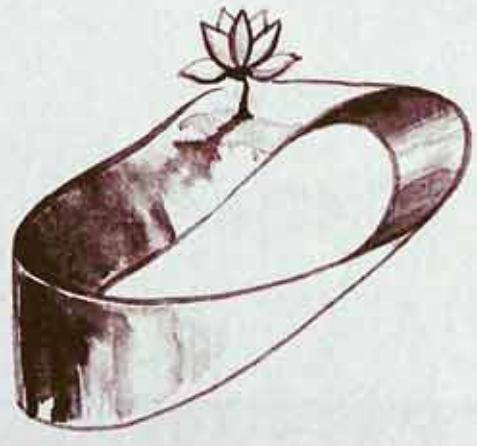
왜 화하게 살리고 해를 쏘는데도 불행은 비껴가지 않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일까. 왜 악행을 저지르고도 멍멍거리며 잘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 것일까. 원인—결과의 법칙이 틀린 설명이거나 아니면 영성하기 때문은 아닐까. 혹은 어느 종교에서처럼 그것은 창조주의 몫이니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에 속하는 것일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행·불행의 주체는 그대 자신이다. 신도 아니요, 조물주도 아니요, 불보살도 아니요, 거룩한 이도 아니다. 오직 그대의 마음, 그것이 주체이다.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다. 이것은 한 치의 빈틈이 없는 철두철미한 법칙이다. 무심코 일으킨 생각 하나하나라도 결과가 없는 법은 결코 없다!'

이른바 업의 작용, 과보라는 것이다.

자기가 음식을 먹었으니 복하기도 할 것이고 자기가 말을 내뱉았으니 말



값을 치뤄야 하듯이 생각 하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공허한 것은 없고 일어난 대로 제곡제곡 쟁여져 있다가 조건따라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 업의 작용이란 시간·공간을 초월한 것이어서 자신이 그 전말을 알고 모르고에 관계 없이 되돌아 나올 조건만 맞으면 언제고 찾아든다고 한다. 그러므로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행위의 기록 문서를 길어지고 산다는 것이다.

윤회의 바퀴를 돌리면서…….

그러나 업의 작용은 형벌이 아니다. 응징이나 보복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작용이 있는 곳에 반작용이 따르는 이치와 같을 뿐이다. 주먹으로 바위를 치니 통증을 느끼는 것과 같다.

업의 작용에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통증을 느끼고 나서 더 이상 바위를 치지 않으려 하는 것.

그것이다. 예컨대 내게 찾아든 고통·질병·재난을 통해 그것이 탐욕·질투·성냄 따위의 나의 주먹질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더 이상 탐욕·질투·성냄 따위의 마음을 그치려 하는 것. 그것이 업의 작용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교훈을 선용(善用)하지 못한다면 작용—반작용의 법은 더욱 커져서 앞서의 고통·질병보다 더 심한 것이 업습하게 될 것이다. 재수(再修)보다 삼수가, 삼수보다 사수가 더 고통스럽듯이…

불법엔 이 업의 작용을 녹여내리는 가르침이 있다.

협찬: 운 여 형

불법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